

15. 중랑장공파(中郎將派)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玄담윤覃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景憲公경헌공 고려의종, 명종대	덕수 德秀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원빈 元賓 都領郎將 도영랑장	경조 敬祖 司評 사평	박 擢 中郎將 중랑장	원檀 文科 문과	승평 昇平 進士 진사	명수 明秀 僉使 첨사	수수 麗州牧使 여주목사	우우 雨	귀남 貴南 生員 생원	숙량 淑良	준후 俊後 副司直	수검(壽謙) 掌隸院判決事 장예원판결사	무武 용龍 작雀 호虎 황黃

원빈元賓, 3세

고려조배(高麗朝拜) 도령낭장(都領郎將) (拜배는 조정에서 벼슬을 주었다는 뜻, 도령낭장은 고려시대 지방군대의 지휘관)

박 擢, 5세, 중랑장공파 중시조

고려조(高麗朝)에서 정5품 무관직인 중랑장(中郎將)을 지내셨다. 중랑장은 장군 다음 가는 계급으로 장군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24년 갑자보(甲子譜, 5수보) 편수 때 후손들이 중시조로 모시고 연주현씨대동보에 ‘중랑장공 박파’로 등재했다.

수 수, 9세, 천령(川寧)현씨 중시조 여주목사(驪州牧使)

시조 담윤(覃胤)공의 손자인 都領郎將(도영랑장) 元賓(원빈)의 6세손, 中郎將(중랑장) 擢(박)의 현손(玄孫)이다. 여주목사(驪州牧使)를 지냈다. 여주(驪州) 천령촌(川寧村)에 자리를 잡고 산 여유로 후손들이 천령(川寧)현씨 중시조(中始祖)로 모셔왔다.

천령(川寧)은 여주지역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술천(述川)이라 불렀고, 신라 경덕왕 때 기천(沂川)이라 칭했으며, 고려초에 천령으로 바뀌었고, 조선 예종 때 여주와 합쳐졌다.

중랑장(中郎將)공파는 9세 현수(守)를 중시조로 해서 천령(川寧)현씨로 분파되었다가 1957년 정유보(丁酉譜, 6수보) 編修(편수) 때 5세 중랑장공 박擢을 중시조로 14세 수검의 세 아들 무(武), 용(龍), 작(雀)의 후손들을 중랑장공 박파로 추가 등재했다.

1957년 정유보(丁酉譜, 6수보) 서문에 “전일 보첩에 목사공파(牧使公派; 성주목사공파) 및 도령랑장공파(都領郎將公派; 3세 원빈의 후손, 중랑장공파)와 동보하지 못하게 되어 동조(同祖)의 자손으로서 항상 유감으로 여기던 중 이번엔 합보가 되어 소원을 성취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3세 도령랑장공(都領郎將公) 원빈의 후손들은 9세 수(守) 공을 중시조로 하여 천령현씨로 지내오다가 6수보 編修(편수) 때 중랑장공 박파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수겸 壽謙, 14세 부사직(副司直) 장례원판결사(贈掌隸院判決事), 통정대부(通政大夫) 여주목사(驪州牧使)를 지낸 천령(川寧)현씨 중시조 9세 수(守)의 5세손이다. 1513년(중종8년)에 태어나서 1593년(선조27년)에 돌아가셨다. 자(字)는 겸지(謙之)로 부사직(副司直)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 통정대부(通政大夫)의 벼슬을 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부인은 숙부인(淑夫人) 안동김씨(安東金氏)로 묘소는 양주 별내면 화접리에 있었으나 정부의 주택개발정책으로 수용되면서 2008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로 이장했다. 무(武), 용(龍), 작(雀), 호(虎), 황(黃) 다섯 아들을 두었다. (남양주문화대전에는 현수겸 공의 사망은 1585년 선조 18년이라 되어 있다)

3남 雀(작)은 天安(천안)에서 살았으며 후손들은 생업에 따라 대부분 출향하면서 2000년 庚辰譜(경진보, 8수보) 編修(편수) 때, 天安(천안) 判官公(판관공)系(계)로 흡수 편찬(編纂)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남 호(虎)의 후손들은 2016년 電子族譜(전자족보) 9修譜(수보) 編修(편수) 때 중랑장부사직공파(中郎將公副司直公派)로 계보를 독립 분리했다.

1892년(고종29년, 임진壬辰) 가을에 대한제국 원수부총장을 역임하신 24세 暎運(영운)公이 근 400년간 失傳(실전) 되었던 9세 贊成公(찬성공) 碩圭(석규)公 부부(夫婦)의 멸실(滅失)된 墳墓(분묘)를 찾은 후 선산을 점유하고 있던 벽진이씨(碧珍李氏) 집안으로부터 선산을 매입하고 墳墓(분묘)를 정비했다. 贊成公(찬성공)系(계) 후손들과의 緣通(연통)이 되지않자 暎運(영운)公의 만형 경운(擎運, 소설가 현진건의 부친)公이 주도하여 매년 伐草(벌초), 歲祀(세사) 등을 지내왔으며, 후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1982년에 재실(齋室) 청단재(靑端齋)를 건립하는 등 최근까지 130여년을 奉祀(봉사)해왔다.

1924년 甲子譜(갑자보, 5수보) 편수 때 14세 장례원판결사(贈掌隸院判決事) 수겸(壽謙)公의 4남인 15世(세) 호(虎)公을 형제들과 분리하여 찬성공의 神主養子(신주양자)로 入籍(입적)하면서 15세 호(虎)公의 아들 16세 철상(哲祥)公의 차남 17세 한일(漢一)公 후손들을 찬성공(贊成公) 후손들과 함께 고려시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내신 6세 태로(台老)公을 중시조로 하는 태로파(太老派)의 경성(京城) 지역 계보로 족보에 등재했다. 이때 15세 호(虎)公의 아들인 16세 철상(哲祥)公의 3남 오일(悟一)公, 4남 승일(承一)公의 후손들은 5세 중랑장(中郎將) 박(擥)公을 중시조로 하는 중랑장공(中郎將公) 박파(擥派)로 등재하여 1982년 임술보(壬戌譜, 7수보)까지 계보를 이어왔다.

2000년 경진보(庚辰譜, 8수보) 編修(편수) 때 호(虎)公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9世(세) 贊成公(찬성공) 碩圭(석규)公(공)을 中始祖(중시조)로 하는 贊成公派(찬성공파)를 만들어 호(虎)公 후손 전체를 贊成公파(찬성공파)로 등재했다.

2017년 전자족보(電子族譜) 9修譜(수보) 편수 때 15세 호(虎)公을 贊成公派(찬성공파)에서 분리하여 15세 호(虎)公을 중시조로 하는 중랑장부사직공파(中郎將副司直公派)로 獨立系派(독립계파)를 구성했다.

중랑장공파 14세 현수겸의 후손들은 조선 후기 명문 가계를 이루었다. 조선 시대에 역과 배출 순위와 당상관 순위에서 네째 가는 집안이었다. 역과방목(譯科榜目)에 의하면 잡과나 주학 입격자가 213명인데 이들 모두가 현수겸(玄壽謙)의 후손들이었다. 현수겸의 4세손이 7명, 5세손 15명, 6세손 30명, 7세손 25명, 8세손 14명, 9세손 24명, 10세손 24명, 11세손 26명, 12세손 27명, 13세손 14명, 그리고 14세손이 7명이다. 시기별로 보면 17세기 초반에서부터 과거제도가 폐지된 갑오개혁(1894) 직전에 이르기까지 근 300년 동안이다. 잡과 입격자는 직업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기술, 학문적 교양을 갖추어 시문에 능하였기에 조선 시대에 고위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실무관료로서 엘리트로 행세했다. 또한 실무 직위를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지식층으로서 당대 문화를 선도하는 주요 계층으로 성장했다.

- * 조선시대 과거제도 중, 잡과에는 역과, 의과, 율과, 운과가 설행되었다. 역과는 통역관(중국어, 여진어, 왜어 통역관)을, 의과는 의관(의사)을, 율관은 법률관(법률가)을, 운관은 천문관(천문가)과 지리관, 화원(畫員, 화가)을 뽑는 시험이었고, 주학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호조에서 뽑는 취재라는 시험이었다.
- * 중랑장공파(천령현씨)는 한양 중촌(中村)에 살았다. 중촌(中村)은 개천(현재의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종로 일대를 말한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동네였다. 근처에 궁궐과 주요 관청, 시전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였다. 이곳에는 주로 역관, 의관, 율관 등 전문직 관리나 관청에서 근무하는 서리인 경아전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다. 역관으로는 수진방(청진동 주변)의 천녕 현씨와 장통방(관철동 주변)의 무안 박씨가 있었고, 의관으로는 대묘동(종묘 주변)의 안산 이씨가 알려져 있다. 한편 시전의 상인들은 다동과 상사동(청진동 주변) 등에 살았다.

수겸壽謙 계보(系譜)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수겸壽謙 장에원 판결사 掌隸院 判決事 (1513-1593)	1 무武 (1538-1617)	3 몽상夢祥 가선동추 嘉善同樞 (1574-1642)	극일克逸 가선嘉善 1607~	진명晉明 등학별제等學 別提 (1624-1675~	1 달원達源 한성판윤漢 城判尹 (1641-1720)	2 제강梯綱 어의 동훈대부 시흥현감 (1665-1735)	載鼎제정 용인현령 龍仁縣令 (1701-1753)	3 啓淳계순 절충折衝 (1738-1786)	重瑞중서 생부 계인啓寅 관상감정 觀象監正 (1760-1817)	光宣광선 지추知樞 (1796-1879)	行健행건 동시同知 내의內醫 (1840-1915)	東完동완 태의원 기수 太醫院 技師			
								4啓寅계인	2禹瑞우서	1 光秀광수	2 浩健호건	1 東哲동철	1 宜榮의영	1 基弘기홍	2 再鎬재호
						3 信綱신강	1 載觀재관	1 啓祚계조	2 奎瑞규서	1 光業광업					
		4 득홍得洪	위璋 절충折衝 1598~현 종임인졸	만운萬運 내의정중內醫 折衝 1637~숙종정 해출	서하瑞夏 내의정 內醫 1659~숙종 계사졸	기봉起鵬 내의內醫 적성현감 積城縣監 송목崇祿 지추知樞 1684~영 조경오출	처명處明 내의內醫 침추兪樞 1715~	필채必采 내의內醫 가선嘉善 동추同樞 (1746-1809)							
			언瑱 의과봉사 醫科奉事 1618~현 종임인졸	만시萬始 역과교수 譯科敎授 1648 -1713	하용夏雄 의과주부 醫科主簿 1669~경종 갑진출	문항文恆 역과동추 譯科同樞 1688~영 조신미출	재경載慶 통덕랑 通德郎 1707~	계백啓百 역과譯科 가선嘉善 (1737-1790)							
				만령萬齡	하신夏信	도연道彦	재유載裕	계온啓溫 계흠啓欽 전주교 순교자 정약용	경연敬連 전주교성 인						
									석문錫聞 전주교성 인 김대건진						

									부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수겸壽謙 장예원 판결사 掌隸院 判決事	2 용龍	인상 仁祥 計士 別堤 계사 별제	1 탁琢	덕량 德亮	기沂	학성 學成									
			2 찬 璨 1595-? 1615광해 7년입격												
			3 옥頊 1597-1658	덕우 德宇 1617-1680	각珒	1 광하 光夏	침沉 (ㄱ메子)	계환 啓桓	집	재성 在誠	기鎬 1808~1860 시인詩人 봉사奉事				
							침沉 출계 광하								
						2 상하 尙夏 1667~1718 工曹參議 공조참의	심深 1704~1744 漢城府左尹 한성부좌윤 五衛都總管 오위도총관 일기 1747식역	1 계근 啓根 당상역관 上譯官 동암(東巖) 일기 1747식역	1 후厚 추중 당상 역관 희 설 (喜 嵩)일기 1773증역	1 재명 在明 1768~1830 당상역관 지중추부사 1786식역	1 일鎔 1807~1876 당상역관 중추원지사 1827증역	1 제승 濟昇 1832~1876 1848증역 적성현감 積城縣監 1831~고종 병자출	본(菜) 신 천 군 수 1866-1944 1880증역		
												2 제창 濟章 1838~ 철 종 임 자 출	隱은 1880증역. 독립협회		
												3 제보 濟普 1835~1858 식 역 역 과 譯科 청정淸正			
												4 제만 濟晩 1838~			
												5 제창 濟昶 1886 인제현감	순枸(循) 독 립 운 동 가 1880	앨리스현 박현영 애인 마타하리 1903 준섭 駿燮 피터현 작가 현다윗 데 이 비 드 현	더 라 양 더 라 현 글 스 글 스
											2 錫석 1800~ 무과(武科) 오위장 五衛將 가덕첨사 加德僉使	濟仁 제인 무과武科 오위장 五衛將 1820~			
										2 在德 재덕 1771~ 엄산(兪山)일기 1789식역	鉀간 내의정 內醫正 1790~ 가선嘉善 동추同樞 1810식의	濟元 제원 생부 (鐸) 가선嘉善 동추同樞 1830~	樞귀 1874~ 1891식역	英燮영섭 1906(8)~	
											탁鐸 석번(石樊) 일기 1831식역	2 濟坤 제곤 1834~	桓환 1878~ 광 무 개 혁 시위대	3 杭 운	1 明燮 명섭
											3제륜 濟倫			1 明燮 명섭	3 熙男 희남

											1855식역			
									3 재신 在新 1805증역,주부 主簿	鉦 옥 찰방 察訪	濟復 제복(부) 합천군수 陝川郡守	정(楨) 오 촌 군 수 鰲川郡守	경섭 景燮 트림벳주자 1913~	
								2 夏圭 하규 1798~ 함흥감목관 칠원 현감						
								4 瑞圭 서규 1815~ 수원 함흥감목 관찰牧官	2 佑輔 우용 1852~ 1867 생원					
									3 鉦 창 1876~	濟舜 제순 1918~				
								3. 煥 영						
								4 희 熾	1 在聞 재문	鏡 경	濟豐 제풍 1885증역 1886주학			
									2 在聞 재은	鎰 곤 무과 武科 1825~	1 濟益 제익	櫛 현	영섭永燮 1906 황도학회 이사	龍奎 용규
											2 제석 濟奭 1886 주학			
								2. 啓 桓 계환						
								3 啓禎 계정 판중추 判中樞 겸 도총관 都摠管	1 在鏡 재경 역과정 譯科正	綱 강	濟萬 제만	재采 관료 사학자	公濂 공렴	堪 감
									2 재명 在明 중국어 호조판서 戶曹判書 1786~ 헌종 신축	2 鍵 건 1812~	濟元 제원	櫛 익 1880 고종 경진(庚辰) 생	白廉백렴 생부 모(楨)	
									6 鉞 필 1827~ 중국어	1 濟遠 제원 1848 수신사				
									3 在林 재림 역과정 譯科正 1788~	1. 상 錦 역과첨정 譯科僉正 2 錫 위 연천군수 連川郡守 1821~	3 濟彦 제언	1 櫛 유	2 仁燮 인섭	1 敎承 교승
								3 희 하 熙夏 역과譯科 봉사奉事						
		2 예상 禮祥 통훈 대부 通訓 大夫 레빈사 주부	1 禹珪 우규											
			2 禹錫 우석 진사進士 덕원부사											

		禮賓寺主簿	德原府使 3 禹績 우적 나주목사 羅州牧使	萬元 만원 진사 강릉부사 江陵府使	聖夫 성부 동래부사東萊府使	光夏 광하 진사 감산부사 甲山府使	益重 익중 진사 남양부사 南陽府使								
		3 문상 文祥	우성 禹成 명월만호 明月萬戶	석철 石喆 보성군수 寶城郡守	2熙達희달	1 日陽일양	1 光實광보	1 尙仁상인	1 永老영로	1 順用순용	1 萬辰만진	2 千鶴천학	1 詞善사선	1 勝澤승택	1 洪實홍실
													3 悌善제선	3 丞燦승찬	1 丁浩정호
										2 順薦순언	3 萬生만생	1 天權천권	3 明力명력	1 德俊덕준	
														2 德奎덕규	1 知沅지원
														3 德秀덕수	
														5 銀姬은희	
												3 天祚천조	1 明厚명후	1 德在덕재	1 宗源종원
										3 順吉순길	6 萬根만근	2 千弘천홍	1 政祐정우		
												3 千珽천돌	1 昌勳창훈	1 承協승협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수겸 壽謙 장예원 판결사	4 호虎 부사직	철상 哲祥	1 우일 宇一	덕만 德萬	태심泰心 계자 조선통신사 押物通事 압물통사										
			2 한일 漢一	1 덕문 德文	태규泰奎										
				2 덕명德明	3 태기泰箕										
				3 덕윤德潤 부산훈도 釜山訓導	1 태벽泰壁 전의교수 典醫教授	1 상호商祐	시성時成 만호萬戶	응건膺健 생부時遇 역과판관 譯科判官	1 學然 학연	1 ○○ ○○	1 壬健 임건 생부海運	1 元柱원주	1 哲涉철섭 수철守哲 파출소장 생부호주	1 柄估병길 검사 2 柄在병재 교사	
					2 태익泰翼 조선통신사 堂上官 당상관 首譯수역	1 상정商禎	1 시철時喆	종민琮敏	학명學明	地運지운	成健성건	徹柱철주	병덕炳德	殊娟수연	
									3 學賢 학연	3 嗽運 돈운	1 文健 문건	1 權柱 권주 원택沅澤	1 政應정응 영태榮泰	1 勇相 용상	
							2 시복時復	4 升敏승민	1 學錫학석	1 載運재운	1 善健선건	1 浩柱호주	2 哲涉철섭 수철守哲 파출소장 생부호주	1 柄估병길 검사 2 柄在병재 교사	
					3 태심泰心 출계덕만 조선통신사 押物通事 압물통사										
				4 덕창德昌 절충장군	1 태원泰元 전의직장 典醫直長	1 상록商祿 역과譯科 증참판 贈參判	1 의돈義敦	1 응순膺淳 계공랑 啓功郎	학명學明 사역가선 司譯嘉善	曜運경운 역과주부 譯科主簿	容健용건	1 爽柱석주 병호 병천	炳浩 병호 병천	동훈 東勳	
												8 해천海天			
												9 해문海文	炳權 병권		
											대건大健	영주永柱	병오 炳午	승훈 昇勳	
							2 응조膺祖 역과절충 譯科折衝	윤빈胤斌 사역봉사 司譯奉事	병운秉運		형건亨健	1 홍주鴻柱 주미대사	준용 竣容	진욱 軫旭	
												2 주용	주용	경욱	

												완주完柱	周容		
												3 봉주俵柱	승용 承容	찬옥 燦旭	
						2의온 義溫 역과자원									
					2 상윤商尹 출계태형										
					3 상열商說 활인참봉 活人參奉	1 의순義詢 승록지주 崇祿知樞									
						2 의준義浚	2 응우應祐	1 학영學永	2 경운景運						
				2 태형泰衡 1718~ 증통정대부 贈通政大夫 공조참의 工曹參議	2 상윤商尹 계자 증호조참 戶曹參議 1736~	시석時錫 증호조판서 戶曹判書 1754~	1 한민漢敏 증호조판서 戶曹判書 1782~	1 학주學周 사역원판 司譯院判 官	1 창운昌運 1834~ 승정원지침 崇政院知僉	양건襄健 첨정교수 僉正敎授	彌柱필주 직장直長				
										동건 출계성운					
									2 석운昔運 도지부대신 度支部大臣	태건태健 생父장운 生父正健 통훈대부 通訓大夫	택주宅柱 生父正健 한의사	3 炳奎 병규 육군대위			
									3 명운明運 동대부윤 東萊府尹 1845~	상건尙健 시종원시종 고종 밀사 韓成密使정부 평정관	정주正柱 대한축구 협회회장	1 병구 炳九	승균 丞均		
												2 병무 炳武	석균 錫均		
												5 炳柔 병유	이사벨 라 강 작가,배우, 가수		
											채미采薇 동양화가				
									4 星運성운 1850~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東健동건 生父장운 生父正健 문과장원 文科榜元 비서원승 秘書院承					
								2 학로學魯 승정지주 崇政知樞	정운晶運 첨주翕樞	최남선 六堂 崔南善 문화운동가					
									승운昇運 남포현감 藍浦縣監 1834~						
							2 호민好敏 贈내부협판 內部協辦	학두學斗 계자系子 시종원부 侍從院副 卿	1 백운百運 예식원예식관	完健완건	東株동주				
									2 희운僖運 연극인 철(哲)	종건宗健	완주完柱				
							3 경민敬敏 贈내부협판 內部協辦	1 학규學珪	2 보운普運 주일공서관 이등참서관	진건鎭健 계자系子 소설가, 기자 小說家 記者	화수와壽 소설가 朴 鍾和 子婦				
									3 성운成運	명건命健 오사가매일신 문서올룩파원	동주東柱 가수현인	正一정일			
								2 학표學杓 장원재판소 판사	1 경운敬運 대구전보사장	1 홍건 육군참령 陸軍參領	태주泰柱				
										2 석건 판사, 변호사	漢柱한주 庚壽경수				
										3 정건鼎健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원					
										4 진건鎭健 출系보운					
										5 성건聖健 한의사	호주濤柱 生父응건應健	홍섭弘涉 은정恩正			

										2 철운 鐵運 용궁군수 龍宮郡守								
										3 영운 映運 원수부총장	부건 富健	덕주 德柱	인성 仁聖 응준 應俊					
											윤치오 尹致昨 중추원참서관 (玄松子)							
										1 용건 龍健 고교 교장	장주 章柱	재병 才丙	병혁 炳赫 병옥 炳旭					
									두병 斗丙				병석 炳碩 석진 碩眞					
									병진 丙珍				하운 荷允 하온 荷溫					
									필주 弼柱			정범 政凡 소라						
									흥주 興柱			응서 應瑞	주해 主該, 주아, 주민, 주람					
									완주 完柱			효선 孝善 인선 仁善						
									2 봉건 鳳健 초교 교장		천주 天柱	응기 應基	호진 吳振 은지					
												응철 應哲	은경					
											찬주 贊柱	응빈 應彬 미선 美善	유민 宥愍					
											윤주 潤柱	홍래 烘來 미진 美眞	우진 玠晉					
										영주 永柱								
									4 양운 陽運 한국최초축구 선수, 장예원전사 享禮院典祀	3 구건 龜健 경찰 경위								
										4 인건 麟健 기업 상무	택주 澤柱	지섭 智涉 경혜 京惠						
											옥주 沃柱	진섭 辰涉 지혜 智惠						
											철주 哲柱	기섭 琪涉 정혜 晶惠						
										5 용건 鷹健 초교 교장	순주 淳柱	혜정 惠正						
											호주 濤柱 出系							
										6 준건 駿健 경향신문기자 편집부국장	광주 洸柱	명섭 明涉 요섭 曜涉						
											정주 淨柱 KBS PD 국장, 비서 실장	민지 旻知 초교교사						
											용주 涌柱 회사원	민정 旻淸 플로리스트						
												민섭 旻涉 기관사						
											동리 東梨 초교교사							
											주민 周旻 초교교사							
										7 상건 象健 초교 교감	기주 淇柱	동균 東均 선진 善眞						
											정민 庭旻	다영						
								3 학두 學斗 出系호민 시종원부경 侍從院副卿										
							4순민	학선	성운 成運	2 홍건 洪健	동섭 東燮 경찰총경 警察總警	熙榮 희영						
										3 映健 映健	2 東律 東律	1 華榮 華英	1 在濟 在濟					
			5 덕화 德華 절충 折衝															
			6 덕연 德淵 역과승록 譯科 承祿	태순 泰純 화원 畵員														
		3 오일 悟一 승천포별장 昇天浦別將	덕기 德基 가선 嘉善															
		4 승일 承一	1 지석 祉碩	도문 道文	유방 有邦	명득 明得	익규 益奎	홍묵 弘默	계탁 季鐸	석준 錫俊	봉금 奉金	1 익환 益煥	1 기춘 基春 경영인	1 夏榮 하영 교수				
												3 鍾煥	1 順美					

				2 祺碩 기석	1 震文 진문	1 有郊 유교	1 明云 명운	1 紐學 유학	2 弘仁 홍인	1 榮運 영운	1 泰健 태건	1 元成 원성	중환 1 俊甲 준갑	순미 1 永晩 영만	1 承沅 승원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무 武, 중랑장공파 15세, 수검의 장남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 가선대부
 자는 응문(應文)이다. 1538년(중종中宗 33년)에 태어나시고 1617년(광해光海9년)에 돌아가셨다. 사재감참봉(司宰監參奉),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벼슬을 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부인은 통진오씨(通津吳氏)이다.

현수검의 맏아들인 15세 무(武) 계통에서는 의과(醫科)와 산원(算員)이 많이 나왔다. 玄武의 3남, 몽상(夢祥)의 거의 모든 후손들은 산원(算員)이었지만, 18세기에 醫科로 전환하여 19세기 후반에는 두드러지게 의관직을 차지하였다.

산원(算員) : 호조에 속하는 경비사에서 서울의 경비 지출과 왜인(倭人)의 양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무武(수검의 장남) 계보(系譜)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수검壽謙 장예원 판결사 掌隸院 判決事	1 무武	3 몽상夢祥 가선 동 추 嘉善同樞 1574~	극일克逸 가선嘉善 1607~	진명晉明 등학별제 等學別提 1624~	달원達源 한성판윤 漢城判尹 1641~	제강梯綱 어의 1665~	載鼎재정 용인현령 龍仁縣令 1701~	3 啓淳계순 절충折衝 1738~	重瑞중서 생부 계인啓寅 관상감정 觀象監正 1760~	光宣광선 지추知樞 1796~	行健행건 동지同知 내의內醫 1840~	東完동완 태의원 기수 太醫院 技帥				
								4啓寅계인	2禹瑞우 서	1 光秀광수	2 浩健호건	1 東哲동철	1 宜榮의영	1 基弘기홍	2 再鎬재호	1 泳敦영돈
			위瓚 절충折衝 1598~현 종임인줄	만운萬運 내의절충 內醫折衝 1637~속 종정해줄	서하瑞夏 내의정 內醫 1659~속 종계사줄	기봉起鵬 내의內醫 적성현감 積城縣監 송록지추 崇祿知樞 1684~영조 경오줄	처명處明 내의內醫 청주兪樞 1715~	필채必采 내의內醫 가선嘉善 동주同樞 1746~								
		4 득홍得洪	언瑱 의과봉사 醫科奉事 1618~현 종임인줄	만시萬始 역과교수 譯科教授 1648 -1713	하웅夏雄 의과주부 醫科主簿 1669~경종 갑진줄	문항文恒 역과동주 譯科同樞 1688~영조 신미줄	재경載慶 동덕랑 通德郎 1707~	계백啓百 역과譯科 가선嘉善 1737~								
				만령萬齡	하신夏信	도연道彦	재유載裕	계온啓溫 (계흠啓欽) 천주교 순교자 정약용	경련敬連 천주교 성인							
								석문錫聞 천주교 성인 김대건 신부								

무-몽상 계系

제강 梯綱, 20세, 어의(御醫), 자헌대부(資憲), 지추(知樞)

1665년(현종顯宗6년) 11월 2일 출생하고 1735년(영조11년)에 돌아가셨다. 자는 순보(順甫), 어의(御醫)로서 영조 6년 왕대비의 병환이 위급할 때 권성징(權聖徵)과 입시하여 증후를 진찰하였다. 금천현감(衿川縣監)을 지냈다. 금천은 시흥의 옛 지명이다. 자헌대부(資憲), 지추(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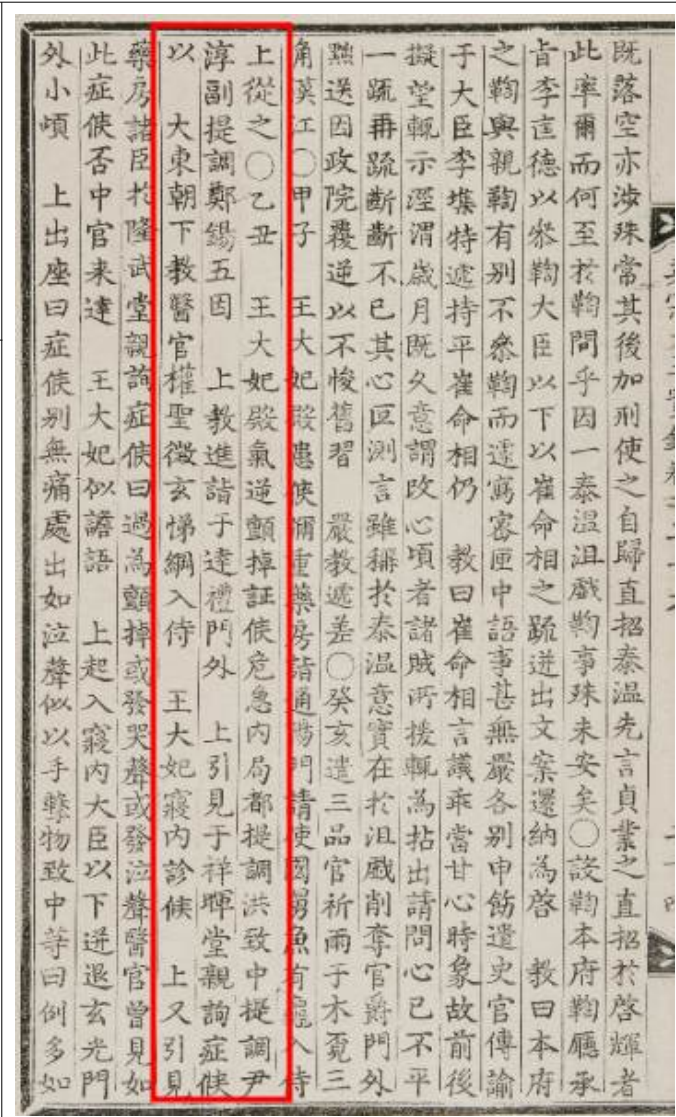
樞)의 품계를 받았다. 족보에 의하면 부친 달원(達源)은 통훈대부 한성판윤을 지냈고, 동생 신강(信綱)은 왕의 약을 조제하던 내의원정이었다.

- * 어의(御醫) : 역사 궁궐 내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 * 지추(知樞) : 지중추(知中樞)는 중추부(中樞府)에 속한 정이품 무관(武官) 벼슬이다. 중추부(中樞府)는 현직(現職)이 없는 당상관들을 속하게 하여 대우하던 관아이다.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 영조 6년 경술 > 6월 28일 > 영조 6년 경술(1730) 6월 28일(을축) 06-06-28[01] 왕대비전의 병환이 위급함에 종묘와 사직단에 대신을 보내 기도를 거행케 하다

왕대비전이 구역증(嘔逆症)이 나고 몸을 떨면서 증후(症候)가 위급하였다. 내국 도제조(內局都提調) 홍치중(洪致中), 제조(提調) 윤순(尹淳), 부제조(副提調) 정석오(鄭錫五)가 임금의 분부로 인하여 달례문(達禮門) 밖으로 나아가니, 임금이 상휘당(祥暉堂)에서 인견(引見)하고 증후를 물었다.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하교로써 의관(醫官) 권성징(權聖徵), **현제강(玄悌綱)**이 왕대비전의 침실(寢室)에 입시(入侍)하여 증후를 진찰하였다.

○乙丑/王大妃殿，氣逆顫掉，証候危急內局都提調洪致中、提調尹淳、副提調鄭錫五，因上教，進詣于達禮門外，上引見于祥暉堂，親詢症候。以大東朝下教，醫官權聖徵、**玄悌綱**入侍王大妃寢內，診候。



東完 동완, 26세, 정삼품 통정대부(通政大夫) 태의원(太醫院) 기수(技帥)
1895년에 태의원(太醫院)에 들어가 제약부의 지배인이 되면서 1907년까지 계속하였다.

* 태의원(太醫院) : 조선 시대에 둔 삼의원(三醫院)의 하나. 궁중의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서기1443년(세종 25년)에 내약방(內藥房)을 고친 것으로, 서기1895년(고종 32년)에 전의사로 고쳤다.

[의과] 고종(高宗) 22년(1885) 을유(乙酉) 증광시(增廣試) ○과(○科) ○○위(7/46)

[출전]

『의과방목(醫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 26-19])

[부(父)]

- 성명 : [현행건\(玄行健\)](#)[醫]
- 관직 : [정\(正\)](#)
- 관직 : [내의\(內醫\)](#)
- 전공 : 의과(醫科)

[조부(祖父)]

- 성명 : [현광선\(玄光宣\)](#)[醫]
- 관직 : [내의\(內醫\)](#)
- 관직 : [지추\(知樞\)](#)
- 전공 : 의과(醫科)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중서\(玄重瑞\)](#)[醫]
- 관직 : [관상감정\(觀象監正\)](#)
- 전공 : 음양과(陰陽科)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이상복\(李尙復\)](#)[醫]
- 관직 : [내의\(內醫\)](#)
- 관직 : [오위장\(五衛將\)](#)
- 관직 : [첨지\(僉知\)](#)
- 전공 : 의과(醫科)
- 본관 : [강음\(江陰\)](#)

[처부(妻父)]

- 성명 : [최우식\(崔祐植\)](#)
- 관직 : [내의원정\(內醫院正\)](#)
- 전공 : 의과(醫科)
- 본관 : [주계\(朱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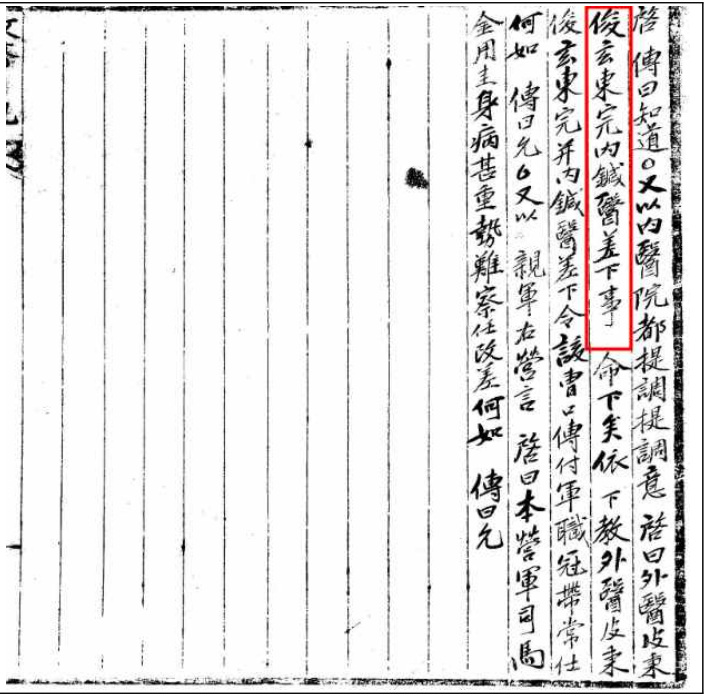
- 자(字) : 복여(福汝)
- 생년 : 무진(戊辰) 1868년 (고종 5)
- 합격연령 : 18세
- 본민본관 : 천녕(川寧)
- 거주지 : 미상(未詳)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2년](#) [을유](#) > [12월 4일](#)

[고종 22년](#) [을유\(1885\)](#) 12월 4일(무진) 맑음

22-12-04[14] 내침의에 차하된 외의 피병준 등을 군직에 붙여 사진하게 할 것을 청하는 내의원 도제조 등의 계

○ 또 내의원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외의(外醫) 피병준(皮秉俊)·[현동완\(玄東完\)](#)을 내침의(內鍼醫)로 차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하고대로 외의 피병준과 [현동완](#)을 모두 내침의로 차하하고,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군직을 주어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又以內醫院都提調·提調意啓曰, 外醫皮秉俊·玄東完, 內鍼醫差下事, 命下矣。 依下教, 外醫皮秉俊·玄東完, 竝內鍼醫差下, 令該曹口傳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差下 차하: 벼슬을 시킴)	
	

玄武의 4남 득홍(得洪)의 후손들은 17세기를 통해서 醫科와 의관을 전문으로 하였으나 18세기초에는 변화가 일어나 18세기 후반에는 譯科와 雲科를 하였다.

- * 역과(譯科) : 조선 시대에 역관을 뽑기 위한 과거. 초시는 사역원에서, 복시는 예조와 사역원에서 주재하였는데, 한학·몽학·왜학·여진학의 네 분과가 있었다. 오늘날의 외무고시이다
- * 운과(雲科) : 조선 시대에 천문·재상(災祥)·역일(曆日)·추택(推擇)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무-득홍-위 계系
필채 必采, 22세, 어의(御醫)

1746년(영조22)에 태어나시고 1809년(순조9)에 돌아가셨다. 내의(內醫‘조선시대 내의원의 의사’)로서 정조 24년에 임금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강명길(康命吉)등과 진찰하고, 약원에서 처방하였다.

[의과] 영조(英祖) 50년(1774)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 1등(一等) 1[壯元]위(1/9)	[출전] 『의과방목(醫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 26-19])

·자(字)	성빈(聖彬)
·생년	병인(丙寅) 1746년 (영조 22)
·합격연령	29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처명\(玄處明\)](#)[[謚](#)]
- 관직 : [내의\(內醫\)](#)
- 관직 : [첨지\(僉知\)](#)
- 전공 : [의과\(醫科\)](#)

【조부(祖父)】

- 성명 : [현기봉\(玄起鳳\)](#)[[謚](#)]
- 품계 : [숭록대부\(崇祿大夫\)](#)
- 관직 : [내의\(內醫\)](#)
- 관직 : [지추\(知樞\)](#)
- 관직 : [수익\(自醫\)](#)
- 관직 : [적성현감\(積城縣監\)](#)
- 전공 : [의과\(醫科\)](#)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서하\(玄瑞夏\)](#)[[謚](#)]
- 관직 : [내의원정\(內醫院正\)](#)
- 전공 : [의과\(醫科\)](#)

【외조부(外祖父)】

- 성명 : [김경벽\(金景璧\)](#)[[諱](#)]
- 관직 : [사역원주부\(司譯院主簿\)](#)
- 전공 : [역과\(譯科\)](#)
- 본관 : [고성\(固城\)](#)

【처부(妻父)】

- 성명 : [최정욱\(崔廷郁\)](#)
- 본관 : [청주\(淸州\)](#)

【처조부(妻祖父)】

- 성명 : [최수원\(崔壽遠\)](#)
- 관직 : [관상감직장\(觀象監直長\)](#)

【처증조부(妻曾祖父)】

- 성명 : [최대제\(崔岱齊\)](#)[[諱](#)]
- 관직 : [사역원판관\(司譯院判官\)](#)
- 전공 : [역과\(譯科\)](#)

【처외조부(妻外祖父)】

- 성명 : [이창서\(李昌瑞\)](#)[[謚](#)]
- 관직 : [산학훈도\(筭學訓導\)](#)
- 전공 : [산학\(筭學\)](#)
- 본관 : [정음\(井邑\)](#)

정조 24년 경신(1800) 6월 21일(임신)

24-06-21[01] 약원의 제신과 대신·각신을 접견하고 진찰을 받다

상이 이르기를,

"높이 부어올라 당기고 아파 여전히 고통스럽고, 징후로 말하면 한열(寒熱)이 일정치 않은 것 말고도 정신이 흐려져 꿈을 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고, 강명길(康命吉)·유광익(柳光翼)·**헌필채(玄必采)**·박전(朴堧)에게 증세를 진찰할 것을 명하였다. 강명길이 아뢰기를,

"맥의 도수는 일정하여 기운이 부족한 징후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빠르고 센 것 같으나 특별한 종기의 열은 없습니다."

하고, 유광익은 아뢰기를,

"좌우맥 삼부(三部)는 다 고루 뛰고 있긴 합니다만, 신은 그전에 진찰한 날씨가 약간 오래되었는데 왼쪽 간맥(肝脈)은 전일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하고, **헌필채**는 아뢰기를,

"맥박은 조금 큰 것 같습니다만 좌우 삼부가 다 고르게 뛴니다."

하고, 박전은 아뢰기를,

"왼쪽 맥은 고르게 뛰고 오른쪽 맥은 가라앉아 빠르게 뛰는 징후가 약간 있으나 열은 대단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열 증세는 이들의 말이 그럴 듯하다. 대체로 한열(寒熱)이 번갈아 일어날 때 가슴의 기운이 올라와 식히기 때문에 열은 조금 줄어든 것 같다." 하였다.

○壬申/上曰: "浮高牽痛則一樣作苦, 而症候則寒熱之外, 神氣有時昏沈, 不辨夢覺矣。" 命康命吉、柳光翼、**玄必采**、朴堧診候。命吉曰: "脈候度數則均, 而亦無不足之候。雖似浮洪, 而亦無腫熱之著見者矣。" 光翼曰: "左右脈三部, 俱爲均適, 而臣則前此診候稍久, 左邊肝脈, 比前日似稍大矣。" **必采**曰: "脈候似稍大, 而左右三部均適矣。" 堧曰: "左脈則調均, 右脈則乍有沈數之候, 而熱意則不至大段矣。" 上曰: "熱候則渠輩之言似然。蓋寒熱交攻之時,



무-득홍-언 계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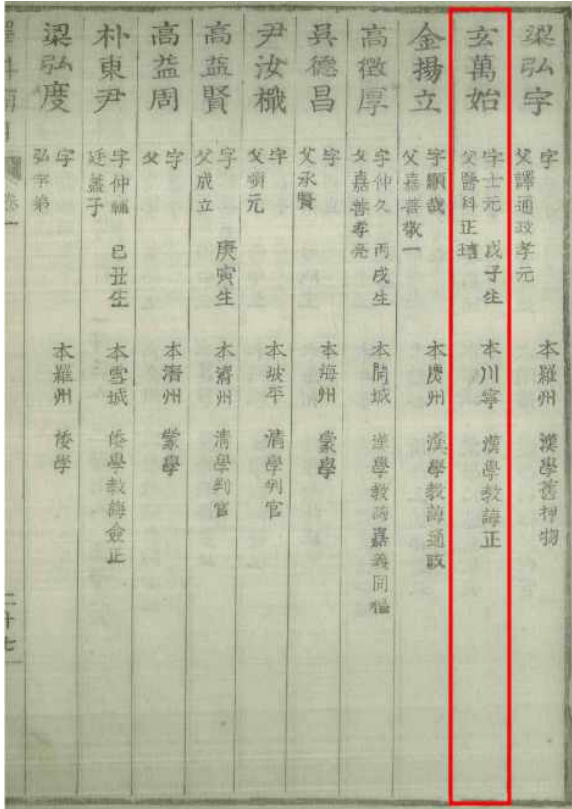
만시 萬始, 18세, 개시역관(開市譯官)

자(字)는 사원(士元)이다. 1648년(인조 26)에 태어나시고 1713년(숙종 39)에 돌아가셨다. 武(15세)의 증손(曾孫)으로 역과교수(譯科敎授)관직에 있었으며 공조참의 벼슬을 추증(追贈)받았다.

1698년(숙종 24년)에 中江 개시역관(開市譯官)으로 쌀값을 5냥 더 올려주어야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하여 조정에서 인준을 받았다.

* 중강(中江) : 중강군(中江郡)은 압록강 중류 지역 자강도 북부에 있는 군이다. 세종대왕 때에 사군 중 여연군과 우예군이 설치된 국방상 요지였다.

* 개시역관(開市譯官) : 중국과 조공(朝貢)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인들과의 흥정이 필수인데, 이때 통역을 담당하던 역관을 말한다

[역과] 현종(顯宗) 10년(166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1위(4/12)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사원(士元) • 생년 무자(戊子) 1648년 (인조 26) • 합격연령 22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연(玄筵)[醫] • 관직 : 전의감봉사(典醫監奉事) • 관직 : 전의감정(典醫監正) • 전공 : 의과(醫科) 【조부(祖父)】 • 성명 : 현득홍(玄得洪) • 관직 : 제용감봉사(濟用監奉事)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무(玄武) • 관직 : 사재감참봉(司宰監參奉)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이익무(李益茂) • 본관 : 전주(全州) 【처부(妻父)】 • 성명 : 정승명(丁承明) • 관직 : 첨절제사(僉節制使) • 본관 : 예산(禮山) 【안향(膺行)】 • 제(弟) : 현만규(玄萬奎) • 제(弟) : 현만령(玄萬齡)[譯]	【이력사항】 • 선발인원 12명 [一等3・二等3・三等6] • 전력 교회(秋誨) • 관직 정(正) • 전공 한학(漢學) 

개시 역관(開市譯官) 현만시(玄萬始)가 들어와, 또 5냥을 더 올려주어야 비로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말하니,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약방(藥房)의 입진(入診)으로 인해 청대(請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무릇 매매(買賣)는 마땅히 소원에 따라 값을 결정하여야 하며, 억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번 개시(開市)는 청(淸)나라 황제(皇帝)가 구휼해 주는 뜻에서 나왔으니, 저들의 조종에 일임할 수는 없습니다. 중강(中江)에 자문(咨文)을 지어 보내되, ‘너희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자문을 황제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이와 같이 해도 저들이 만약 끝내 듣지 않으면 비록 결심하고 들여보내더라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도제조(都提調)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시기를 타 이문을 노리는 것은 바로 장사치의 상정이니, 비록 5냥을 더 올려 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기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문(咨文)을 만약 시랑(侍郎)으로 하여금 전달하여 아뢰게 하면, 그도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우리에게 협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값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속히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조(提調) 이유(李濡)는 말하기를, “다시 5냥으로 타결하고, 또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게 하여 조정(朝廷)에서는 원래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을 보여주고, 자문(咨文)을 보내는 일에 이르러서는 아직 앞으로의 사정을 보아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아마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유가 또 칙사(勅使)가 병이 나면 문위관(問慰官)을 보내는 전례에 의하여, 청(淸)나라 차사(差使)에게 문후관(問候官)을 특별히 보내고, 문방(文房) 따위의 물건을 보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예조의 낭관(郎官)을 차

○乙卯/開市譯官玄萬始入來，又言添定五兩，始可成事，右議政崔錫鼎，因藥房入診請對，白上曰：“凡買賣，只當從願折價，不可抑勒。況今開市，出於淸皇軫恤之意，不可一任彼輩之操縱。構送咨文於中江，以爲爾若不從，則吾當送此咨文於帝家云云，如是而彼若終不聽從，雖決意入送，亦無所妨。”都提調南九萬曰：“乘時射利，乃商賈之恒情，雖增定五兩，亦難必其順成。且咨文若使侍郎轉奏，則彼必助其人而不助我。事已至此，無論價之多少，斯速完了爲宜。”提調李濡曰：“更以五兩了當，而亦令譯舌相通，以示朝家元不與知之意，至於送咨事，姑觀前頭事情而處之，恐得宜。”上可之。濡又請依勅使有疾，送問慰官例，特送問候官於淸差，贈遺文房等物，上命差遣禮曹郎官。

출(差出)하여 보내도록 명하였다.
 【원전】 39 집 485 면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문항 文恒, 20세, 만시(萬始)의 손자,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가선(嘉善)동추(同樞)
 1688년(숙종14)에 태어나시고 1751년에 돌아가셨다. 숙종 때인 1711년 몽학에 합격하셨다.
 蒙學 訓長으로 淸學上通事 가선(嘉善) 동추(同樞)였다. 부친은 의과주부(醫科主簿) 하웅(夏雄)
 이다. 어학과 외교서를 편찬했다. 1748년에 청어 학습서로 <동문유해(同文類解)>를 발행하였
 다. 책 끝에 副司直 安命說이 政文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 조선 시대 역관(譯官) 벼슬의 하나로 청학(淸學) 곧 만주어를 담당하
 는 통사(通事) 중 선임인 자를 말한다.

「淸學은 物名이 말로만 전하는 작은 책자가 있었다. 이것을 쓰는데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던
 것이 병으로 백년을 지냈다. 玄文恒이 이에 유의하여 《淸文鑑》, 《大清全書》, 《同文廣集》
 등 책을 얻어 이를 바로 잡는데 힘쓰며 6년을 걸려서 만들었다. 위로는 천문, 지리, 인사 등
 에서부터 아래로는 벌레, 물고기, 초목, 향간의 얘기까지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이 책을 익
 히면 淸人을 대하여 물 흐르듯 말할 수 있다. 提學.李周鎭이 經筵에서 간행하여 과거시험에

사용할 것을 청하니 강습하여 날마다 이룬 것은 이 책의 공로가 크다. 몽학의 修整官 金振夏와 書寫官 崔重呂가 이 일을 끝맺었다. 玄漢相이 추가로 교정하여 정수를 얻은 것은 모두 가상하다.]

[역과] 숙종(肅宗) 37년(171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8위(16/18)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상고6024-98])

[이력사항]

- 선발인원 18명 [一等3·二等5·三等10]
- 품계 가선대부(嘉善大夫)
- 관직 상통사(上通事)
- 관직 동지(同知)
- 전공 청학(淸學)

梁弘度	朴東尹	高益周	高益賢	尹汝機	具德昌	高徵厚	金揚立	玄萬始	梁弘宇
弘宇弟	字仲輔 延益子	父字	父字 成立	父字 頌元	父字 承賢	父字 嘉善 季亮	父字 顯哉 敬一	父字 士元 正璿	父字 譯通 政孝元
本羅州 後學	本雪城 修學教誨金正	本淸州 蒙學	本淸州 淸學判官	本坡平 淸學判官	本海州 蒙學	本開城 漢學教誨嘉義同福	本慶州 漢學教誨通政	本川寧 漢學教誨正	本羅州 漢學教誨物

- 자(字) 여상(汝常)
- 생년 무진(戊辰) 1688년 (숙종 14)
- 합격연령 24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하웅(玄夏雄)[醫]
- 관직 : 주부(主簿)
- 관직 : 직장(直長)
- 전공 : 의과(醫科)

[조부(祖父)]

- 성명 : 현만시(玄萬始)[譯]
- 관직 : 교회(敎誨)
- 전공 : 한학(漢學)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玄○○)

[외조부(外祖父)]

- 성명 : 고징후(高徵厚)[譯]
- 관직 : 교회(敎誨)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개성(開城)

[처부(妻父)]

- 성명 : 최진하(崔鎭夏)
- 본관 : 식녕(朔寧)

[안향(隱行)]

- 제(弟) : 현문표(玄文豹)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1년 을묘 > 1월 3일 >

영조 11년 을묘(1735) 1월 3일(갑술) 맑음

11-01-03[09] 진주사 등을 인견하여 사행의 결과 보고를 듣고, 서북 지방의 방비를 강화하는 일, 역관의 청탁 문제, 관서의 환곡을 정봉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명균이 아뢰기를,

“몽학(蒙學) 역관이나 청학(淸學) 역관은 더욱 모양새를 이루지 못합니다. 청학 역관 현문항(玄文恒)은 청어(淸語)에 능통하여 이번 사행 때에 힘

命均曰，蒙淸學譯官，尤不成樣。而淸譯玄文恒，曉解淸語，今番使行時，亦多有宣力之事。如此之人，宜施加資之典，以爲激勸教誨

쓴 일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가자하는 은전을 베풀어서 격려가 되고 교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박문수가 아뢰기를,

“**현문항**이 청어에 능통하므로 대신을 수행하는 여러 역관의 일원으로서 가는 곳마다 응대하니, 청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말을 듣고서 모두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회동관(會同館)에 머물 때에 사신의 업무를 행하면서 청어(淸語)로 쓴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문항**이 살펴보고 답을 하면 대양 칭찬하고 탄복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가 사행을 빛나게 한 것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사행의 여러 역관은 모두 청어와 한어(漢語)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현문항**은 청어를 막힘없이 말하니, 신은 청어를 알지는 못하지만 듣고서 또한 통쾌하였습니다. 당초에 장계를 올릴 때에 **현문항**이 사행의 업무에서 공로가 있었음을 아뢰려고 하니, 서장관은 ‘**현문항**의 청어에 대해 논상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사행 때에 역관에게 상을 주기를 청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문항**의 일도 만약 이런 일과 똑같이 취급된다면 의심을 면하지 못할 듯하니, 장계의 내용에 우선 거론하지 말고 조정에 돌아가서 어전에 나아갈 때에 실상을 우러러 아뢰면, 이것이 다른 역관들을 격려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사(上使)가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들어 보니 상통사(上通事)는 연경에 가는 일이 매우 빈번하지만 당상관은 연경에 가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모두 당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청학(淸學) 상통사는 당상에 올라도 본래의 임무를 맡는다고 하니,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통사에 대한 일은 후일에 의논하여 처리하고, 가자하는 일은 그리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之地，何如？文秀曰，**玄文恒**之通解淸語，大臣諸譯，到處酬酢。北人叢集聞之，莫不驚異，及夫留館時爲使事，多以淸書往復，而見而答之者，每有稱歎之言，其爲生光，誠不少。行中諸譯，皆不成淸·漢語，而**文恒**之淸語，則發說無礙，臣雖不知，聞亦洞快。當初狀啓時，欲以**文恒**有勞於使事仰陳。而書狀官以爲，**文恒**之淸語，不可無論賞之道，而近來使行時，請賞譯官，未必爲而爲之者多。**文恒**事，若同歸於此，則恐未免疑訝，狀啓中姑勿舉論，還朝登對時，仰達實狀，則此爲激勸他譯之道云。故上使之言如此矣。蓋聞上通事，則赴燕甚數，堂上官則赴燕甚遠，故皆不願堂上。且聞淸學上通事，雖陞堂上，亦帶本任云，依此爲之則似好矣。上曰，通事事，後日議處，加資事，依爲之。出舉條

고전번역서 > 북경록 > 북경록 단	
중국과 우리나라의 풍속과 기상이 현격히 다를 수 있다. 꾸짖어 욕할 때도 절대로 추한 말은 하지 않는다. <u>'뭐하는 놈이야[甚麼東西]</u>' 같은 것이 보통 꾸짖는 말이고, <u>'꼴갈장은 놈[八不樣東西]</u>' 정도가 욕설이며, <u>'더러운 새끼[王八滓子]</u>' 같은 것은 입에 담은 최고의 욕이다. 또한 이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귀한 사람은 애초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주-D089] <u>더러운 새끼[王八滓子]</u> : 1748년 현문항(玄文恒)이 편찬한 만주어 어휘집인 《동문유해(同文類解)》에는 “계집 폭는 놈의 새”로 되어 있다. 원문에는 각 글자 아래에 중국음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王[글자와 같음] 八[위와 같음] 滓[중국어 자(zǐ)] 子[중국어 즈(zǐ)]’

계백 啓百, 22세, (1737년~ 1790년), 청학 역관, 청 황제 알현

1777년(정조 2년) 청학 역관으로 심양(瀋陽)의 問安 正使 李激(이은)을 따라서 심양에 갔다가 청의 황제 건륭제를 알현하고, 청어로 화답하여 흡족한 반응을 얻었다. 그때 사절들은 황제의 친필까지 받아 귀국하였다고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역과] 영조(英祖) 47년(177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1위(9/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성오(成五) · 생년 정사(丁巳) 1737년 (영조 13) · 함격연령 35세 · 본인본관 여주(驪州) · 거주지 미상(未詳)	[미역사항] · 선발연월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 품계 가선대부(嘉善大夫) · 품계 절충장군(折衝將軍) · 관직 신계아(新遞兒) · 전공 청학(淸學)

【부(父)】

- 성명 : **헌재경(玄載慶)**
- 품계 : **통덕랑(通德郎)**

【조부(祖父)】

- 성명 : **현문항(玄文恒)** [諱]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하옹(玄夏擁)** [諱]

【외조부(外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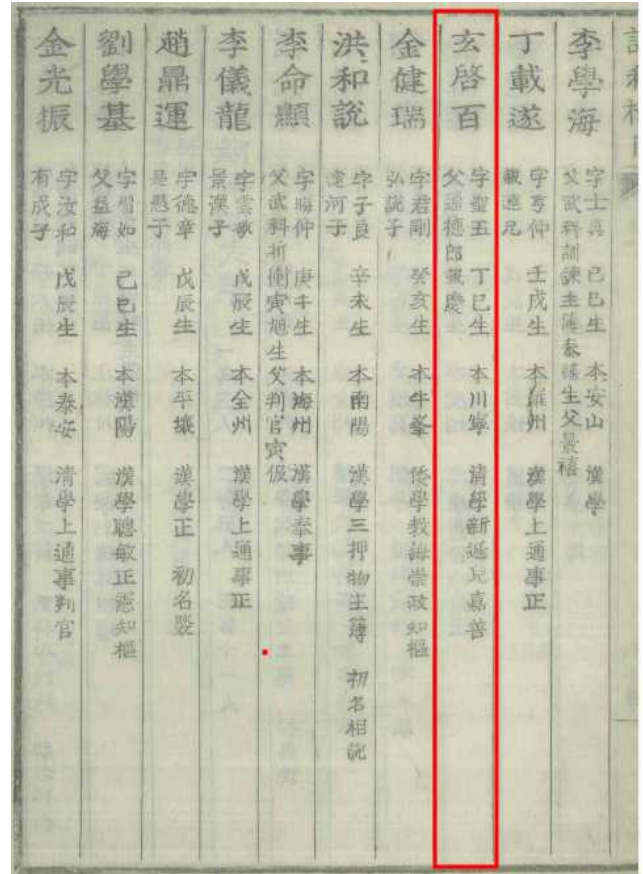
- 성명 : **주태흥(周泰興)**
- 본관 : **상주(尙州)**

【처부(妻父)】

- 성명 : **최도유(崔道裕)** [諱]
- 관직 : **정(正)**
- 관직 : **계사(計士)**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주계(朱溪)**

【안향(膺行)】

- 형(兄) : **현계오(玄啓五)**



신역 조선왕조실록 > 신역 정조실록 > 정조 2년 무술 > 9월 11일 > 최종정보

정조 2년 무술(1778) 9월 11일(정유)

02-09-11[05] 심양 문안 정사 이은이 급히 장계하다

황제가 하문하기를 '너희들 중에 만주어(滿洲語)를 잘하는 자가 있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청학 역관(淸學譯官) **현계백(玄啓百)**에게 나아가 아뢰게 하기를 '어제는 세상에 없는 황상의 특별한 은전을 입어 친필(親筆)을 이미 본국에 내려 주셨고, 상전(賞典)이 수행원들에게까지 두루 미쳤습니다. 저희 배신(陪臣)들은 돌아가 국왕에게 아뢰고 마땅히 온 나라의 신민들과 함께 황상의 은덕에 감격할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또 하문하기를 '그대는 만주어를 잘하는구나. 그대의 사신도 만주어를 할 수 있는가?' 하니, **현계백**이 대답하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또 하문하기를 '한어(漢語)는 할 수 있는가?' 하니, **현계백**이 대답하기를 '한어 역시 하지 못합니다.' 하니, 황제가 웃고는 앞서 떠났습니다. 신들은 마침내 물러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皇帝問：‘爾們中有能(滿州)語者乎？’臣等使淸學譯官**玄啓百**進告曰：‘昨蒙皇上曠異之典，親筆既下於本國，賞典遍及於從人。陪臣等歸奏國王，當與一國臣民，感戴皇恩矣。’皇帝點頭而含笑。又問曰：‘汝善爲(滿州)語。汝之使臣，亦能爲皇語乎？’**啓百**對曰：‘不能矣。’皇帝又問曰：‘漢語則能爲之乎？’**啓百**對曰：‘亦不能矣。’皇帝笑而前發。臣等遂退歸館次，

首譯傳言於臣等曰今此皇筆之賜乃是特異非常之舉本國謝恩之節不可
 遲滯以此意傳於使臣使之歸奏臣等及負譯等處亦皆以次頒賞而此則一
 依甲戌前例從人十五名依例賞賜之外驛卒及刷馬驅人凡人共數目禮部
 問於任譯輩摠為一百三十九名亦依從人例各給賞銀五兩而并為招入於
 闕庭一一面授此則前所未有之事矣禮部之議又以為今此皇筆賚去事體
 甚重自大清門至館次使帽帶正官奉持而來則彼人騎馬者之過於路者皆
 下馬恭迎至二十九日禮部知委以從人之并蒙賞賚事關特恩使臣率正官
 曉頭來待闕下祇行叩謝之禮云故臣等一齊進待矣皇帝以從駕軍兵試射
 事將出臨於大政殿禮部又以路旁祇迎兼行謝恩之意為言故臣等列坐於
 文德坊前路左矣日出後皇帝乘小輿至臣等進跪與前間不容尺餘皇帝問
 僮們中有能滿州語者乎臣等使清學譯官玄啓百進告曰昨蒙皇上曠異之
 典親筆既下於本國賞典遍及於從人陪臣等歸奏國王當與一國臣民咸戴
 皇恩矣皇帝點頭而含笑又問曰汝善為滿州語汝之使臣亦能為滿語乎啓
 百對曰不能矣皇帝又問曰漢語則能為之乎啓百對曰亦不能矣皇帝笑而
 前發臣等遂退歸館次方物則皇帝入城翌日自禮部知委使之未納故使任

일성록 > 정조 > 정조 10년 병오 > 8월 5일 > 정조 10년 병오(1786) 8월 5일(을사)

10-08-05[09] 사역원이 칙사를 맞이할 때의 어전 통사(御前通事) 실차(實差)와 예차(預差)의 망통(望筒)으로 아뢰었다.

○ 실차 3망(望)은 부사직 이시수(李時秀), 지사 이담(李湛), 부사직 **현계백(玄啓百)**이고, 예차 3망은 예조 참의 서정수(徐鼎修), 부사직 홍명복(洪命福)·윤춘함(尹春咸)이고, 인례 통사(引禮通事) 2망은 전주부(主簿) 변호(邊鎬), 전 첨정(僉正) 장익상(張翼相)이다.

계온 啓溫, 22세, 다른 이름 계흠(啓欽), 천주교 순교자

현무(玄武)의 후손 중 22세 현계온(啓溫 또는 계흠啓欽)은 1801년 신유사옥 때 천주교회의 지도자로서 순교했다. 세례명은 플로로이다. 1762년에 태어나 1801년 신유사옥 때 천주교회의 지도자로서 순교했다. 천주교회의 회장인 현계흠은 황사영 사건 발생 후 옥에 갇혔다. 처음에 지방으로 피신하였으나, 그의 도피로 온 일가친척이 연루되어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므로 자수했다. 피고들은 심한 고문을 당했으나 배반하지 않고 사형판결을 받았다. 이때 황사영은 27세, 현계흠은 39세였다. 현계흠은 1797년 8월 아우 현계탁이 살던 동래(東來)에 갔다가 영국 배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에 성호를 그려 기독교인임을 표시하고 오른 적이 있다고 한다. 약재

를 공급 전달하는 업무외에 교회와 관련된 모종의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참조). 조선 교회 총회장으로 1846년 새남터에서 순교한 현석문(1799~1839) 가를로와 성녀 현경련(1794~1839)이 현계온의 자녀이다.

조선왕조실록 > 정조실록 > 정조 15년 신해 > 11월 11일 >
정조 15년 신해(1791) 11월 11일(임오) 15-11-11[04] 형조가 체포한 사학 죄인들을 감화시켜 회개하도록 하였다고 아뢰다
형조가 아뢰기를,
"체포한 사학 죄인(邪學罪人) 정의혁(鄭義赫)·정인혁(鄭麟赫)·최인길(崔仁吉)·최인성(崔仁成)·손경윤(孫景允)·**현계온(玄啓溫)**·허속(許涑)·김계환(金啓煥)·김덕유(金德愈)·최필제(崔必齊)·최인철(崔仁喆) 등 11명을 혹 형조의 뜰에서 깨우쳐 감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그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간곡히 깨우쳐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刑曹啓言: "捕得邪學罪人鄭義赫、鄭麟赫、崔仁吉、崔仁成、孫景允、**玄啓溫**、許涑、金啓煥、金德愈、崔必悌、崔仁喆等十一名, 或於曹庭曉諭感化, 或令渠家懇勸回悟。



罪狀言果好矣渠之聯目舉足不以龍斷為恥者實所切惡而不堪正視然渠輩何足責乎由後而雖有其言之可取由前而貽笑之罪不可仍置獻納宋翼孝罷職原疏還給同堂之於同氣特五十步百步除非大義滅親之事豈或遂議越嫌破格乎疏中有回示後當律及無惜一人之誅等語雖緣倥偬未及省看之致不諱於代房之也奈難免異狀之失當該承旨遽差承旨即東都從兄李東顯也○刑曹啓言捕得邪學罪人鄭義赫鄭麟赫崔仁吉崔仁成孫景允玄啓溫許涑金啓煥金德愈崔必悌崔仁喆等十一名或於曹庭曉諭感化或令渠家懇勸回悟教中人等誣惑者必欲掃蕩窩窟者一則欲人其人一則寓化民成俗之意大抵中人輩非兩班非常人居於兩間最是難化之物卿等知此意各別查究無或一人倖漏一人誤羅要之皆期於革面圖新則卿等可謂效一日之責仍命權日身崔必恭等處曉諭義理使之自新○癸未修撰尹光普上疏以明正學為闢邪說之本又請弘文館所藏諸書燒之通衢批曰首陳事當體念次陳私文館所藏西洋諸書燒之通衢事爾言甚是何必遠出通衢即令館中燒火○刑曹又以權日身崔必恭等勸諭歸正啓教曰聖訓不言教不倦乎朝家之所願不但在學孔子卿等職在士師亦不以願學契臯陶為

신유사옥(辛酉史獄) : 조선 후기의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1801년(순조 1년)에 일어났으며, 신유박해(辛酉迫害)라고도 한다. 16세기경부터 전래된 천주교는 인간 평등 · 내세 사상 · 제사 무시 등으로 인해 정부의 탄압을 심하게 받았다.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집권파인 노론은 반대파인 소론과 남인 중 천주교 신자가 많다는 대대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했다. 이로 인해 이승훈 · 이가환 · 정약용 형제 등 많은 실학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당했다. 또 천주교 신자 100여 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되었다. 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대파를 확실히 제거했다.
황사영 백서 : 신유박해 때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굽는 산중으로 피신하여 토굴 속에서 황사영이 작성한 밀서이다. 여기에는 베이징 주교에게 조선 천주교 박해의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밀서가 발각되어 황사영은 사형에 처해지고 천주교 박해도 한층 가혹해졌다.

경련 敬連, 23세, 천주교 성인, 계온(계흠)의 딸, 세례명 베네딕타(Benedicta)

1794년에 태어났다.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명은 베네딕타(Benedicta)이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현계흠(계온) 바오로의 딸이며, 같은 때 순교한 최창현 요한의 며느리이며,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한 《기해일기》의 주저자 현석문 카롤로의 누나이다.

어릴 때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1811년에 순교자 최창현 요한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샅바느질로 생계를 이으며 평온한 삶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또한 사람들의 성화와 문맹의 예비 신자를 가르치기, 냉담교우를 격려하기,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병자들을 돌보기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한 이교도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등에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선교사들이 방문한 동안에,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불러들여 성사를 보도록 해주었다.

1839년 기해년의 박해 초기에, 교리 선생이 된 경련은 박해를 피해 숨었지만, 6 7월 경에 체포되었다. 관리들은 경련이 선교사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던 현석문의 누나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숨은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더 가혹하게 그녀를 고문했다. 그녀는 여덟 차례 심문과 두 차례의 주뢰형 그리고 300 여대의 장형을 받았다. 형리들은 선교사들을 체포해서 포상을 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더 혹독하게 그녀를 고문했다. 그러나 경련의 강한 의지로 인해서, 그들의 탐욕적인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그녀는 형조로 압송된 후에, 다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격심하게 매질을 당했다. 그녀의 온몸에 상처가 깊어서 피와 고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또한 그녀는 감옥에서 콜레라에 걸려 앓았다.

경련은 동생 현석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처형 전에 수 시간을 단잠에 빠져 있었다. 1839년 12월 29일에 그녀는 서소문 밖의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되어 행복해 했으며, 거기서 여섯 명의 교우와 참수를 받아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그녀가 순교하던 때의 나이 46세였다. ~ 1839년 12월 29일)

현경련 베네딕타는 1925년 7월 5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비오 11세가 집전한 79위 시복식을 통해 복자 품에 올랐고, 1984년 5월 6일에 서울특별시 여의도에서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한 미사 중에 이뤄진 103위 시성식을 통해 성인 품에 올랐다.



성 현경련 베네딕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제공





53. 기해일기 / 성녀 현경련 베네딕타(1794 생 1839. 12. 29 안수)
성녀는 성령에 주교가 기해일기를 알게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됨 피할길이 없자 동생
성 안성환에게 맡겼다.

참고 문헌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103 Martyr Saints: 현경련 베네딕타
Benedicta Hyon Kyong-nyon Archived 2014년 11월 29일 - 웨이백 머신

각주 : <http://newsaints.faithweb.com/martyrs/Korea1.htm>

<103위 성인 (百三位聖人)>.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2014년 10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30일에 확인함./ 이상도 (2014년 7월 24일). “교황, 화해와 평화..8월의 크리스마
스되길”. 평화방송. 2014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30일에 확인함.

석문 錫聞, 23세, 천주교 성인, 계온(계흠)의 아들, 세례명 가롤로

1801년(순조 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현계흠(啓欽, 중랑장공파 22세)의 아들이다. 1799년(정
조 23년)에 태어났다. 1837년(헌종 3년) 말 의주(義州)에 가서 프랑스 선교사 앙베르
(Imbert, L. M., 范世享) 주교(主教)를 무사히 입국하게 하였다. 샤스탕(Chasten, J., 鄭牙各伯)
신부의 복사(服事)로서 샤스탕(Chasten) 신부가 신자들을 찾아다닐 때 늘 수행했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성무를 돕는 한편, 교인들의 신앙지도에 전심하였다. 천주교 한양회장(漢陽會長)
에 임명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때에 가족을 잃고, 앙베르 주교의 요청으로 순교
자 열전 집필에 착수, 3년 만에 《기해일기(己亥日記)》를 완성하여 후에 68명 이상이 福者의
지위에 오르는데 공헌했다. 1846년(헌종 12년) 9월 金大建 등과 함께 체포되어 한강가 새남
터에서 순교했다. 1925년 교황 피우스 11세에 의해 시복(諡福)되고, 1984년 교황 요한 바오
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 때에 그의 아내 김데레사와 아들 은석이 옥에서 죽었고, 누이 玄敬連 베네
딕타는 망나니의 도끼에 맞아 숨졌다. 앙베르(Imbert)주교는 죽으러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게 될 사람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책임을 그에게 맡겼고, 牧者가 없는 동안
조선교회를 보살피라고 했다. 포졸들에게 3년 동안 뒤쫓기어 그는 변장을 하고, 아주 초라한

초막과 산 속의 굴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는 이재영으로 변성명까지 했다. 신부들이 없는 동안 그는 신임교우들을 격려하고, 신자집단을 다시 만들게 돕고, 연락을 다시 맺기 위해 여러 차례 밀사들을 중국에 보냈고, 사행에 직접 참가했다.

박해가 멈추자 살아남은 최희원(崔希遠), 모방(Maubant, P., 羅伯多祿)의 복사 최형(崔炯), 이승훈(李承薰)의 손자 재의(在誼) 등의 협조를 얻어 순교 자료를 모으고 확인, 보충하여 『기해일기』라는 순교자 전기를 작성하였다. 여러 번 교인을 북경에 보내어 성직자와의 연락을 도모하였고, 김대건(金大建) 신부가 입국하였다가 곧 상해로 다시 건너갈 때 동행하기도 하였다. 김대건 신부가 서울에 돌아온 뒤 사들인 집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 김대건 신부의 체포 소식을 듣고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곧 거처가 알려져 1846년 7월에 잡혔다. 현석문은 포도청에 갇혔으나, 그곳에서도 잡혀 있던 교우들을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재판장에서는 매질과 주리틀기 등 온갖 고문을 받았다는 설도 있고, 그는 징벌을 받지 않았고 국사범이며 천주교인들의 제2의 두목이라는 명목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순간까지 꽤 우대를 받았다는 설도 있다. 당시의 엄격한 유교 계급 사회에서 천주교 평등사상의 보급은 깜깜한 밤에 광명한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에 견줄 만큼 획기적인 일이었다.

72. 현석문 가롤로	회장	1846. 9. 19	새남터
53. 현경련 베네딕타	여회장	1839. 12. 29	서소문 밖

현석문 가롤로

현경련 베네딕타

72. 신헌문 피터 / 성인 현석문 가롤로(1797 생 1846. 9. 19 군문포수)
성인은 기해일기를 편찬하였다. 성 김대건부제와 목선을 타고 상해로 가기 위해 마포를 출발하는 광경.

『한국천주교회(韓國天主教會)의 역사(歷史)』(최석우,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한국천주교회사』(유홍렬, 분도출판사, 1964)
 『한국79위순교복자전』(로네 저, 안응열 역, 경향잡지사, 1957)

- * 기해박해(己亥迫害) : 기해사옥(己亥邪獄)이라고도 한다. 1839년 3월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에 의해 시작되어 10월까지 계속되었다.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면적으로는 시파(時派)인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으려는 벽파(僻派)의 풍양 조씨가 일으킨 것이다.
- * 김대건 신부(金大建, 1821년~1846년) : 한국인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이자, 순교자, 여행가로, 세례명은 안드레아이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었다.

조선왕조실록 > 헌종실록 > 헌종 12년 병오 > 7월 25일 > 헌종 12년 병오(1846) 7월 25일(무신) 12-07-25[01] 김대건을 효수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사학 죄인(邪學罪人) 김대건(金大建)을 효수(梟首)하라고 명하였다. 김대건은 용인(龍仁) 사람으로서 나이 15세에 달아나 광동(廣東)에 들어가서 양교(洋敎)를 배우고, 계묘년에 현석문(玄錫文) 등과 결탁하여 몰래 돌아와 도하(都下)에서 교주(敎主)가 되었다. 이 해 봄에 해서(海西)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당선(唐船)을 만나 광동에 있는 양한(洋漢)에게 글을 부치려 하다가 그 지방 사람에게 잡혔는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라 하였으나 마침내 그 본말(本末)을 사실대로 고하였다. 포청(捕廳)에서 한 달에 걸쳐 힐문하였는데, 그 말하는 것이 교활하여 양박(洋舶)의 강한 것을 믿고 협박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마침내 그 교(敎)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은전(銀錢)을 흠어서 경외(京外)에서 흔하게 쓰는 재화는 다 양한이 책중(柵中)에서 실어 보낸 것이다.’ 하였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양외(洋外)의 제번(諸蕃)의 말에 능통하므로, 신부(神父)로서 각국을 위하여 통사(通事)한다.’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현석문과 아울러 같이 주벌(誅罰)하였는데, 현석문은 신유년의 사도(邪徒)로 처형된 현계흠(玄啓欽)의 아들이다. 【원전】 48 집 51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사상(思想) 조선왕조실록 > 헌종실록 > 헌종 12년 병오 > 7월 29일 > 헌종 12년 병오(1846) 7월 29일(임자) 12-07-29[01] 현석문을 효수하도록 명하다 사학 죄인(邪學罪人) 현석문(玄錫文)을 효수(梟首)하여 못사람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戊申/上御熙政堂，引見大臣備局堂上，命邪學罪人金大建梟首。大建，以龍仁人年十五，逃入廣東，學洋敎，癸卯，結玄錫文輩，潛還爲敎主於都下。是年春，往海西，遇漁採唐船，要寄書于廣東洋漢，爲土人所捉，始稱中國人，終首實其本末。自捕廳，閱月盤覈，其爲說極狡獪，挾洋舶之強而脅之，謂‘我國終不可禁渠敎。布散銀錢，京外爛用之貨，皆洋漢之由柵中輸送也。’又自云‘能通洋外諸蕃話，故以神父而爲各國通事’云。至是，并與玄錫文而同誅之，錫文，辛酉邪徒伏法啓欽子也。 ○壬子/命邪學罪人玄錫文，梟首警衆。
--	---

【원전】 48 집 51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思想)

銀錢京外爛用之貨皆洋漢之由柵中輸送也又自云能通洋外諸蕃話故以神父而為各國通事云至是并與玄錫文而同誅之錫文辛酉邪徒伏法啓欽子也○命講製文臣抄啓○以趙存中為左邊捕盜大將李能權為右邊捕盜大將○已酉以尹尚圭為漢城府判尹○庚戌上御春塘臺行賞試射頒賞○辛亥○壬子命邪學罪人玄錫文梟首警衆○八月癸丑以徐憲淳為漢城府判尹○甲寅上御春塘臺行秋到記講居首孔獻東之次鄭煥翼製述賦居首李文馨之次金顯龜並直赴殿試○乙卯上御熙政堂召見入格儒生○丙辰給鏡城等邑滄頤戶恤典○政府抄啓講製文臣金始淵沈熙淳李裕元鄭翊朝趙然昌洪祐健俞致善李承圭鄭錫朝趙熙哲洪淳穆李承益洪祐命金炳雲金有淵洪原鐘南鐘三韓敬源尹禹錫李晚運等二十人○丁巳教曰宿衛之疎虞莫甚於近日不得不變通前亦有已倒革摠戎廳為總衛營使之分番入直於禁中以嚴宿衛凡百節目令廟堂從長磨鍊啓下○戊午上詣璿源殿還安三朝御真仍詣景祐宮展拜奉兩朝御真入奉璿源殿行酌獻禮命資禮趙秉鉉禮房承旨洪義錫第四室大祝林肯洙第五室大祝金應均并加資○已未○庚申○辛酉以金英淳為司憲府大司憲朴宗休為司諫院大司諫○

既據理斥之又即問情詳探其動靜故至有奏聞之舉矣今此佛朗船之出沒於外洋威脅島民私相問答期欲納其積書而言必稱皇帝者即不過藉為恐喝之計而已豈可以如此荒誕之辭遽爾奏聞乎年前殺洋人時既不奏聞而今忽以此事奏聞則反有見疑之慮自外或有此議而臣意則奏聞一欸實為未穩第未知諸議之如何矣上曰果不無見疑之慮此必有朝鮮人脈絡相通者矣不然則渠何以知見殺之由又何以知其年條乎敦仁曰一自邪術之流行人多漸深而今此佛朗船之來未必不由於懲患誘引之致皆是蕭牆之變矣○已亥○庚子以徐憲淳為吏曹參議○辛丑○壬寅上御重熙堂召見黃海監司南獻教辭陞也○癸卯以李惟秀為工曹判書金左振為兵曹判書○甲辰上詣壯苑行望拜禮御春塘臺試恭班儒武碩居首金炳德武入格王錫疇並直赴殿試○乙巳上御重熙堂召見入格儒生○丙午○丁未○戊申上御熙政堂引見大臣備局堂上命邪學罪人金大建梟首大建以龍仁人年十五逃入廣東學洋教癸卯結玄錫文輩潛還為教主於都下是年春往海西遇漁採唐船要寄書于廣東洋漢為土人所得始知中國人終首實其本末自捕廳閱月盤覈其為說極校擒挾洋船之強而脅之謂我國終不可禁渠教布散

용(龍, 수검의 차남) 系譜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수검壽謙 장예원 판결사 掌諫院 判決事	2 용龍	인상 仁祥 計士 別堤 계사 別堤	1 탁琢	덕량 德亮	기沂	학성 學成									
			2 찬 璨 1595~? 1615광해 7년입적												
			3 옥瓊 1597~16 58	덕우 德宇 1617~1680	각珝	1 광하 光夏	침沉	계한 啓桓	집	재성 在誠	기錫 1808~1860 시인詩人 봉사奉事				
						2 상하 尙夏 1667~171 8	심深 1704~174 4 漢城府左 尹 한 성부	1 계근 啓根 당상역관堂上 譯官	1 후厚 추중 당상 역관 희설(喜高)	1 재명 在明 1768~1830 당상역관	1 일鎰 1807~1876 당상역관 중추원지사	계승 1 濟昇 1832~18 76	분(榮) 신 천 군 수 1866~1944 1880증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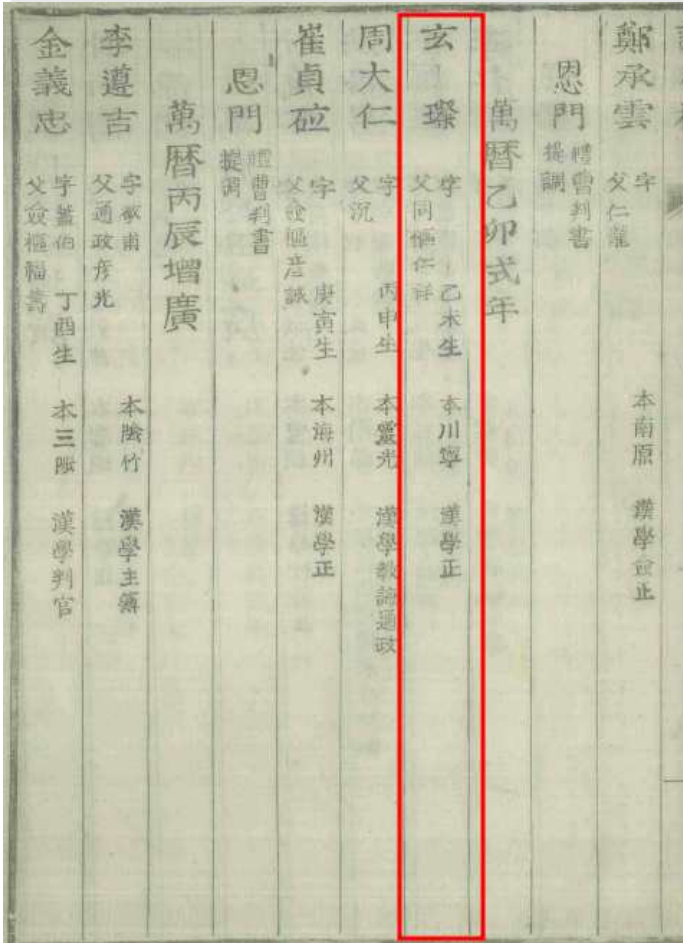
						工曹參議 공조참의	좌윤 五衛都總 管 오 위 도 총관	동암(東巖)일 기 1747식역	일기 1773증역	지중추부사 1786식역	1827증역	1848증역 적성현감 積城縣監 1831~고 종병자출			
												2 제창 濟章 1838~ 철종임자 출	隱은 1880증역. 독립협회		
												3 제보 濟普 1835~18 58 식역역과 譯科 첨정翊正			
												4 제만 濟晩 1838~			
												5 제창 濟昶 1886 인재현감	순枸(循) 독립운동가 1867/ 1880	앨리스현 박헌영 애인 마타하리 1903 준섭 駿燮 피터현 작가 현다윗 데이비드 현	더 글 라 양 더 글 라 스 현
											2 錫석 1800~ 무과(武科) 가덕첨사 加德僉使	濟仁 제인 무과武科 오위장 五衛將 1820~			
										2 在德 재덕 1771~ 엄산(兪山)일기 1789식역	鉀갑 내의정 內醫正 1790~ 1810식의	濟元 제원 생부 탁 (鐸) 가선嘉善 동주同樞 1830~	樞귀 1874~ 1891식역	英燮영섭 1906(8)~	
											탁鐸 석번(石樊) 일기 1831식역	2 濟坤 제곤 1834~ 3제륜 濟倫 1855식역	桓환 1878~ 광무개혁시 위대 3 枕 운	1 明燮 명섭	3 熙男 희남
										3 재신 在新 1805증역.주부 主簿	鈺옥 찰방 察訪	濟復 제복(부) 합천군수 陞川郡守	정(楨) 오촌군수劉 川郡守	경섭 景燮 트림랫주자 1913~	
									2 恒원 1770~ 음성연일 陰城 延日縣監 좌승지 左承旨	1 夏圭 하규 1798~ 함흥감목관 칠원 현감					
										4 瑞圭 서규 1815~ 수원함흥감목관 監牧官	2 佑鐸 우용 1852~ 1867 생원				
											3 鉦창 1876~	濟舜 제순 1918~			
									3. 煥영						
									4 희燾	1 在閔 재문	鏡경	濟豐 제풍 1885증역 1886주학			
										2 在閔 재은	銀곤 무과 武科	1 濟益 제익	櫛 현	영섭永燮 1906 향도학회	龍奎 용규

											1825~	2 제석 濟奭 1886 주학		이사		
								2. 啓桓 계환								
								3 啓禎 계정 판중주 判中樞 겸 도총관 都總管	식씨 일어 역관	1 在兢 재금 역과정 譯科正	銅 강	濟萬 제만	채采 관료 사학자	公濂 공렴	堪 감	
							2 재명 在明 중국어 호조판서 戶曹判書 1786~ 현종 신축			2 鍵건 1812~	濟元 제원	櫟 1880고종경 진(庚辰)생	白廉백렴 생부 모(模)			
										6 鉉필 1827~ 중국어	1 濟遠 제원 1848 수신사					
										3 在林 재림 역과정 譯科正 1788~	1. 상錦 역과첨정 譯科僉正					
								2 錫위 연천군수 連川郡守 1821~								
						3 희하 熙夏 역과譯科 봉사奉事										
		2 예상 禮祥 통훈 대부 通訓 大夫 레빈사 주부 禮賓寺主 簿	1 禹珪 우규													
			2 禹錫 우석 진사進士 덕원부사 德原府使													
			3 禹績 우적 나주목사 羅州牧使	萬元 만원 진사 강릉부사 江陵府使	聖夫 성부 동래 부사 東萊府使	光夏 광하 진사 갑산부사 甲山府使	益重 익중 진사 남양부사 南陽府使									
수경壽謙 장예원 판결사 掌隸院 判決事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2 용龍	3 문상 文祥	우성 禹成 명월만호 明月萬戶	석철 石喆 보성군수 寶城郡守	2 熙 達 희 달	1 日陽일양	1 光寶광보	1 尙仁상인	1 永老영로	1 順用순용	1 萬辰만진	2 千鶴천학	1. 詞善 사선	1. 勝澤 승택	1 洪實 홍실
														3 梯善제선	3 丞燦승찬	1 丁 浩 정호
											2 順薦순연	3 萬生만생	1 天權천권	3 明力명력	1 德俊덕준	
															2 德奎덕규	1 知 沅 지원
															3 德秀덕수	
															5 銀姬은희	
													3 天祚천조	1 明厚명후	1 德在덕재	1 宗 源 종원
											3 順吉순길	6 萬根만근	2 千弘천홍	1 政祐정우		
													3 千亨천들	1 昌勳창훈	1 承協승협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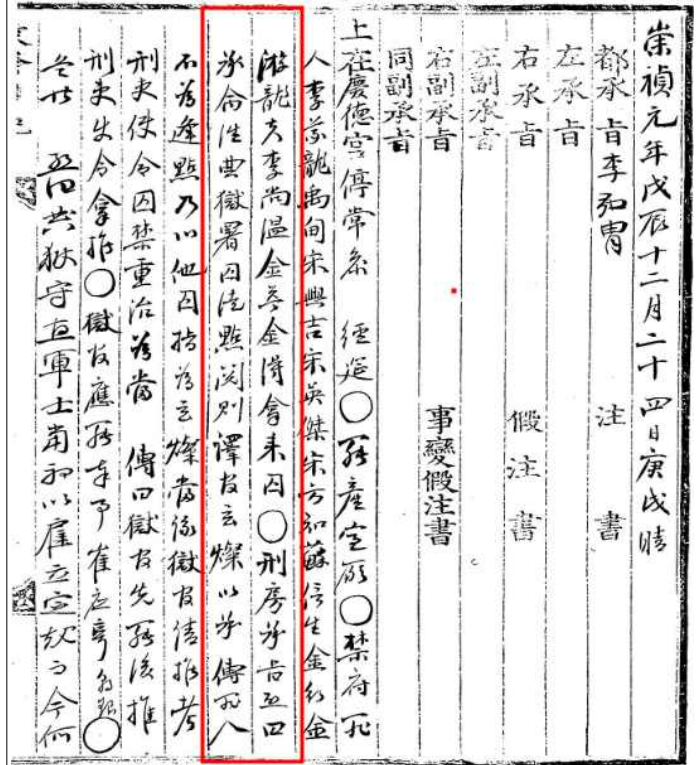
용 龍, 수검의 차남, 참판(贈參判), 配 진천김씨(鎭川金氏)

* 계사별제(計士別提) : 호조(戶曹)에 근무하는 산원(算員, 회계사)의 관직이다. 계사(計士)는 종8품이다. 별제(別提)는 무록관(無祿官; 녹봉을 받지 못하고 전지만 받는 관리)이다

찬 璨, 17세, 용의 손자, 인상의 차남, 1615년(광해군7년)에 처음으로 잡과 합격

[역과] 광해군(光海君) 7년(161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1위(2/4)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생년 : 을미(乙未) 1595년 (선조 28) • 합격연령 : 21세 • 본인본관 : 천녕(川寧) • 거주지 :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민상(玄仁祥) •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 관직 : 동지(同知) [조부(祖父)] • 성명 : 현릉(玄陵) • 품계 : 통정대부(通政大夫)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수겸(玄壽謙) [외조부(外祖父)] • 성명 : 김영환(金英環) • 본관 : 안동(安東[新]) [처부(妻父)] • 성명 : 권수승(權壽承) • 본관 : 안동(安東) [안향(隣行)] • 형(兄) : 현탁(玄瓘)[義] • 제(弟) : 현욱(玄旭)[諱]	[이력사항] • 선발인원 : 4명 [一等1·二等1·三等2] • 전력 : 정(正) • 전공 : 한학(漢學)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6년 무진 > 12월 24일 > 인조 6년 무진(1628) 12월 24일(경술) 맑음 06-12-24[04] 전옥서의 죄수들을 점열한 결과 해당 옥관을 추고할 것 등을 청하는 형방 승지의 계	○ 刑房承旨啓曰, 承命往典獄署, 囚徒點閱, 則譯官玄燦, 以承傳罪人, 不爲逢點, 乃以他囚指爲玄燦, 當該獄官請推考. 刑吏·使令, 囚禁重治爲當. 傳曰, 獄官先罷後推. 刑吏·使令拿推.
형방 승지가 아뢰기를, “명을 받들고 전옥서에 가서 갇혀 있는 죄수들을 점열(點閱)하였더니, 역관(譯官) 현찬(玄燦)이 승전죄인(承傳罪人)이라고 하여 점고(點考)를 받지 않	

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죄수를 가리켜 현찬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옥관(獄官)을 추고하고 형리(刑吏)와 사령(使令)은 수금(囚禁)해서 중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옥관은 먼저 파직한 후에 추고하라. 형리와 사령은 나추(拿推)하라.”
 하였다.



옥 頊, 17세, 용의 손자, 인상의 3남, 증광시 역과 합격, 1597년(선조30)~1658년(효종9)

[역과] 광해군(光海君) 8년(1616) 병진(丙辰) 증광시(增廣試) 2등(二等) 2위(3/6)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자(字)	자신(子慎)
• 생년	정유(丁酉) 1597년 (선조 30)
• 합격연령	20세
• 본관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현인상(玄仁祥)
• 품계	가선대부(嘉善大夫)
• 관직	동지(同知)
[조부(祖父)]	
• 성명	현릉(玄陵)
•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증조부(曾祖父)]	
• 성명	현수겸(玄壽謙)
[외조부(外祖父)]	
• 성명	김영환(金英環)
• 본관	안동(安東[新])
[처부(妻父)]	
• 성명	변충길(邊忠吉)
• 관직	현감(縣監)
• 본관	원주(原州)
[안향(厯行)]	
• 형(兄)	현찬(玄璫)[謹]

[이력사항]																	
• 선발연월	6(주2)명 [一等1, 二等2, 三等3]																
• 전역	한학관(漢學館) (주1) [補]																
•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 품계	절충장군(折衝將軍)																
• 관직	고위(政議)																
• 전공	한학(漢學)																
<table border="1"> <tr> <td>玄 頊</td><td>字子慎 丁酉生 本川寧 漢學教諭正</td></tr> <tr> <td>朴尚直</td><td>字子正 己亥生 本忠陽 漢學教諭正</td></tr> <tr> <td>崔俊男</td><td>字武科 壬辰生 本慶州 漢學上通事食糧</td></tr> <tr> <td>李承吉</td><td>字善而 乙未生 本陽城 漢學</td></tr> <tr> <td>恩門 提調</td><td>萬曆戊午式年</td></tr> <tr> <td>張仁健</td><td>字伯城 戊戌生 本大元 漢學上通事最善同樞</td></tr> <tr> <td>恩門 提調</td><td>萬曆己未增廣</td></tr> <tr> <td>萬曆己未增廣</td><td>一等三人 二等七人 三等十三人</td></tr> </table>		玄 頊	字子慎 丁酉生 本川寧 漢學教諭正	朴尚直	字子正 己亥生 本忠陽 漢學教諭正	崔俊男	字武科 壬辰生 本慶州 漢學上通事食糧	李承吉	字善而 乙未生 本陽城 漢學	恩門 提調	萬曆戊午式年	張仁健	字伯城 戊戌生 本大元 漢學上通事最善同樞	恩門 提調	萬曆己未增廣	萬曆己未增廣	一等三人 二等七人 三等十三人
玄 頊	字子慎 丁酉生 本川寧 漢學教諭正																
朴尚直	字子正 己亥生 本忠陽 漢學教諭正																
崔俊男	字武科 壬辰生 本慶州 漢學上通事食糧																
李承吉	字善而 乙未生 本陽城 漢學																
恩門 提調	萬曆戊午式年																
張仁健	字伯城 戊戌生 本大元 漢學上通事最善同樞																
恩門 提調	萬曆己未增廣																
萬曆己未增廣	一等三人 二等七人 三等十三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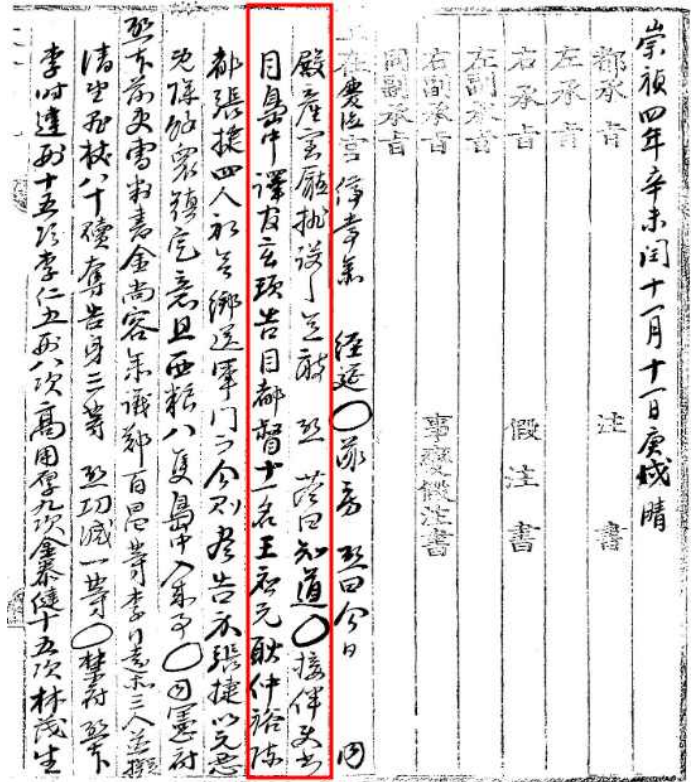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9년 신미 > 윤11월 11일 > 최종정보

인조 9년 신미(1631) 윤11월 11일(경술) 맑음

09-윤11-11[03] 접반사의 서목에서 가도의 역관 현옥의 고목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접반사의 서목은, 가도의 역관 현옥(玄項)의 고목(告目)에 "도독의 장관(將官) 11명 가운데 왕응원(王應元), 경중유(耿仲裕), 진도(陳都), 장첩(張捷) 등 4인을 애당초 군문(軍門)에 결박해 보내고자 하였는데 지금 모두 자수하였고, 장첩은 원악(元惡)으로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남은 무리들이 진정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과 서량(西糧)을 실은 배 8척(隻)이 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일이었다.

○ 接伴使書目, 島中譯官玄項告目, 都督十一名王應元·耿仲裕·陳都·張捷四人, 初欲綁送軍門, 而今則盡告身, 張捷以元惡既除, 餘衆鎮定意, 且西糧八隻, 島中入來事。



2용-1인상-옥 계系

덕우 德字, 18세, 식년시 역과 합격, 1617(광해9)~1680(숙종6)

[역과] 인조(仁祖) 17년(163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2위(5/18)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이력사항]

· 선별인원	18명 [一等3·二等5·三等10]
· 전력	조대부 한학관(朝大夫漢學官) (주1) [補]
· 품계	가희대부(嘉義大夫)
· 품계	가선대부(嘉善大夫)
· 관직	교희(敎誨)
· 관직	상통사(上通事)
· 관직	동지(同知)
· 전공	한학(漢學)

· 자(字)	공원(公遠)
· 생년	정사(丁巳) 1617년 (광해군 9)
· 합격연령	23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역과] 인조(仁祖) 17년(163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2위(5/18)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자(字) 중견(仲堅) ·생년 경진(庚辰) 1640년 (인조 18) ·합격연령 23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성명 : <u>현덕우(玄德宇)</u>[譯] ·관직 : <u>동지(同知)</u>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성명 : <u>현옥(玄瑀)</u>[譯] [증조부(曾祖父)] ·성명 : <u>현인상(玄仁祥)</u> [처부(妻父)] ·성명 : <u>홍여우(洪汝雨)</u>[譯] ·관직 : <u>충민(忠敏)</u> ·관직 : <u>교회(敎誨)</u> ·전공 : 왜학(倭學) ·본관 : 남양(南陽) [唐] [안향(廣行)] ·형(兄) : <u>현혁(玄赫)</u>[譯]	[이력사항] ·선발인원 26명 [一等3·二等7·三等16] ·전력 <u>불사(奉事)</u> ·전공 한학(漢學)

2용-1인상-옥-덕우-각-1광하 系
광하 光夏, 20세, 각의 장남, 증광시 역관 합격

[역과] 숙종(肅宗) 4년(1678) 무오(戊午)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5위(15/35)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개명(改名) <u>현덕세(玄德世)</u> ·개명(改名) <u>현광세(玄光世)</u> ·자(字) 동경(童卿) ·생년 정유(丁酉) 1657년 (효종 8) ·합격연령 22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 35명 [一等3·二等7·三等25] ·품계 <u>절충장군(折衝將軍)</u> ·전공 한학(漢學)

[부(父)]

- 성명 : **현각(玄珪)[諱]**
- 관직 : **사역원봉사(司譯院奉事)**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玄○○)**

[처부(妻父)]

- 성명 : **박세화(朴世華)[諱]**
- 관직 : **충민(忠敏)**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밀양(密陽)

[안향(膺行)]

- 제(弟) : **현상세(玄尙祿)**
- 제(弟) : **현희세(玄熙祿)**

玄光夏	李暉	金瑄	金圖南	韓後雄	金斗濟	李萬翼	慎惟徽	卞廷益	尹斗滿
字華叔	字明	字純玉	字仲羽	字而豪	字子瑜	字雲路	字仲倫	字仲卿	字君實
丁酉生	辛巳生	甲申生	己亥生	癸巳生	己丑生	辛丑生	戊戌生	辛卯生	丙申生
本川寧	本德水	本雪城	本牛峯	本精州	本慶州	本全州	本眉昌	本密陽	本豐城
漢學	蒙學	後學教誨嘉義	後學教誨嘉義	漢學	蒙學元延兒金正	漢學善押物正	漢學判官	漢學資憲	漢學判物通政
初名億歲									

기 錡, 25세

용(龍)의 10세손이다. 자는 신여(信汝). 호는 희암(希庵)으로 조선 후기 여항시인(閭巷詩人)이다. 1808년(순조 8년)에 태어났다. 1828년(순조 28년) 譯科 漢學에 합격하여 봉사(奉事)를 지냈다. 어려서부터 비상한 재능을 보였는데, 12세 때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배워 하루에 수백 행씩 외우는 등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장성하면서는 군서(群書)를 섭렵하여 재사(才思)가 뛰어났다. 문인 역관 4대가의 한사람으로 특히 시작에 뛰어나 당시의 사람들이 시신(詩神)이라고 불렀다. 당시의 저명한 여항시인 정수동(鄭壽銅)과는 시(詩)모임 비연시사(斐然詩社)의 同人이다. 당대의 문인 명사인 김흥근(興根), 조두순(斗淳) 등이 모두 정수동과 교유하였다. 정수동은 현기의 시집에서 ‘서로 벗 삼아 7일이나 지내며 술 마시고 울며 가로되, 우리들은 벗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한때 일가 형 玄일(鎰)이 돈을 주어 집을 사고 취첩(取妾)할 것을 권유하자, 그 돈으로 모두 술을 마셔버렸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1860년(철종 11년) 돌아가셨다. 한말의 시인 김석준(金奭準)이 그의 시제자이며, 金석준(奭準)은 ‘선생은 살았을 때 부인 없이, 돌아갔을 때는 자식 없이 50평생을 술 마시고 미친 듯 노래하며 시에 의탁하였다’고 하여, 세상에 재능을 펴지 못하고 쓸쓸히 살다 간 것을 안타까워했다. 조선말기 학자이자 **여항문인(閭巷文人) 장지완(之琬)**은 평소 교유하던 정수동(鄭壽銅)과 玄기(錡)의 행적을 애도하며 그들을 낙백(落魄)한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저서로는 김석준이

간행한 『희암시략(希庵詩略)』 1권 1책이 있다.

장지완(張之琬) <추일유회(秋日有懷)> 침우당집(枕雨堂集) 제1책, 권1.
落醜한 영웅의 末路는 같아
宋人의 詩句요, 晉人의 詩風이네.
지금 이름자나 아는 走卒들은
다투어 玄錡・鄭壽銅을 말하네.

* 봉사(奉事) : 조선 시대 관상감·돈령부·훈련원 및 기타 각 시(寺)·원(院)·감(監)·서(署)·사(司)·창(倉) 따위에 둔 종8품 벼슬

* 여항시인(閭巷詩人) : 여항(閭巷)은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좁고 지저분한 거리를 말하며, 조선 선조 이후에 일반 백성 출신 문인들이 이룬 문학을 여항문학(또는 위항문학委港文學)이라고 한다. 이들은 世業에 종사하지 않고, 뛰어난 詩才와 奇行으로 당시 세상을 주름잡았다. 장지완(張之琬), 정수동(鄭壽銅) 등이 대표 인물이다. 특히 정수동은 제도나 인위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여 많은 일화를 지니고있는 천재적인 인물로 특유의 해학과 풍자시로 기행을 하며 일대를 풍미했다. 그의 시창작은 조선 후기 문학사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그의 기이한 행적과 함께 많은 민간전승을 낳았다. 민간전승에서는 정수동을 평양의 봉이 김선달과 같이 묘한 지혜를 써서 남을 골려먹는 건달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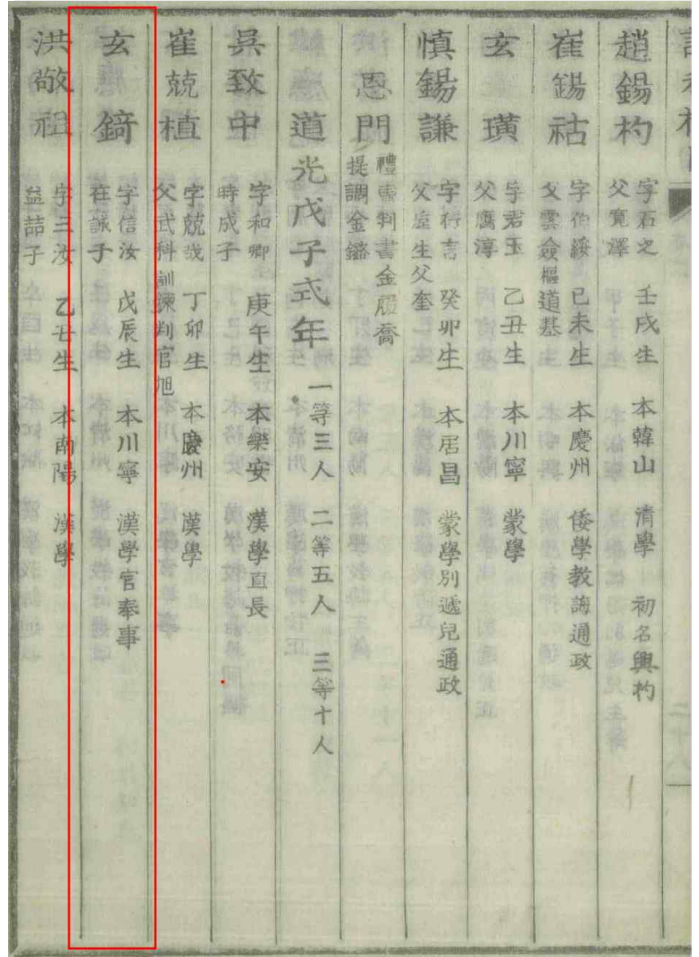
현기(錡)는 이상적(李尙迪), 김석준, 그리고 추사 김정희와 교류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과와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의 문인으로 김정희가 제주도에 귀양가 있었던 1844년(헌종 10년)에 멀리 북경에서 구한 책을 제주도까지 보내주었으며, 추사 김정희는 답신으로 세한도(歲寒圖)를 그려서 보내주었다. 추사 김정희는 이 외에도 오경석(吳慶錫), 현기(玄錡)의 시제자인 김석준 등 역관들과 친분이 깊었다. 김석준의 연행(燕行, 지금의 베이징인 청나라 수도 연경으로 가는 사신이나 사절단)을 앞두고 紅藥館(홍약관)에서 모인 전별연에서 읊은 강위(姜瑋)의 시에 의하면 김석준과 강위는 연행을 통해 더욱 깊은 우의를 다졌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일가 형 玄일(鎰)은 강위(姜瑋)가 그의 문집에 서문을 쓸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고, 현일(鎰)이 해외를 雄視(웅시)하였다고 흠모하였다. 후일 강위가 맹주가 되어 1878년 결성한 六橋詩社(육교시사)에는 김석준, 高永禧(고영희), 池運永(지운영), 池錄永(지녹영) 형제와 같은 전문직 인물 이외에도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의 후계자들인 丹菊 金昇圭(단국 김승규), 漁堂 金貞圭(어당 김정규)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였다.

[역과] 순조(純祖) 28년(1828) 무자(戊子) 식
년시(式年試) 1등(一等) 3위(3/18)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이력사항]

- 선발인원 18명 [一等3・二等5・三等10]
- 전력 [한학관\(漢學官\)](#)
- 관직 [봉사\(奉事\)](#)
- 전공 한학(漢學)



- 자(字) 신여(信汝)
- 생년 무진(戊辰) 1808년 (순조 8)
- 졸년 경신(庚申) (주1) 【補】 1860년 (철종 11)
- 향년 53세
- 합격연령 21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재성\(玄在誠\)](#) [譯]
- 관직 : [사역원주부\(司譯院主簿\)](#)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현집\(玄集\)](#) [譯]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계환\(玄啓桓\)](#)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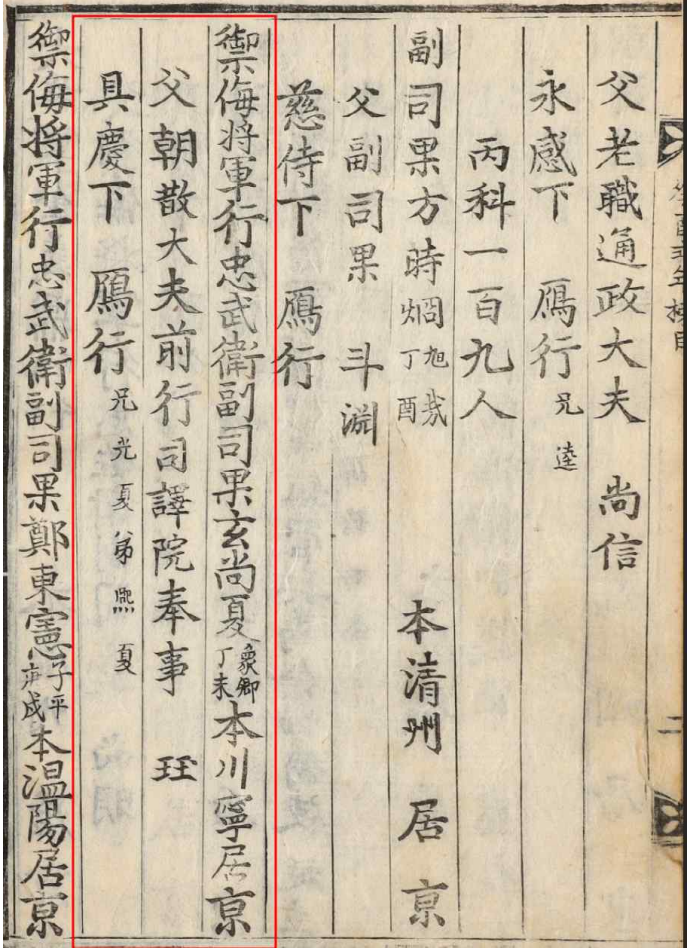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이홍재\(李弘載\)](#)
- 관직 : [교희\(敎誨\)](#)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전주(全州)

참고문헌: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일사유사(逸士遺事)』/『희암시략(希庵詩略)』/『성원록(姓源錄)』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 계系

상하 尙夏, 20세, 식년시 무과, 공조참위(工曹參尉)에 추증. 1667(헌종8)~1718(숙종44)

[무과] 숙종(肅宗) 19년(169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위(12/119)	『계유식년문무과방목(癸酉式年文武科榜目)』 (한국국학진흥원[성주 영천최씨 시청당(視聽堂 [崔性郁]))])
• 자(字) 상경(象卿) • 생년 정미(丁未) 1667년 (헌종 8) • 합격연령 27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한성([京]) [부(父)] • 성명 : 현각(玄珪) • 품계 : 조산대부(朝散大夫) • 관직 : 전행사역원봉사(前行司諫院奉事) [안향(鴈行)] • 형(兄) : 현광하(玄光夏) • 제(弟) : 현희하(玄熙夏)	[이력사항] • 선발인원 119명 [甲3 · 乙7 · 丙109] • 전력 어모장군행충무위부사과(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果) • 무과규구 편전 3시1순(片箭三矢一巡) •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심 深, 21세, 尙夏 아들, 역과 판관(譯科 判官), 한성부 좌윤(漢域府 左尹) 추증 1704(숙종30)~1744(영조20), 역과 판관(譯科 判官), 한성군 좌윤(漢域府 左尹) 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에 추증됐다. 아들들이 가계를 잇고 개화기 이후까지도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1계근-1후-1재명-1일 계系

계근 啓根, 22세, 당상역관, 공조판서兼오위도총부 도총관 추증

용의 7세손, 상하(尙夏)의 손자, 심(深)의 아들이다. 1726년(영조2년)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경제(敬躋). 다섯 살에 왜학 생도방에 입방하였고, 17세에는 前啣(전함)으로 승차하여 전공을 바꾸어 한학 전함소에 들어갔으며, 1747년 22세에 식년시 왜학에 합격하였다. 1763년에 통신사 정사 조엄(趙暉)을 따라서 江戶(강호) 德川幕府(덕천막부)에 갔다. 그해 12월 교정관(校正官)이 되어 왜어 학습서 倭語物名冊子(왜어물명책자)를 이정(曄正)했다. 통신사 귀국 후 3년 만에 현태익과 현태형이 대마도에 역관사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왜어물명책자는 간행되지 못했다. 이 간행 작업은 후에 韓延修(한연수)에 의하여 수정되어 《倭語類解(왜어유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1774년에 초량왜관 서관의 공사감독을 맡은 감동역관으로 파견되어 일을 잘 수행하자 그 공으로 加資(가자)되었으며, 1780년에 대마도로 파견되는 문위행의 당상역관이 되었다. 왜학교회(倭學敎誨, 교수)와 資憲(자헌, 정2품), 知樞(지추, 종2품)를 역임한 후 1750년에 당상에 오르 고, 종1품 崇錄大夫(숭록대부)에 올랐다. 1799년(정조23년)에 7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공 조판서兼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되었다 동암(東巖)일기(1744-1798)가 전한다.

[역과] 영조(英祖) 23년(174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7위(15/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자(字) 일승(日昇) • 생년 병오(丙午) 1726년 (영조 2) • 합격연령 22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 품계 자헌대부(資憲大夫) • 관직 교회(敎誨) • 관직 지추(知樞) • 전공 왜학(倭學)

[부(父)]

- 성명 : 현심(玄深)
- 관직 : 상통사(上通事)
- 관직 : 사역원판관(司譯院判官)
- 전공 : 청학(淸學)

[조부(祖父)]

- 성명 : 현상하(玄尙夏)
- 전공 : 무과(武科)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각(玄珪)[譯]
- 관직 : 교회(敎誨)
- 전공 : 한학(漢學)

[외조부(外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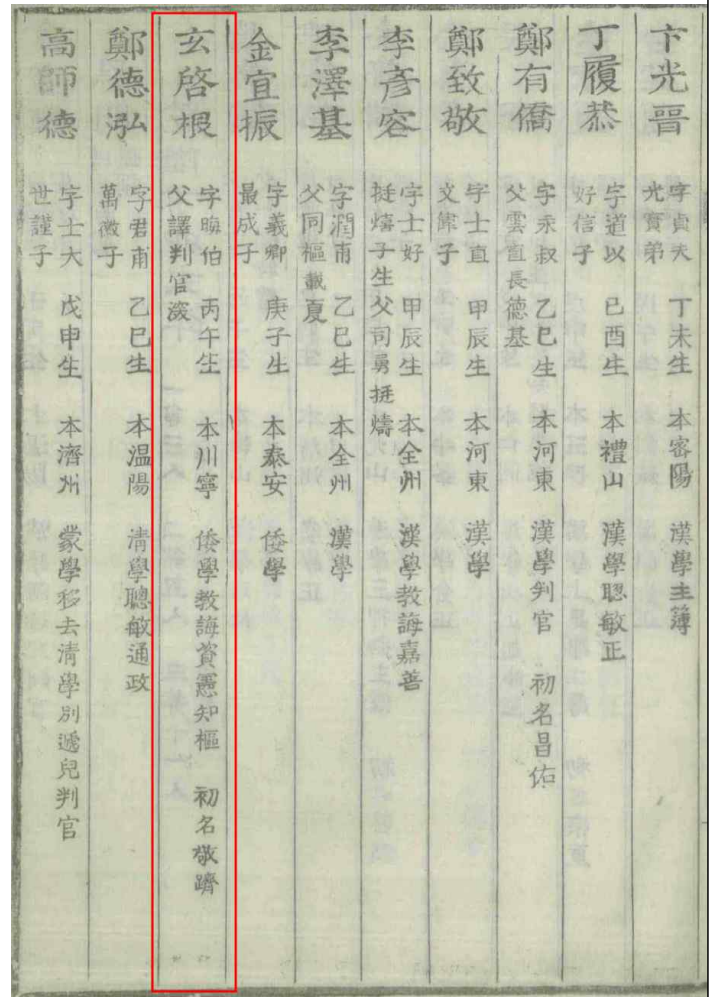
- 성명 : 이후면(李後勉)[譯]
- 관직 : 교회(敎誨)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금산(金山)

[처부(妻父)]

- 성명 : 황대일(黃大逸)[譯]
- 관직 : 총민(聰敏)
- 전공 : 왜학(倭學)
- 본관 : 창원(昌原)

[안향(鴈行)]

- 제(弟) : 현성제(玄聖躋)
- 제(弟) : 현명제(玄命躋)



일성록 > 정조 > 정조 8년 갑진 > 10월 1일 > 최종정보
정조 8년 갑진(1784) 10월 1일(계미)
08-10-01[19] 각 해사(該司)가 행행(幸行)할
때 받은 상언(上言)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남부에 사는 사역원의 전함 **현후**의 일은, 차왜(差倭)를 쫓아 보낸 뒤에 상가(賞加)를 어떤 사람에게는 시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행하지 않은 것과 왜어(倭語)를 질정(質正)한 뒤에 상전(賞典)을 구별하여 시행한 것도 반드시 당초에 헤아려서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니, 모두 초기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통신사의 일행에 대해 준직에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으니, 특별히 대가(代加)하도록 하더라도 상전을 남발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도 원하는 대로 시행하여, 이들로 하여금 조정의 완만한 쪽으로 힘쓰는 정사가 있음을 알게 하라.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58면

【분류】

외교-야(野)

[주-D002] 차왜(差倭)를 …… 것 :

이 부분은 현후의 상언을 참고해 보면, 현후의 아버지 현계근(玄啓根)은 병술년(1766, 영조42)에 왜학(倭學)으로서 부산 별차(釜山別差)로 있을 때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고부 차왜(告訃差倭)가 규정에도 없는데 나와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자 책망하여 쫓아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최학령(崔鶴齡)은 가자가 되었으나 현계근은 가자가 되지 못하였다. 또 현계근은 계미년(1763, 영조39)에 통신사의 행차 때 압물통사(押物通事)로 수행한 공로와 왜어(倭語)로 된 물명(物名)을 담당하여 질정한 공로가 있었으나 또한 가자되지 못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8年 10月 1日》

益修在我以至公議允許士論信服則臣固當羞悔前事杜門齟舌負荆泥首亦所甘心孰與力戰多口取勝一時哉 上答以勿辭察職○以金佐明為兵曹判書吳挺一為戶曹判書○典農金太仁者殺其弟太順其母遭變繼死太仁逃竄刑曹請令左右捕盜廳嚴密窺伺竟不就捕○甲辰日有重暈○左議政許積上劄辭職曰伏見全羅監司金澄疏本有曰大臣為地臣實駭然也臣於李殷相吳挺緯非有意於仲救也當初臺啓出於風聞久置散地人多稱冤臣意以為兩臣負犯誠如臺啓則深罪之可也如其不然亦不當昧廢棄故往於原任大臣請叙殷相等之日臣亦請查實狀而處之臣於此有何曲為兩臣地者哉其所謂反求自訟益修在我者使兩臣果能如此則國善矣自修消謗世不多得對吏求伸亦有其人澄之責於兩臣者無乃太厚矣乎臣雖驚劣忝在大臣之列而乃為一藩臣所侵凌如此則朝廷體統之壞了臣實尸之臣何敢覲然仍冒具瞻之地乎 上答曰賴妄之說何足為據卿其勿辭登曾為魚川察訪犯賊就理有與驛吏面質之累故大臣劄中及之○清使出來時譯官玄德字等問蒙古王被囚事于通官張孝禮其言與前日崔吉等所傳略同○乙巳兩司論勿倫必遠執義李端夏掌令李夏 啓曰徐必遠情倫無義妨

教旨

玄啓根柢

嘉義大夫

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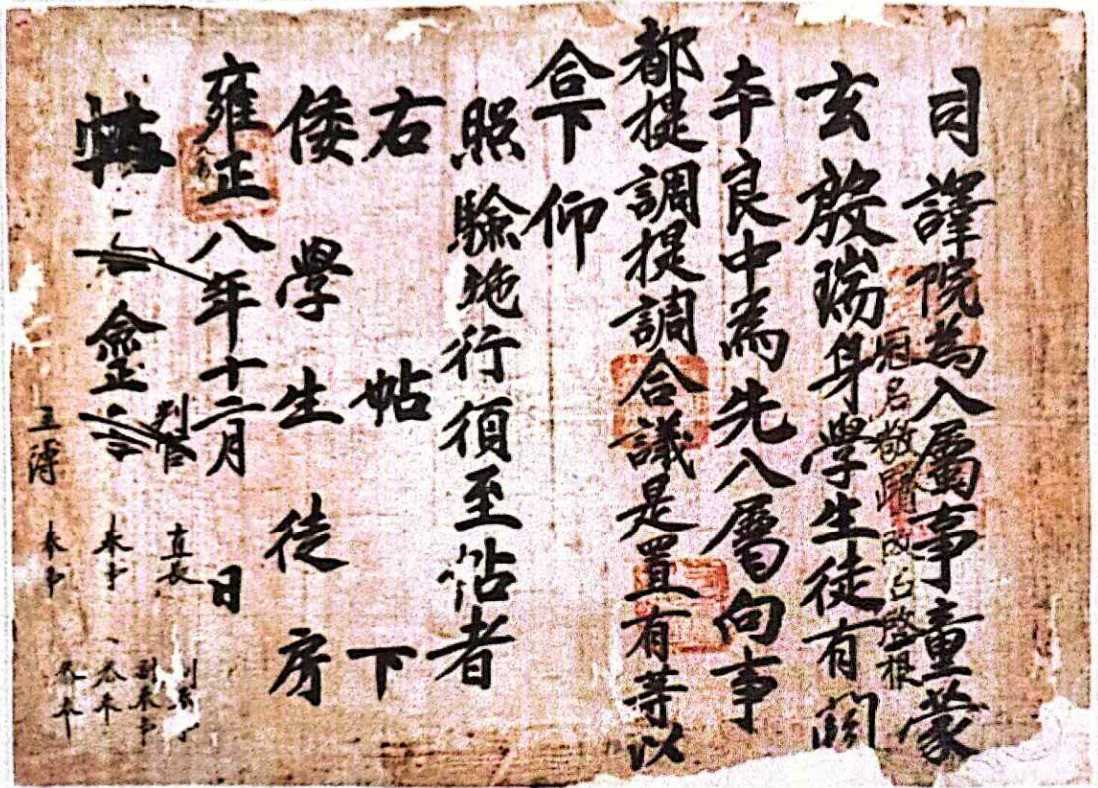
乾隆甲午年十月

日

傳

倭館監年之功加清事永

현계근의 가의대부(嘉義大夫) 교지(教旨)



그는 일찍이 5세 때에 왜학생도방(倭學生徒房)에 입속(入屬)하여 왜역(倭譯)으로서의 길을 출발하였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의하면, 생도방에의 입속은 완천(完薦)과 시재(試才)를 거치는 까다로운 것이었다. 완천 규정은 엄격하여 15명의 녹관(祿官) 중 3명만 반대해도 입속이 불가능하였고, 1736년 이후에는 敎誨廳(敎誨廳)의 완천도 얻어야 하였다.

현은서(殷瑞, 족보 미확인)의 사역원 입속 문서, 1730년(조선 영조 6년)

후 厚, 23세 당상역관, 공조판서兼오위도총부 도총관 추증(追贈)

계근의 장남, 1773년 증광식 역관, 당상역관(堂上譯官), 공조판서 兼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 (1798-1818), 희설(喜高)일기의 저자

[역과] 영조(英祖) 49년(1773) 기사(癸巳) 증광시(增廣試) 1등(一等) 1[壯元]위(1/27)	『역과방목(譯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이력사항] • 자(字) 치명(稚明) • 생년 기사(己巳) 1749년 (영조 25) • 합격연령 25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27명 [一等3・二等9・三等15] • 품계 자헌대부(資憲大夫) • 관직 교회(敎誨) • 관직 정(正) • 관직 교수(敎授) • 관직 지추(知樞) • 전공 한학(漢學)

	이 시험에서 그는 『첩해신어(捷解新語)』제2, 3, 5, 6, 15, 22를 사자(寫字)하여 통(通)이 둘, 략(略)이 넷이었고, 번경국대전(翻經國大典)은 예전(禮典)의 '격등자(格等者)'에서부터 '하마상음(下馬相聲)'까지를 번역하여 통을 받아 총 10분(分)을 받았다.(통(通)은 2분(分), 략(略)은 1분(分), 조(粗)는 반분(半分)으로 계산되었다.)
본관 : 전주(全州) 현경제(敬躋)의 사역원(司譯院) 봉사(奉事).	종8품) 임명장, 1747년(조선 영조 23년)

재명 在明, 24세, 당상역관, 중추원지사, 호조판서 兼 오위도총부 도총관 추증 후의 장남, 1786년 식년시 역과 한학(漢學) 합격, 당상에 오르고, 종1품 崇錄大夫에 올랐다. 중추원지사, 호조판서 兼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되었다. 1768년(영조44)~1830년(순조30)

[역과] 정조(正祖) 10년(17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1위(4/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초명(初名) 현이원(玄以遠) - 자(字) 성능(聖能) - 생년 무자(戊子) 1768년 (영조 44) - 합격연령 19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二等5・三等11] - 전력 승사랑 전사역원봉사(承仕郎前司譯院奉事) (주1) - 품계 송정대부(崇政大夫) - 관직 교희(敎誨) - 관직 정(正) - 관직 지추(知樞) - 전공 한학(漢學)

[부(父)]

- 성명 : 현후(玄煥)[譯]
- 관직 : 사역원교수(司譯院敎授)
- 관직 : 지추(知樞)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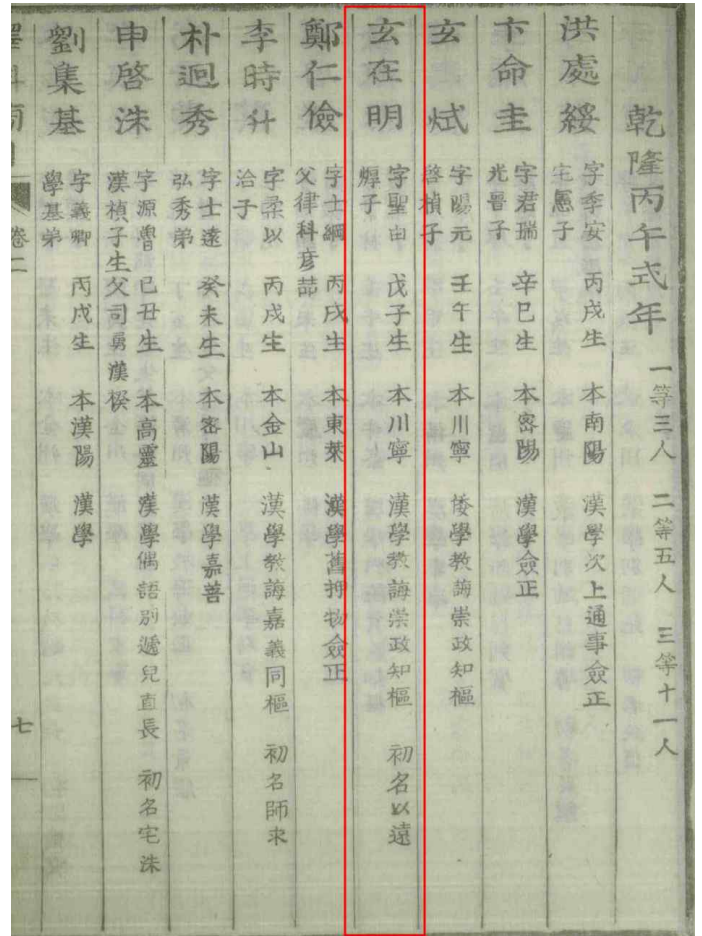
- 성명 : 현○○(玄○○)

[처부(妻父)]

- 성명 : 장탁(張鐸)
- 관직 : 사과(司果)
- 본관 : 인동(仁洞)

[안항(鴈行)]

- 제(弟) : 현필원(玄必遠)



일성록 > 순조 > 순조 8년 무진 > 8월 16일 >

순조 8년 무진(1808) 8월 16일(기유)

08-08-16[02] 역관(譯官) **현식(玄熾)** · 최석(崔昔) · 이영재(李榮載)는 가자(加資)하고, **현재명(玄在明)**과 이영재를 동지 사행(冬至使行)에 원래의 정원 이외로 특별히 차정해 보내라고 명하였다.

○ 영중추부사 이시수가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사신으로 가는데 내년은 대국에서 경사(慶事)를 칭송하는 해이니 예상 밖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수행하는 역관을 가려서 차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례상 정해진 인원수와 차례가 있어 변통하기 어려운 형세이지만 원래의 정원 이외에 한두 사람을 별도로 계정하여 데려간 전례가 많습니다. 역관 **현재명**과 이영재 두 사람을 이번 동지 사행 때 원래의 정원 이외로 특별히 차정해 보내도록 사역원에 분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領府事 李時秀又啓言臣今將出疆明年卽大國稱慶之年慮有意外應接之事隨行譯官不可不擇差而例有額數與第次勢難闊狹元額外一二人別啓請帶去多有已例譯官 **玄在明** 李榮載二人元額外定送於今番冬至使行事請分付該院從之

년(철종 2년)에 신분향상운동인 신해통청운동(辛亥通淸運動)의 별유사(別有事)로 활약했다. 구한말에 들어와서는 열강과의 대외관계가 중요해 집에 따라서 대원군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난 자질을 보여 초야에 묻혀 있을 때나 벼슬길의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시작 활동을 계속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1876년(고종 13년) 별세했다. 교정선생시집(蛟亭事先生詩集) 5권을 남겼다.

당대를 대표하는 閭巷詩人(여항시인)의 한 사람이었다. 후배인 金奭準(김석준)은 저자에 대해 「懷人詩錄(회인시록)」의 〈玄蛟亭〉에서 “"무겁고 산처럼 덕을 쌓고, 깊고 바다처럼 원천을 모은다. 몇 년 동안 숲 속에서 진정한 재미를 찾으며, 집은 연기와 안개 속에 홀로 문을 닫고 있다.(重厚如山成德器 匯深若海作詞源 幾年林下尋眞趣 家在煙嵐獨閉門)”라 극찬한 바 있다. 또 洪顯普(홍현보)도 문집 서문에서 그의 시에 대해 ‘北學(북학)’을 模擬(모의)한 시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교정집(蛟亭集)』
<https://db.itkc.or.kr/dir/item>

敎誨廳(교회청) : 사역원(司譯院) 내에서 외국어 교육과 번역 업무를 담당한 기관으로, 외국어 학습 및 역관(譯官) 양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교회청의 관리들은 외국어 교육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신원을 보증하는 책임도 맡았다. 특히 교회(敎誨)라는 직책은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관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물이었다. 이들은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가르쳤으며, 국가의 외교와 통역 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했다
監牧官(감목관) : 지방 목장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던 종6품 외관직이다. 이 직책은 목축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제와 군사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목관은 목장의 말과 가축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군마 공급 등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켰다. 감목관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무관 출신이 임명되었으며, 지방에서 행정과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 감목관 이석보는 울산에서 정자를 조성하고 시를 남기며 자신의 철학과 정서를 표현하기도 했다.
瓦署別提(와서별제) : 와서(瓦署)에 소속된 종6품 관직으로, 왕실에 필요한 기와와 전돌을 제작·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와서는 태조 원년에 설치되어 고종 19년까지 운영되었으며, 별제는 와서의 주요 관원 중 하나였다. 와서별제는 기와와 전돌 제작을 감독하며, 왕실 건축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와서에서는 대와, 방초, 상와 등 다양한 기와와 전돌을 생산했으며, 이는 궁궐의 꽃담과 같은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中樞院知事(중추원지사) : 중추부(중추원의 후신)의 주요 관직 중 하나로, 정2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이었다. 중추부는 원래 군정, 왕명 출납, 숙위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명예직 성격이 강해졌다. 중추원지사는 주로 문무 당상관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실제 행정보다는 왕실 및 국가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조선 후기 관료제 변화 속에서 특정 직무가 없는 고위 관리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辛亥通淸運動(신해통청운동) : 1851년(철종 2년)에 기술직 중인들이 주도한 신분 상승 운동으로, 서얼 및 중인 계층이 관직 진출을 제한받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운동은 중인들이 통문을 작성하고 집단적으로 관청에 상소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역관과 의관 등 기술직 중인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의 관직 진출과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 신분제 붕괴와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別有司(별유사) : 주로 서원에서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던 직책이다. 서원의 운영과 관리, 제향(祭享) 준비, 재산 관리 등을 맡아 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다. 별유사는 서원의 주요 행사와 의례를 감독하며, 서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직책은 서원의 자치적 운영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서원 원장(院長) 아래에서 실무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다.

제승 濟昇, 26세, 적성현감積城縣監,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불란서 함대와 협상 담당 일(鎰)의 장남, 1832년(순조 32)에 태어나셨다. 역과를 거쳐 국방, 농업, 재정, 인사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 소개했다. 字는 光初로 적성현감을 지냈다.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에 불란서 함대와 협상을 담당하여 절찬을 받았다. 1876년(고종 13)에 돌아가셨다.

[역과] 헌종(憲宗) 14년(1848) 무신(戊申) 증광시(增廣試) 2등(二等) 1위(2/8) 자(字)광초(光初) 생년임진(壬辰) 1832년 (순조 32) 합격연령17세 본인본관천녕(川寧) 거주지미상(未詳) [부(父)] 성명 : 현일(玄鎰)[譯] 품계 : 승록대부(崇祿大夫) 관직 : 교희(敎誨) 관직 : 현감(縣監) 관직 : 지추(知樞) 전공 : 한학(漢學) [조부(祖父)]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성명 : 현○○(玄○○) [처부(妻父)] 성명 : 변직(邊植)[譯] 관직 : 교희(敎誨) 전공 : 한학(漢學) 본관 : 원주(原州)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이력사항] 선발인원 8명 [一等1・二等2・三等5]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관직 교희(敎誨) 관직 군수(郡守) 관직 직장(直長) 전공 한학(漢學)
--	---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년 갑자](#) > [2월 27일](#) > [고종 1년 갑자\(1864\) 2월 27일\(무술\) 맑음](#)
 01-02-27[14] 일이 몹시 많으므로 전 첨정 현재승을 별간역으로 차하할 것을 청하는 산릉도감 총호사의 계

○ 산릉도감 경낭청이 총호사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본 도감의 일이 몹시 많으니, 전 첨정 현제승(玄濟昇)을 별간역(別看役)으로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규장각 원본국역

○ 山陵都監京郎廳, 以摠護使意啓曰, 本都監役事, 極爲浩大, 前僉正玄濟昇, 別看役加差下, 使之舉行, 何如? 傳曰, 允。

狀啓則以爲軍威丹城虛留十萬餘石燭湯而既無原穀則先自昨年耗條萬餘貫出方切憂問之際咸鏡道利原居幼學張世洽出義捐財納錢三萬兩以爲邑瀉穀耗條給代之資其在得勸之道合有履異之典褒賞一款令廟堂宜處笑能指家資願補耗費之缺意義嘉尚可與饑歲賑補無所異同如此人不吝無酬獎之舉先付加設六品職守令侍宴差送之意分付鈐書何如傳曰允○又啓曰山陵之役見今勿干而前此區劃米又已告罄正料無以繼給德廳米三百石御廳米三十同使之斯連輸送俾無窘給之數何如傳曰允○刑曹啓言有鄭寅教爲名者歸結碩博之類謂以替人洩憤欲推未營之錢及夫查指奸欺披露乃以扶難之計肆行無厭之習威脅嚇喝侵虐平民極矣固當依律勘斷而寅教係是正科出身依例移送義禁府勘處之意敢啓傳曰如此不法之類豈可以正科待之不必移送金吾仍令杜曹各別嚴刑遠惡地之配○大主地縱傳曰今因鄭寅教事有甲飭者矣近來官家下屬之甚藉怙勢體稱分付侵虐小民其弊不一隨其現發斷當嚴處而至若士夫家之私門持債尤極驕惡其爲某姓名不無人聞者如此之類豈可以去族視之乎各思自新世作盛世章物之意京兆五郎知委坊曲可也○山陵都監京郎廳摠護使意啓曰本都監役事極爲浩大前僉正玄濟昇別看役加差下使之舉行何如傳曰允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양성현감(陽城縣監) 1872[임신(壬申)] 9월(九月)

[관인정보]

- 관직명칭 양성현감(陽城縣監)
- 관직등급 현감(縣監)
- 관직이칭 적성현감(赤城縣監)
- 진관체제 수원(水原)
- 현대지명 안성군(安城郡)
- 부임년월 1872 [임신(壬申) 9월(九月)]

[도 정보]

- 도명칭 경기도(京畿道)
- 관할군현 33관(三十三官)
- 도구분 경기좌도(京畿左道)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삭녕군수(朔寧郡守) 1873[계유(癸酉)] 5월(五月)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C81CC2B9B1832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졸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관인정보]

• 관직명칭	삭녕군수(朔寧郡守)
• 관직등급	군수(郡守)
• 관직이칭	안삭군수(安朔郡守)
• 진관체제	장단(長湍)
• 현대지명	연천군(漣川郡)
• 부임년월	1873 [계유(癸酉) 5월(五月)]

[도 정보]

• 도명칭	경기도(京畿道)
• 관할군현	33관(三十三官)
• 도구분	경기우도(京畿右道)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적성현감(積城縣監) 1874[갑술(甲戌)] 2월(二月)

[관인정보]

• 관직명칭	적성현감(積城縣監)
• 관직등급	현감(縣監)
• 관직이칭	중성현감(重城縣監)
• 진관체제	양주(楊州) 어파(御把)
• 현대지명	파주시(坡州市)
• 부임년월	1874 [갑술(甲戌) 2월(二月)]

[도 정보]

• 도명칭	경기도(京畿道)
• 관할군현	33관(三十三官)
• 도구분	경기좌도(京畿左道)

[기타]

• 기타	삭녕환(朔寧換: 삭녕으로 교체되어 부임)
------	------------------------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관련정보]

[역과] [헌종\(憲宗\) 14년\(1848\) 무신\(戊申\) 증광시\(增廣試\) 2등\(二等\) 1위\(2/8\)](#)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삭녕군수(朔寧郡守) 1873[계유(癸酉)] 5월(五月)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양성현감(陽城縣監) 1872[임신(壬申)] 9월(九月)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적성현감(積城縣監) 1874[갑술(甲戌)] 2월(二月)

분 棻, 27세, 신천군수

제승(濟昇)의 아들, 1866년(고종3) 출생, 1880년 증광시 역관, 字는 元春, 신천군수를 지내서 조부 이래 3대가 수령을 지냈다. 1944년에 돌아가셨다.

[역과] 고종(高宗) 17년(1880) 경진(庚辰)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10위(28/42)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자(字) 원필(元苾)
- 생년 병인(丙寅) 1866년 (고종 3)
- 합격연령 15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제승(玄濟昇)[譯]
- 관직 : 교회(敎誨)
- 전공 : 한학(漢學)

[생부(生父)]

- 성명 : 현제만(玄濟晩)

[조부(祖父)]

- 성명 : 현일(玄鎰)[譯]

[생외조부(生外祖父)]

- 성명 : 김계술(金繼述)
- 관직 : 차상통사(次上通事)
- 본관 : 선산(善山)

[증조부(曾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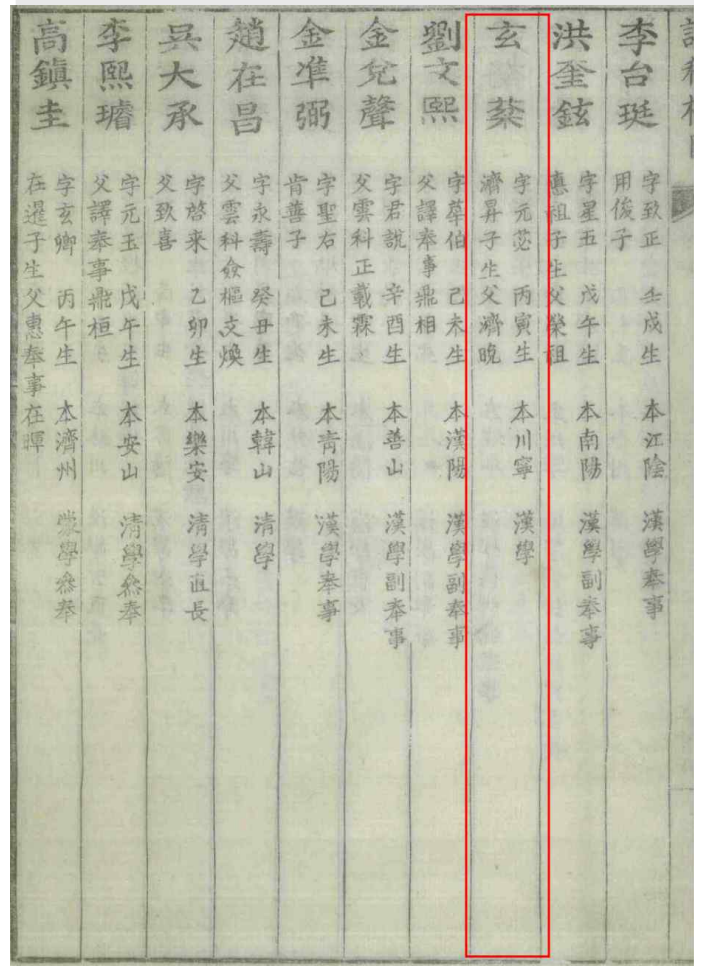
- 성명 : 현○○(玄○○)

[처부(妻父)]

- 성명 : 이응인(李應寅)[譯]
- 관직 : 교회(敎誨)
- 본관 : 금산(金山)

[이력사항]

- 선발인원 42명 [一等3 · 二等15 · 三等24]
- 전력 총민(聰敏)
- 전공 한학(漢學)



은 槩(隱), 27세, (1860~1934), 갑오경장 때 내아문 참서관, <美國獨立史(미국망국사)> 번역

현일(鎰)의 차남인 제장의 아들, 《중인내력의 약고(中人來歷의 略攷)》의 저자. 사역원에 근무한 후 1890년에 외아문의 주사가 되었다. 1895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내아문의 주사가 되고, 다음 해 초에 참서관에 승진했다. 총독부 시대에 관료를 계속했다. 총독부에서 특별조사국원으로 임명되고 1921년 중추원에 참의를 지냈다. 독립협회 초기에 현직 관료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연금(義捐金)을 냈다. 《美國獨立史(미국망국사)》(1907)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친일

[역과] 고종(高宗) 17년(1880) 경진(庚辰)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6위(24/42) • 자(字)원직(元直) • 생년경신(庚申) 1860년 (철증 11) • 합격연령21세 • 본인본관천녕(川寧) • 거주지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제장(玄濟章) [생부(生父)] • 성명 : 현제만(玄濟晩) [조부(祖父)] • 성명 : 현일(玄鎰)[譯].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재명(玄在明)[譯].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이에(李執) • 전공 : 역과(譯科) • 본관 : 금산(金山) [생외조부(生外祖父)] • 성명 : 김계술(金繼述) • 관직 : 차상통사(次上通事) • 본관 : 선산(善山) [처부(妻父)] • 성명 : 오영운(吳永運) • 관직 : 현감(縣監) • 과거 : 무과(武科) • 본관 : 해주(海州)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이력사항] • 선발인원42명 [一等3・二等15・三等24] • 전력우어신체아(偶語新遞兒) • 관직직장(直長) • 전공한학(漢學)
--	--

인명사전에 수록되어있다.

제보 濟普, 26세, 외교서 《동문휘고(同文彙考)》 등 편집, 간행. 崇政大夫, 군수 현일(鎰)의 삼남, (1835-?) 1882년에 조선 후기 대청(對淸) 및 대일(對日) 관계의 교섭 문서를 집대성한 책인 《동문휘고(同文彙考)》 속편의 편집간행을 맡았다. 외국어 수업을 위해서 역관들이 편찬하였던 외국어 학습서는 일본에서도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번안, 출판되고 개항 이후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또 현제보玄濟普(1835-?) 등이 편찬한 《同文彙考(동문휘고)》.《同文考略(동문고략)》등 한국의 외교사를 정리한 책은 지금도 귀중한 외교사 자료가 되고 있다.

1852년 사역원 체아(遞兒: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로 있다가 1854년 식년시 漢學에 합격하고, 후에 북경사행에 다녀왔다. 당시 조정에서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입각하여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항 후 일방적으로 들어오던 일본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修信使(수신사), 神士遊覽團(신사유람단) 領選使(영선사)와 같은 많은 사절이 해외에 파견되어, 그 영향에 따라서 개혁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과 같은 외교, 군무 등을 다루는 기관이 설치되었다. 종래와는 다른 외교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서 종래의 외교문서를 다시 정리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다. 통리기무아문은 1883년 1월 統理交涉通商事 務衙門(통리교섭통상사 무오문)으로 개칭되어 갑오개혁(1894년)까지 외교사무를 담당하였다. 통리기무아문에서는 통리사(經理事) 민태호(閔泰鎬)를 교정당상(校正堂上)으로 임명하여 《동문휘고(同文彙考)》를 속간하였다. 현제보는 그 공로로 正憲大夫(정헌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그 후 석달 만인 1882년 11월에는《同文考略동문고략》을 교정하여 崇政大夫(송정대부)로 품계가 올랐다. 이 책은 《동문휘고(同文彙考)》가 방대한 관계로 열람과 보관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것만을 뽑아서 분류한 책이었다. 다음 해인 1883년 2월에는《通文館志(통문관지)》를 교정한 노고로 崇祿大夫(송록대부)의 품계를 받고 군수로 발탁됐다. 조선이 전환기에 대처하여 외교관계 자료를 발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는 전문 역관들의 참여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공로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역과] 철종(哲宗) 9년(18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13위(25/28)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시숙(施叔) • 생년 을미(乙未) 1835년 (헌종 1) • 합격연령 24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28명 [一等3・二等9・三等16] • 전력 교회(敎誨) • 관직 첨정(僉正) • 관직 첨지(僉知) • 관직 부봉사(副奉事) • 전공 한학(漢學)

[부(父)]

- 성명 : 현일(玄鎰)[譯]
-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 품계 : 송록대부(崇祿大夫)
- 관직 : 현감(縣監)
- 관직 : 영부지추(永付知樞)
- 관직 : 교희(敎誨)
- 전공 : 한학(漢學)

[조부(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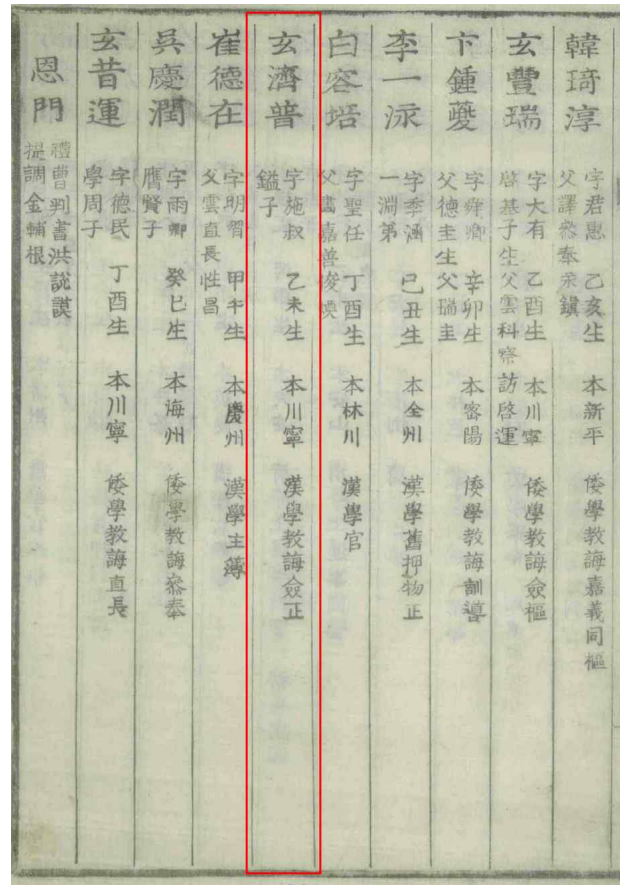
- 성명 : 현재명(玄在明)[譯]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玄○○)

[처부(妻父)]

- 성명 : 박유성(朴迪性)[譯]
- 관직 : 교희(敎誨)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무안(務安)



*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 : 개화사상의 한 형태로, 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근대적인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이론

* 수신사(修信使) : 구한말에 일본에 보내던 외교 사절, 1876년(고종 13년)에 통신사를 고친 것으로, 김기수·김홍집 등을 파견하였다.

* 신사유람단(神士遊覽團) : 1881년(고종 18년)에 새로운 문물제도의 시찰을 위하여 일본에 파견한 시찰단. 시찰단은 전문 위원인 열두 명의 조사(朝士)와 그 수행원을 합쳐 모두 6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 영선사(領選使) : 고종 때에, 신문화(新文化)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텐진(天津)에 파견한 사절, 김윤식을 대표로 한 청년 학도 69명은 신식 무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배우고 돌아왔다.

*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 구한말에 정치·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맡아보던 관아. 1880년(고종 17년)에 설치하였는데, 1882(고종19년)에 통리내무아문과 통리아문으로 나누었다.

* 동문취고(同文彙考) : 1784년(조선 정조 8년)에 정창순(鄭昌順)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외교 문서집. 승문원에 보관하고 있던 외교 문서인 조(詔), 자(咨), 표(表), 주(奏) 및 사신 별단(別單), 역관 수본(譯官手本) 따위에서 자료를 모아 엮었다. 129권 60책.

* 통문관지(通文館志) : 조선 숙종 때에, 김지남(金指南)이 사역원의 연혁과 중국 및 일본과의 통교에 관한 사적(事跡), 의절(儀節) 따위를 기록한 책. 1881년(고종 18년)에 중간하였다. 12권 6책.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7년 경진 > 7월 29일 >
 고종 17년 경진(1880) 7월 29일(을미) 맑음
 17-07-29[85] 이정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이정규(李廷珪)를 겸사복장으로, 원우상(元禹常)·이봉호(李鳳鎬)를 선전관으로, 이강현(李康鉉)을 안동 영장으로, 오중선을 혜산 첨사로 삼았다. 대호군에 윤자승(尹滋承)·남정순(南廷順), 호군에 서경순(徐璟淳)·신석년(申錫年), 부호군에 홍만식(洪萬植)·김홍집(金弘集)·홍영우(洪永禹)·이만교(李萬敎), 부사직에 오상현(吳尙鉉)·임익증(林翊曾)·송상순(宋祥淳)·한용규(韓龍珪), 이상을 모두 단부하였다. 유헌주(劉憲柱)를 동지중추부사로, 곽유(郭瑜)·강석황(姜錫璜)·김규영(金奎榮)·현재보(玄濟普)를 오위장으로 삼았다.

○ 以李廷珪爲兼司僕將, 元禹常·李鳳鎬爲宣傳官, 李康鉉爲安東營將, 吳仲善爲惠山僉使。 大護軍尹滋承·南廷順, 護軍徐璟淳·申錫年, 副護軍洪萬植·金弘集·洪永禹·李萬敎, 副司直吳尙鉉·林翊曾·宋祥淳·韓龍珪, 以上竝單付。 劉憲柱爲同知, 郭瑜·姜錫璜·金奎榮·玄濟普爲五衛將。

南圭張元善爲主夫加設同知單高宗錫 韓龍敎以兵批言 啓曰黃海水使今當差出而擬望之人之火他道防禦使並擬何如 傳曰允 以朴舜文爲同知鄭學淳爲訓鍊判官李興權爲訓鍊主簿金高倬爲主簿金會爲黃海水使同知單丁仁敎李恒儀爲洪州營將朴宗東爲清州營將李東德爲忠州營將張斗煥爲羅州營將梁弼煥爲京畿中軍 傳于韓龍敎曰惠山僉使之代咸鏡中軍吳仲善擬入 韓龍敎以兵批言 啓曰惠山僉使吳仲善擬入事命下矣以前任固城府使方在解由未出中何以爲之敢稟 傳曰勿拘 以李廷珪爲兼司僕將元禹常·李鳳鎬爲宣傳官李康鉉爲安東營將吳仲善爲惠山僉使大護軍尹滋承·南廷順護軍徐璟淳·申錫年副護軍洪萬植爲忠州營將李東德爲慶尚右兵使洪州營將李恒儀清州營將朴宗東忠州營將李東德羅州營將張斗煥京畿中軍梁弼煥已上今加折衝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풍덕군수(豐德郡守) [미상(未詳)]

[관인정보] • 관직명칭 풍덕군수(豐德郡守) • 관직등급 군수(郡守) • 관직이칭 설성군수(雪城郡守) • 진관체제 장단(長湍) • 현대지명 개풍군(開豐郡) • 군현기타 다시 설치[복설(復設)] • 부임년월 [미상(未詳)] [도 정보] • 도명칭 경기도(京畿道) • 관할군현 33관(三十三官) • 도구분 경기우도(京畿右道)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인물요약] • UC1 G002+AKS-KHF_13D604C81CBCF4B1835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졸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	---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황해도(黃海道) 평산부사(平山府使)

--

[관인정보]

- 관직명칭 평산부사(平山府使)
- 관직등급 부사(府使)
- 제수년월 1884 [갑신(甲申) 5월] 배(拜: 벼슬을 내려줌)
- 부임년월
- 교체년월

[도 정보]

- 도명칭 황해도(黃海道)

[비고]

- 비고 고종 21년(高宗二十一年) 갑신(甲申) 5월 26일 정이옹천부사상환(政以龍川府使相換)
갑신(甲申) 12월 28일 이조이신병계청파출전왈장단부사상상환(吏曹以身病啓請罷黜傳曰
長湍府使相相換)
「일기(日記)」

[기타]

- 기타 자이주성지민영은무사실고참고타서약기(自李周聖至閱泳殷無事實故參考他書畧記)

[출전]

『평산부선생안(平山府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古2517-294])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평안도(平安道) 용천부사(龍川府使) [미상(未詳)]

[관인정보]

- 관직명칭 용천부사(龍川府使)
- 관직등급 부사(府使)
- 관직이칭 안흥부사(安興府使)
- 진관체제 의주(義州) 별전영장(別前營將)
- 현대지명 용천군(龍川郡)
- 부임년월 [미상(未詳)]

[도 정보]

- 도명칭 평안도(平安道)
- 관할군현 42관(四十二官)
- 도구분 평안북도(平安北道)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관련정보]

[\[역과\] 철종\(哲宗\) 9년\(18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13위\(25/28\)](#)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황해도(黃海道) 평산부사(平山府使)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평안도(平安道) 용천부사(龍川府使) [미상(未詳)]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풍덕군수(豐德郡守) [미상(未詳)]

제창 濟昶, 26세, 직산현감, 군위현감, 인제현감, 독립협회 중심인물

현일(鎰)의 오남, 1859년 현일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역과(譯科)에는 들지 않았고, 중추원(中樞院)의관(議官)을 지냈다. 1882년 12월 문학관, 1883년 10월 전설사 주부, 1884년 정월, 8월에 각각 통예원 인의와 빙고별제, 1885년 4월에 직산현감 제수, 1886년 5월에 군위현감, 같은 해 7월에 인제현감에 제수되었다.

* 중추원(中樞院) : 왕명의 출납·군정(軍政)·숙위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의관(議官) : 중추원에 속한 벼슬. 뒤에 찬의(贊儀)로 고쳤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0년 계유 > 10월 6일 >

고종 10년 계유(1873) 10월 6일(신사) 맑음

10-10-06[14] 병비의 관원 현황

○ 병비(兵批)에, 판서 서상정(徐相鼎)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판 이하 및 승지는 - 원문 빠짐 - 이인필(李仁弼)을 서천 첨사(舒川僉使)로, 이기묵(李基默)을 양화도 별장(楊花渡別將)으로, 신영록(申永祿)을 백마 별장(白馬別將)으로 삼았다. 판중추부사 가설에 정건조(鄭健朝)를 단부하고, 부사용에 민치헌(閔致憲)을 단부하고, 부사용 열여섯 자리에 이국현(李國鉉)·이방현(李邦鉉)·김철련(金徹鍊)·이식주(李寔柱)·정중일(鄭重侁)·백유용(白維鏞)·이해달(李海達)·**현보건(玄輔健)**·이효선(李孝善)·박지영(朴智榮)·김문현(金文顯)·진희완(秦喜完)·박용보(朴鏞黼)·이흥선(李興善)·**현제창(玄濟昶)**·안두영(安斗榮)을 단부하였다.

野君宗正卿例兼長川君善生嫡衆曾孫贈君事承傳禮山守李
絀昌贈禮山君宗正卿例兼茂林君善生嫡衆孫贈君事承傳
寧海副守李義年贈寧海君宗正卿例兼茂林君善生嫡衆
曾孫贈君事承傳眺山副守李克贈眺山君宗正卿例兼順和
君壯嫡衆孫贈君事承傳學生尹景東贈戶參例兼尹得春贈
左承旨尹淵贈僕正已上同知尹佐烈三代學生曹潤國贈戶參
例兼曹遠福贈左承旨曹善貴贈僕正已上同知曹昌鳳三代學
生李米運贈戶參例兼李寅芝贈左承旨李萬曹贈僕正已上同
知李源模三代學生李啓順贈童教孝行卓異贈職事承傳○
兵批判書徐相鼎未開拜參判以下及承旨缺○以李仁弼爲舒川
僉使李基默爲楊花渡別將中永祿爲白馬別將判府事加設單
鄭健朝副司勇閔致憲副司勇十六年李國鉉李邦鉉金徹鍊
李寔柱鄭重侁白維鏞李海達玄輔健李孝善朴智榮金文顯
秦喜完朴鏞黼李興善玄濟昶安斗榮○宣忠廳 啓曰觀此
京畿監司金在顯狀 啓則故舉南陽府使李容儀贈呈以爲慶
尚道後贈張字 宣禮殿 慶上納後回還之路到本府靈輿與致

독립협회 회원을 지냈다. 러시아의 조선침투가 노골화되면서 독립협회는 1898년을 전후, 과거의 계몽운동에서 침략에 반대하는 정치개혁 운동노선으로 전환하였다. 玄濟昶(1859-?)과 玄公廉(헌공렴)은 후반기에 활동하였다. 헌제창은 황실에서 협회를 탄압할 때 구속되고, 헌제창도 일본으로 망명하고, 관직을 거부하고 독립협회의 중심인물이 되어 재야에서 정치활동가가 되었다. 제창은 독립협회에 가입,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1898년 11월 4일 다른 독립협회 간부 16명과 함께 정부에 체포되었다. 헌제창은 1904년 일본에 있는 박영효와 관계를 맺고 국내에 잠입하여 평양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 독립협회(獨立協會) : 건양 원년(1896) 7월에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등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내정 개혁을 위하여 조직한 정치·사회 단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문을 건립하였으며, 1898년에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고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황제에게 주청하는 등의 활동을 펴다가 1899년 해산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헌씨 집안의 많은 인물이 독립협회에 참여했다. 玄采(채), 玄公廉(공렴) 父子와, 玄濟昶(제창) 玄楯(순) 父子, 玄濟旭(제욱), 玄濟復(제복), 玄隱(은) 등이 다수 참여하여 한 집안으로서는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갑오개혁기에 헌제복(濟復)과 헌은(隱) 같은 관료 출신 헌씨 집안 인물들이 초기 독립협회 운동에 참여하여 계몽운동을 한 반면, 1898년 이후 후기 개혁운동기에 玄濟昶(1859~)과 玄公康은 적극 참여하여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고 민권운동에 앞장섰다.

순 栢(循), 27세, 제창의 아들,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외무차장, 내무부차장, 특파원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가담하였으며, 외무차장, 내무부차장, 특파원으로 활동한 개신교인, 독립운동가이다. 1880년(고종 17)에 태어났으며 어려서 한문을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育英公院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중퇴했다. 해외에 유학한 후 목사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산파 역할을 맡았으며, 하와이에 가서는 상해 임정의 모금을 맡고, 김구의 임정에 지원을 다했다. 일명 송원상(宋元相)으로도 불렸다. 育英公院은 1880년대에 역관 양성과 신식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 후 그는 독립협회에 가담, 서재필의 지지자가 되고 이승만과 교분을 나누었다.

* 육영공원(育英公院) : 구한말의 교육 기관. 1886년(고종 23년)에 나라에서 세운 최초의 현대식 학교로,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수학·지리학·외국어·정치 경제학 따위를 가르쳤는데, 한국 현대식 공립 학교의 효시이다. 1894년(고종 31년)에 폐지되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1899년 일본 유학을 떠나 順天堂高校에 입학하여 세계사 등 근대 과목을 공부하였다. 1901년에는 침례교 선교사 Fish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학비 부족으로 인하여 귀국하였다. 유학에서 돌아온 헌순(楯)은 한국인들의 해외 이민을 추진하던 東亞

開發會社(동아개발회사)에 들어가 실무를 맡고, 한국인 이주에 감독 겸 통역으로서 1903년 하와이로 건너갔다. 현순은 <신정영어입문新訂英語入門>이라는 영어교재를 발간하고 《포혜유람기(布鞋遊覽記)>를 통해 하와이를 태평양의 낙원으로 표현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1907년 이후 그는 기독교 목사로서 상동교회(上同教會) 등에서 종교활동에 전념하였다. 1914년부터 다음 해까지는 정동교회 제5대 목사를 지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목사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평화회의가 열리는 중국 상해에 밀파되어 대외 연락 및 홍보를 맡았다. 이때 이승훈 등이 보내온 독립선언서 및 독립탄원서를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Wilson T. W.)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다. 그래서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에게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래서 한국독립을 찬성하도록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과 파리의 통신연락을 취하였다. 3.1운동 이후 국내외의 독립지사가 상해에 모이자, 이광수(李光洙)·선우 혁(鮮于赫) 등과 함께 프랑스 조계 바오창로(寶昌路)에 임시독립사무소를 개설하고, 총무로 위임받아 각국에 독립선언서를 발부하였다.

같은 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13도 대표의 국민대회에서 평정관(評政官)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0일 이동녕(李東寧)·손정도(孫貞道) 등 29명과 함께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조소앙(趙素昂)·남형우(南亨祐)·이시영(李始榮)·한기악(韓基岳) 등이 기초한 임시헌장 10개 조를 통과시킴으로써 4월 13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외무차장이 되었으며, 그 뒤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외무위원에 선임되었다.

같은 해 8월 5일 내무부 차장에 임명되었으며, 9월 20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파원으로 노령(露嶺)·만주 등지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병조 등과 대한기독교연합회 대표로서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국제연맹에 제출하기도 했다.

1920년 4월 21일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안현경(安顯景)과 함께 상해를 떠나 미국 뉴욕에 도착하여, 구미위원부 위원장서리에 추대되어 모금 활동과 함께 외교공세를 펴기도 하였다. 1922년 7월 안창호(安昌浩)·이동녕(李東寧)·김구(金九)·차리석(車利錫)·여운형(呂運亨)·이시영·노백린(盧伯麟)·홍진(洪震) 등 10여 명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외곽단체인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여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

1934년 이후에는 임시정부를 위한 모금 운동에 하와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와같이 한국인들의 초기 하와이 이민 및 교포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상해 임정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면서 미국과 상해를 왕래하며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중심 역할을 하였다. 임정의 주미 전권대사로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승인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옛 소련으로 건너가 레

닌과도 담판을 벌였다. 1920년대 이후 이승만과는 간격을 갖고, 사회주의 성향을 띠었다. 광복 후 미군정을 거부하고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요구했던 그는 광복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귀국 수속을 밟다가 미군정을 지지하겠다는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출국비자를 받지 못했다. 1950년도 한국동란 때는 LA 등지에서 미군의 무차별공습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1968년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막내아들 데이비드 현(미국 로스앤젤레스)이 부친이 남긴 1만5000쪽 분량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이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한국 정부와 학계가 독립운동사의 가려진 부분을 밝혀내고 현순 목사의 공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https://www.newspower.co.kr/42191>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040421/8053468/1>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독립유공자공훈록』5(국가보훈처, 1988)/『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독립운동사자료집』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독립운동사』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원호회, 1956)/『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앨리스 현, 28세, 박헌영 애인, 마타하리

순(杓)의 맏딸, 1903년에 태어나셨다.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의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군 장교(중위)로 복무. 광복 후 미군정 장교로 다시 한국 땅을 밟지만 부친 때문에 미군정에 의해 강제 전역당한 뒤 1948년 북한행을 선택. 훗날 간첩 혐의로 1955년에 박헌영과 함께 북에서 처형됐다.

준섭 駿燮, 28세, 피터 현(Peter Hyun), 재미 작가

독립협회 회원 玄濟昶(현제창)의 손자, 순(杓)의 아들, 1906년에 태어나셨다. 특출한 정치적 행동가이며 청교도 목사, 1920년에 미국에 이주하여 외국에서 생애를 보냈다. 1946년 미군정 소속 미 육군 소령으로 모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인으로선 최고위급 장교였다. 그러나 그 역시 누나와 함께 강제 전역당한 뒤 미국 연극계에 투신한다.

그의 부친 현순(楯)의 독립투쟁에 대한 기억과 증언인《MANSEI!》라는 책에서 그는 망명 생활 중의 독립운동의 험난한 목격 체험을 기록하였다.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영감이 1970년대에 부친의 유골을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치하고 돌아온 데서 비롯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의 부모에 대한 찬사로서 그는 애국심의 강조를 들었다. 일제의 강점기의 고난 시절에 그는 너희들은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조국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며, 대한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 하라고 배웠다. 그는 이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MANSEI!》라는 책 속에서 스스로 외교관 가문 출신임을 자처하였고 후에 기독교 방면에 종사했다. 1993년에 돌아가셨다.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1계근-1후-1재명-2석 계系

석 錫, 25세, 자 영재(永哉), 재명의 차남, 현일(鎰)의 동생, 무과(武科) 절충(折衝) 가덕첨사(加德僉使)를 역임했다.

제인 濟仁, 26세, 무과(武科) 절충(折衝) 오위장(五衛將)

석(錫)의 아들, 1820년에 태어나셨다. 자 인강(人綱), 무과(武科) 절충(折衝) 오위장(五衛將)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1계근-1후-2재덕 계系

재덕 在德, 24세, 후의 차남, 지중추부사(정2품), 문인, 서예가, 엄산(弇山)일기

조선 후기의 문인. 서예가이다. 1771년(영조 47년) 태어나셨으며 호는 엄산(兪山)이다. 사자관(寫字官) 김천수(金天秀)의 외손이다. 1790년(정조 14년) 의과(醫科)에 급제하여 장영감서(壯營監書)를 거쳐 지중추부사(정2품)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써서 정조로부터 벼루를 하사받았으며, 한때 편장(扁障)·비판(碑版)을 많이 썼다고 한다. 특히 초서에 뛰어났는데, 속도감이 넘치는 독특한 운필(運筆)로 일가를 이루어 엄산체라 불렸다. 우리나라의 옛 글씨를 모사하여 『초휘(草彙)』를 편집하였는데, 그 내용이 충실하여 신위(申緯)·김정희(金正喜)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의과] 정조(正祖) 13년(17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1위(2/9) • 초명(初名)현응원(玄應遠) • 자(字)사열(士說) • 생년신묘(辛卯) 1771년 (영조 47) • 합격연령19세 • 본인본관천녕(川寧) • 거주지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후(玄煥)[譯] • 관직 : 교회(敎誨) • 관직 : 지추(知樞)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현계근(玄啓根)[譯] • 관직 : 지추(知樞) • 관직 : 지사(知事) • 전공 : 역과(譯科)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심(玄深) • 관직 : 사역원판관(司譯院判官) [외조부(外祖父)] • 성명 : 김천수(金天秀) • 관직 : 동지(同知) • 본관 : 선산(善山) [처부(妻父)] • 성명 : 이명존(李命存) • 관직 : 찬의(贊儀) • 본관 : 경주(慶州)	『의과방목(醫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古朝26-19]) [이력사항] • 선발인원9명 [一等1・二等3・三等5] • 전력내의(內醫) • 관직지추(知樞) • 관직수의(首醫) • 관직감서(監書) • 관직첨절제사(僉節制使)
---	--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9년 임진 > 윤6월 16일 > 고종 29년 임진(1892) 윤6월 16일(임신) 맑음

○ 한용덕(韓用德)을 동지돈녕부사로, 백남용(白南鏞)을 돈녕부 도정으로, 신병우(愼炳佑)를 병조 참의로, 김귀좌(金龜佐)를 감찰로, 장렬(張烈)을 평시서 주부로, 양낙준(梁洛俊)을 장진 부사(長津府使)로, 김정일(金正鎰)을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현재덕(玄在德)**을 고양 군수(高陽郡守)로, 임남수(林南洙)를 용담 현령(龍潭縣令)으로, 노관수(盧觀洙)를 만경 현령(萬頃縣令)으로, 송두옥(宋斗玉)을 제주 판관(濟州判官)으로, 김순룡(金舜龍)을 목천 현감(木川縣監)으로 삼았다. 겸설서에 오형근(吳衡根)을 단부하고, 홍문관 정자에 오형근(吳衡根)을 단부하였다.

〈○〉 有政。 吏批, 行判書李承五, 參判趙秉弼竝牌招不進, 參議韓光洙進, 同副承旨洪鍾榮進。 以吏批言啓曰, 行判書李承五, 參判趙秉弼竝牌招不進,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以韓用德爲同敦寧, 白南鏞爲都正, 愼炳佑爲兵曹參議, 金龜佐爲監察, 張烈爲平市主簿, 梁洛俊爲長津府使, 金正鎰爲豐基郡守, **玄在德**爲高陽郡守, 林南洙爲龍潭縣監, 盧觀洙爲萬頃縣令, 宋斗玉爲濟州判官, 金舜龍爲木川縣監。 兼說書單, 吳衡根, 弘文正字單, 吳衡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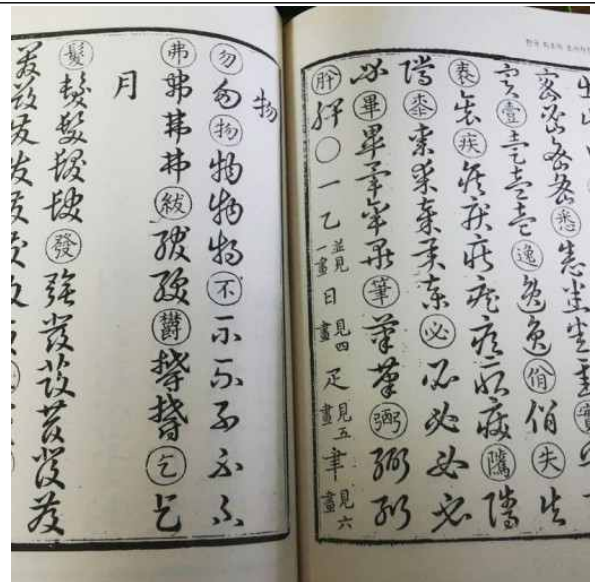
光緒十八年壬辰閏六月十六日 晴
行都承旨金明圭病
行左承旨李根命病
行右承旨徐曾淳病
左副承旨權 瀾 副院進
右副承旨鄭寅龍未前拜
同副承旨洪鍾榮坐直
上在景福宮停常泰 經筵 傳于洪鍾榮曰兼說書有關之代前堂單子人之篇說書前堂單子入之吳衡根落洪鍾榮 啓曰新除授兼說書吳衡根政官牌招閣下批何如 傳曰允 傳于洪鍾榮曰在外同敦寧敦寧都正許逵今日政差出兵曹口傳政事副護軍堂人晚秀洪鍾榮以吏曹言 啓曰長津都護府使洪御高陽郡守姜燦永豐基郡守金熙元濟州判官安承觀朴應監崔基柱龍潭縣令李台積萬頃縣令金正兩俱以身病呈狀乞遼並改差何如 傳曰允有政吏批行判書李承五參判趙秉弼並牌招不進小臣獨政未安何以爲之敢 稟 傳曰只出緊任以韓用德爲同敦寧白南鏞爲都正愼炳佑爲兵曹參議金龜佐爲監察

張烈爲平市主簿梁洛俊爲長津府使金正鎰爲豐基郡守玄在德爲高陽郡守林南洙爲龍潭縣監盧觀洙爲萬頃縣令宋斗玉爲濟州判官金舜龍爲木川縣監兼說書單吳衡根弘文正字單吳衡根 兵批行判書閔泳韶病參判李容和病參議宋差參知李氣榮進同副承旨洪鍾榮進護軍朴鳳彬朴成鎮副護軍趙東聖朴齊環徐相耆柳基天鄭慶煥朴梁壽韓承駿副司正梁憲鎰上單付吏批再政以金南圭爲同成均金鎮根爲監察林正洙爲尚衣主事李命炎任起竊爲濟寧院事韓錫權爲典簿分監後單姜炯才洪鍾榮 啓曰行都承旨金明圭行左承旨李根命行右承旨徐曾淳不爲任進左副承旨權瀾副院進同副承旨朴齊環在外院中只有臣一人伴直無人左副承旨所當牌招而拘於廳規不得請牌何以爲之敢 稟 傳曰牌招又 啓曰新除授同副承旨朴齊環時在忠清道河川地斯速乘馬上東事下諭何如 傳曰許通前堂單子入之承宣前堂單子之鄭寅龍落點洪鍾榮以吏曹言 啓曰下番閣直事甚未安副修撰李範贊辭受由修撰金奎序李家副修撰李炳城并即牌招推移入直何如 傳曰允 又以弘文館言 啓曰副修撰李範贊辭受由修撰金奎行李家副修撰李炳城有身病下番閣直事甚未安應教鄭承鉉副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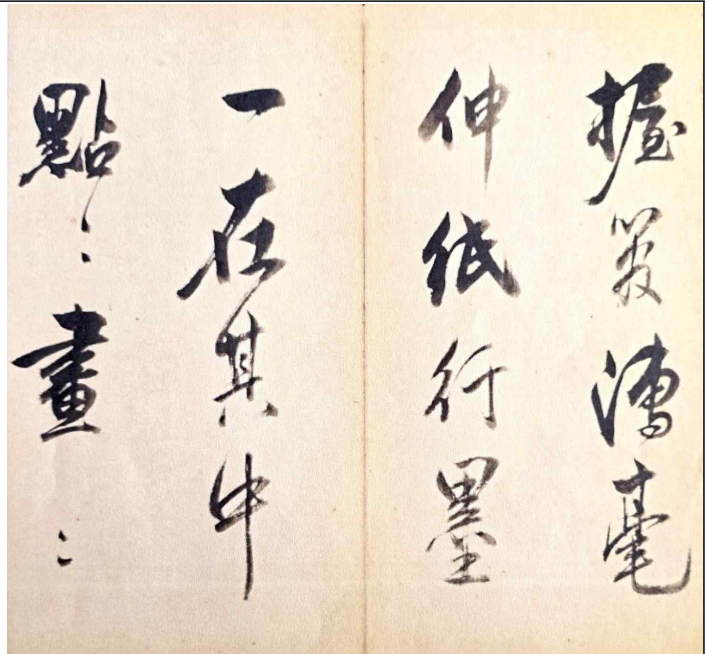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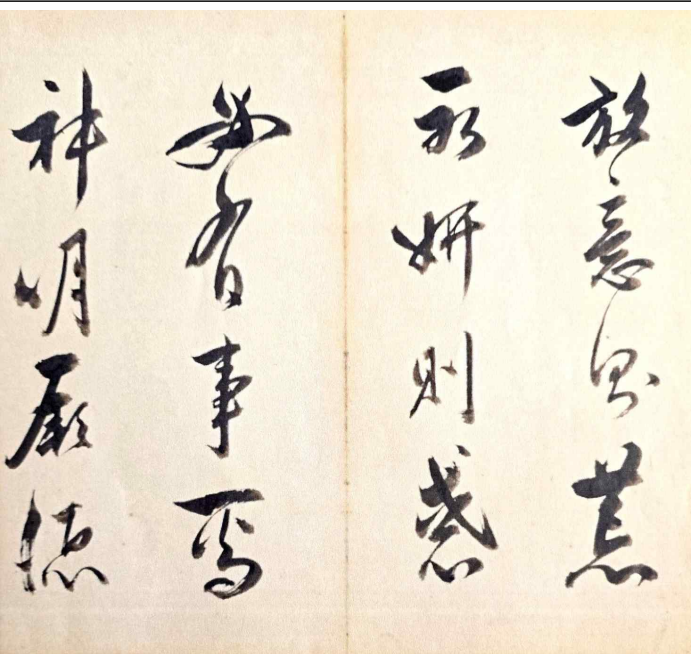
* **임산일기(兪山日記)** : 19세기 전반기 의관(醫官) **玄在德(1771~?)**이 時憲曆의 공란에 간단하게 쓴 일기이다. 19세기 전반 의관의 동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觀象監에서 간행한 시헌력에 기록했다. 시헌력은 우리나라에서는 1653년(효종 4)부터 사용되던 역법으로, 太陰曆에 太陽曆의 원리를 적용하여 24절기의 시작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이다. 본서는 이런 시헌력에 중간중간 찬자의 공사 일과와 관련된 것을 간단히 기록한 일기이다. 1802~1833년(순조 2~33)의 기록으로, 대부분은 시간 순서로 편제되었으나 간혹 시간의 순서가 혼재된 경우도 있다. 내용은 공사에 걸쳐 여러 내용이 수록되었다. 먼저 공적인 내용으로는 “赴院”이라 하여 찬자가 관청에 출근했음을 기록하거나, 왕실의 행사를 비롯해 “朝夕問安” 또는 “日次問安進”이라 하여 국왕의 문안에 참여했다는 내용, 進御한 탕제, 提調나 副提調의 차출 등을 비롯해 王世子를 隨駕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적으로는 자기 집안의 忌祭나 朔望祭, 墓祭 등 제사를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시기 기록에는 난외 상단에 해당 일자의 日氣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1818년(순조 18)의 일기는 다른 해의 일기가 주로 본문에 기록한 것과는 달리 시헌력 뒤쪽에 별지를 첨부하여 따로 일정을 기록하였다. 한편 기록 내용이 국왕에 대한 문안 기록과 진어한 탕제

기록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내의원 소속 관원의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작성자와 관련해서 간혹 표지에 ‘依松亭’이라는 표기가 눈에 띈다. 현재로는 ‘의송정’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며, 다만 내의원과 관련되어 ‘엄산’이라는 호를 가진 이 아닐까 추정된다.

참고문헌 :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오세창, 계명구락부, 1928)



한국 최초의 초서사전 초취(草彙)



握管濡毫,伸紙行墨 一在其中,點點劃劃 放意則荒,取妍則惑 必有事焉,神明 德。	붓을 잡아 털을 적시고 종이를 펼쳐 글씨를 쓰면 오로지 그 마음 한 가운데 있어 점과 획을 만든다. 뜻이 방종하면 거칠고 연미함을 취하면 미혹되니 반드시 일이 여기 있게 하면 정신이 그 덕을 밝힌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송나라 주자의 서자명(書字銘; 비문이나 기념비에 새겨진 글)	



십죽재화보(十竹齋畫譜)를 모사한 현재덕의 그림
십죽재화보(十竹齋畫譜) : 중국 명나라의 호정언(胡正言, 1584-1674)이 1627년에 간행한 목판 화보로, 중국 판화사에서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이 화보는 서화보, 묵화보, 과보, 영모보 등 여덟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는 그림 20폭과 해설 20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에 유입된 뒤 정선, 심사정, 강세황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군자화와 채색법 발전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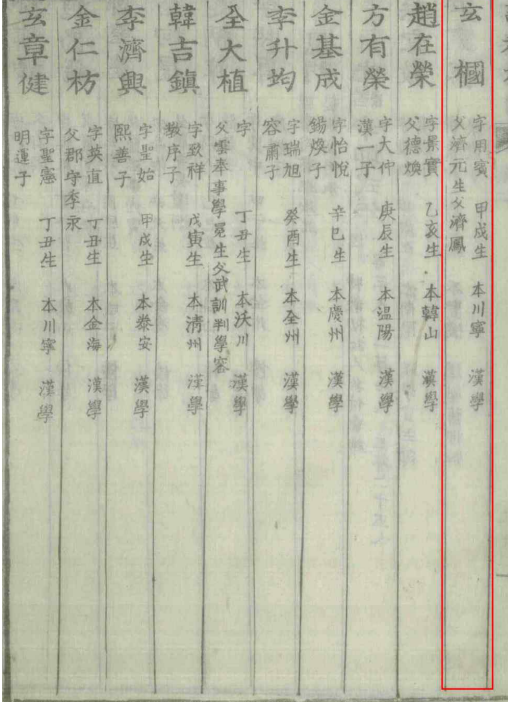
제원 濟元, 26세, 1830년 생, 재덕의 손자, 가선嘉善 동추同樞, 생부 탁(鐸)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6년 기사 > 9월 8일 > 최종정보 고종 6년 기사(1869) 9월 8일(병자) 맑음 06-09-08[15] 김병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김병시(金炳始)를 도총관으로, 조응하(趙應夏)를 내금위장으로, 최호진(崔好鎭)과 현재원(玄濟元) 을 오위장으로, 김윤琦(金潤琦)·이은수(李殷洙)를 창덕궁 위장으로, 박진규(朴鎭圭)를 경희궁 위장으로, 조희완(趙義完)을 도총부 경력으로, 유기동(柳冀東)을 도사로, 이인만(李寅晩)과 조한익(趙漢益)을 문신검선전관으로, 김준현(金駿鉉)을 부장으로, 송태옥(宋泰玉)을 진주 영장(晉州營將)으로, 서우순(徐瑠淳)을 전주 영장으로, 김두준(金斗準)을 덕진 만호(德津萬戶)로 삼았다.	
○ 以金炳始爲都摠管, 趙應夏爲內禁將, 崔好鎭·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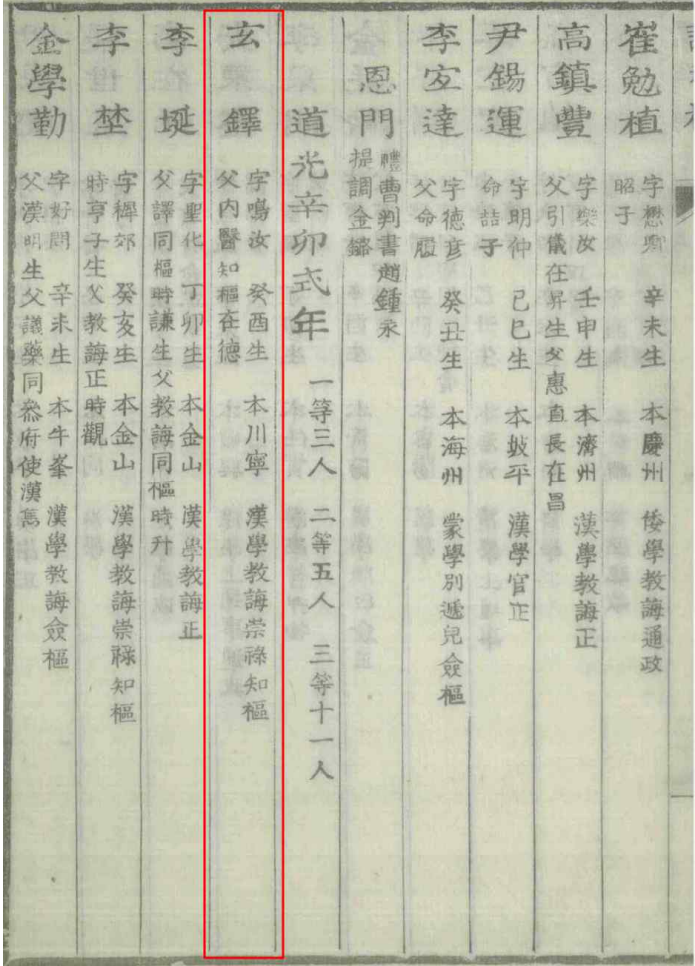
濟元爲五衛將，金潤琦·李殷洙爲昌德將，朴鎮圭爲慶熙將，趙義完爲都摠經歷，柳冀東爲都事，李寅晚·趙漢益爲文兼，金駿鉉爲部將，宋泰玉爲晉州營將，徐瑀淳爲全州營將，金斗準爲德津萬戶，兪知二單趙應夏·玄濟元，副摠管單金炳始。三政。以蔡奎常爲宣傳官，李重億爲武兼，同知單金潤琦。四政。以李朋來爲都摠經歷，同知單李殷洙。五政。以李昌權爲都摠都事，同知單朴鎮圭。六政。以申贊熙爲訓練主簿。七政。以朴嶠秉爲部將。

推○有政吏批行判書南世元進奏判金基繼奏議洪鍾軒留格不進
以李曾翼爲大司憲朴定陽羅米五爲掌令韓錫權爲持平李寅晚爲
獻劄金裕衍爲副應教李參鉉爲刑曹判書金元植爲刑曹參判鄭道南
爲左尹朴孝正爲右尹南綺元爲敦寧都正韓敦源爲禮曹參議具春善
爲宗室參議李翔俊爲宗室參知李源鼎爲右通禮朴齊性爲替儀柳華天
爲監察吳徽相爲司諫官李麟奎爲元陵別檢金奎軾爲南都部事
李稷重爲居村參訪金羅監司徐相鼎長淵府使李昌鎬已上始爲仍任事
承傳南縣監南啓定李鉉正已上今加通政加資事承傳再政以李客萬
爲字府正李殿春爲司成林昌熙爲典籍玄錫爲典設別提丁大永爲引儀
趙熙軾爲尚衣別提安必良爲懿昭差守衛官承文著作第李繼主學童
崔應珪學錄第白時範學諭一第宋洪中有翳校書副正字第姜永
壽故學生趙最珠曹命瀾徐聖輔徐東輔朴柱世已上贈童教故學生
安養攝贈戶佐已上孝行卓異贈職事承傳故郡守李應星贈兵參例
鄭忠節卓異贈職事承傳○兵批判書李景夏進○兵批判書金潤琦
將今當差出而擬望之人不少未準相第軍將并擬何如傳允○以金炳始
爲都摠管趙應夏爲內學將崔好鍊玄濟元爲五衛將金潤琦李殷洙爲

귀 櫚, 27세, 1874년 생, 재덕의 증손자, 역과(譯科)한학(漢學)

[역과] 고종(高宗) 28년(189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1등(一等) 3위(3/35)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자(字) : 용빈(用賓) · 생년 : 갑술(甲戌) 1874년 (고종 11) · 합격연령 : 18세 · 본인본관 : 천녕(川寧) · 거주지 :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제원(玄濟元) [생부(生父)] · 성명 : 현제봉(玄濟鳳) [조부(祖父)] ·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玄○○) [이력사항] · 선발인원 : 35명 [一等3 · 二等7 · 三等25] · 전공 : 한학(漢學)	

탁 鐸, 25세, 재덕의 아들, 1813년 생. 1831년 식년시 장원, 청나라 외교 사행 역관, 석번(石樊)일기 저자

[역과] 순조(純祖) 31년(183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1등(一等) 1[壯元]위(1/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자(字) 명여(鳴汝) 생년 계유(癸酉) 1813년 (순조 13) 합격연령 19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u>현재덕(玄在德)</u>[<u>醫</u>] · 품계 : <u>자헌대부(資憲大夫)</u> · 관직 : <u>내의(內醫)</u> · 관직 : <u>지추(知樞)</u> · 전공 : 의과(醫科) [조부(祖父)] · 성명 : <u>현후(玄婁)</u>[<u>譯</u>] [증조부(曾祖父)] · 성명 : <u>현○○(玄○○)</u> [외조부(外祖父)] · 성명 : <u>박사필(朴思弼)</u> · 관직 : <u>군수(郡守)</u> · 과거 : <u>무과(武科)</u> · 본관 : <u>밀양(密陽)</u> [처부(妻父)] · 성명 : <u>이중려(李鍾呂)</u>[<u>醫</u>] · 관직 : <u>내의(內醫)</u> · 관직 : <u>정(正)</u> · 전공 : 의과(醫科) · 본관 : <u>정읍(井邑)</u>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 · 二等5 · 三等11] · 품계 <u>송록대부(崇祿大夫)</u> · 품계 <u>가선대부(嘉善大夫)</u> · 관직 <u>교회(敎誨)</u> · 관직 <u>지추(知樞)</u> · 관직 <u>첨정(僉正)</u> · 전공 한학(漢學) 

환 桓, 27세, 재덕의 증손자, 1878년에 태어났다.
 玄桓은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광무개혁후 시위대 등에서 활약하였다.

희남 熙男, 29세, 1944년갑신(甲申)생, 아시아나항공사 기장, 대중회 부회장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1계근-1후-3재신 系系

제복 濟復, 26세, 합천군수(陝川郡守), 농상공부 참서관, 독립협회 간사원, 위원
호는 우당(藕塘), 1845년에 태어났다. 1871년에 주학, 1874년 증광시 역과에 합격하고 산원과 역관으로 일했다. 합천군수(陝川郡守)를 지냈다. 1895년 농상공부에서 주사를 거쳐서 15년간 근무하여 1905년 참서관으로 임명되었다. 독립협회 창립초기 간사원과 위원을 지내고 계몽운동기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부(복)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는 상공업을 비롯한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취재] 고종(高宗) 8년(1871) 신미(辛未) 주학(籌學) ○○위(1/○○) - 자(字) 원례(元禮) - 생년 을사(乙巳) 1845년 (현종 11) - 합격연령 27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묵(玄默) - 관직 : 인의(引儀) - 관직 : 참방(察訪) [조부(祖父)] - 성명 : 현재신(玄在愼)[譯] - 관직 : 주부(主簿) - 과거 : 역과(譯科)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후(玄煥)[譯] - 관직 : 지주(知樞) - 과거 : 역과(譯科) [외조부(外祖父)] - 성명 : 변석규(卞錫圭) - 본관 : 초계(草溪)【補】 - 관직 : 참봉(參奉) - 과거 : 역과(譯科) [처부(妻父)] - 성명 : 이해두(李海斗)[義] - 본관 : 정읍(井邑)【補】 - 관직 : 주학교수(籌學敎授) - 전공 : 주학(籌學)	『주학입격안(籌學入格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55]) [이력사항] - 선발인원 ○○명 - 관직 계사(計士) 李濟承 字景祖甲寅生 海州人 父計士宅翁祖壽別提其復曾祖宜昌外祖壽別提李鍾開本井邑○妻父壽入格金宗儒本慶州 玄濟復 字元禮乙巳生 川寧人 父引儀察訪鉉祖譯科主簿在新曾祖譯科知樞解外祖譯等第參奉卞錫圭本家陽○妻父壽敎授李海斗本井邑 李漢基 字雲卿丙申生 泰安人 父壽別提鎮治祖舊敎授思質曾祖壽訓導壽職金憲浚本慶州鎮外祖譯科知樞秦東益本豐基○妻父壽別提 李時昌 字文伯壬辰生 陝川人 父壽別提日燾祖壽別提秉德曾祖計士晚求外祖南陽監利翁止考重晉本天安○妻父譯生徒洪禹錄本 籌學入格案 卷二 六十四
---	---

[역과] 고종(高宗) 11년(1874) 갑술(甲戌) 증광시(增廣試) 3등(三等) 26위(36/39) - 자(字) 원례(元禮) - 생년 을사(乙巳) 1845년 (현종 11) - 합격연령 30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구 6024-98]) [이력사항] - 선발인원 39명 [一等3・二等7・三等29] - 전력 별선(別選) - 관직 직장(直長) - 전공 한학(漢學)
--	--

정 棖, 27세, 농상공부 주사, 오촌군수(鰲川郡守)
호는 운강(雲剛), 제복(濟復)의 아들이다. 1870년(고종7년)에 태어났다. 1884에 주학, 1885년
에 식년시 역과에 합격했다. 1901년 미국에 유학하였다. 귀국하여 부친이 근무했던 농상공부
의 주사가 되고, 1912년 충남 오촌군수(鰲川郡守)가 되었다.

[취재] 고종(高宗) 21년(1884) 갑신(甲申) 주학(籌學) ○○위(8/○○) 자(字) 치강(致剛) 생년 경오(庚午) 1870년 (고종 7) 합격연령 15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 ○○명 타과 역과(譯科) 급제	『주학입격안(籌學入格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55]) [부(父)] 성명 : 현재복(玄濟復)[譯] 관직 : 계사(計士) 과거 : 역과(譯科) [조부(祖父)] 성명 : 현옥(玄錫) 관직 : 의의(司儀) 관직 : 찰방(察訪) [증조부(曾祖父)] 성명 : 현재신(玄在鎡)[譯] 관직 : 주부(主簿) 과거 : 역과(譯科)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해두(李海斗)[舊] 본관 : 정읍(井邑) 【補】 관직 : 주학교수(籌學敎授) 관직 : 부사(府使) 관직 : 노동지(老同知) 전공 : 주학(籌學) [처부(妻父)] 성명 : 이경주(李擎柱)[譯] 본관 : 전주(全州) 【補】 관직 : 포사(奉事) 과거 : 역과(譯科)
--	---

[역과] 고종(高宗) 22년(188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3위(6/36) 자(字) 치강(致剛) 생년 경오(庚午) 1870년 (고종 7) 합격연령 16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성명 : 현재복(玄濟復)[譯] [조부(祖父)] 성명 : 현○○(玄○○) [증조부(曾祖父)] 성명 : 현○○(玄○○)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

[이력사항]

• 선발인원 36명 [一等3・二等11・三等22]
• 전공 한학(漢學)

李壽善	字啓仁 己巳生 本泰安 漢學
玄 棖	字致剛 庚午生 本川寧 漢學
金鍾煥	字華明 戊辰生 本保寧 漢學
玄學義	字聖再 庚申生 本川寧 漢學
趙在鳳	字景韶 壬戌生 本韓山 漢學副奉事
金載琮	字元七 戊戌生 本牛峯 倭學聰敏判官 幼名載璿
金準用	字公燭 庚午生 本靑陽 漢學直長
趙漢弼	字善子 父譯科奉事九善 倭學
趙顯喆	字石卿 丁卯生 本漢陽 倭學
劉星熙	字稚奎 辛未生 本漢陽 漢學奉事

경섭 景燮, 28세, 대중음악가, 한국 최초의 트럼펫 주자

1913년생, 제복(濟復)의 손자, 정(棖)의 아들이다, 일제강점기 최대 레코드 회사였던 ‘오케레코드’에서 운영했던 조선악극단의 핵심 연주가로 음악 녹음과 공연에 참여한 주요 연주가, 당시 언론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을 능가하는 트럼펫 연주자로 소개. 트럼펫 뿐만아니라 편곡, 연기, 춤, 노래까지 소화한 종합예술인으로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 1949년에는 서울교향악협회에 소속되어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음악 활동을 했으나 한국동란 당시 납북, 돌아가신 해를 알 수 없다. 평소에 꾸준히 써 온 일기는 대중음악사 연구와 일제강점기 생활사에 큰 연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일기의 원본 이미지와 각종 신분 증명서, 동료들의 사진, 소장했던 유성기 음반 전곡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자료집에 디지털로 복원되어 DVD로 보관되어있다.



현경섭 일기.

현경섭

비운의
조선인
트럼펫 연주자

”



오케레코드 조선악극단원 장흥상회 앞 기념사진.



오케레코드 조선악극단 1930년대 공연모습.

용-1인상-육-덕우-각-2상하-심-1계근-2월 계系

현 烜(暄), 23세, 음성·연일 현감(陰城延日縣監) 증(贈)좌승지(左承旨)

1770년(영조英祖 46년)에 태어나셨다. 음성·연일 현감(陰城延日縣監) 좌승지(左承旨)를 역임하셨. 족보 기록을 보면, ‘이군향관여함경도세흉민기공이백미이천곡진흙수군향리함칭덕혜목민관(以軍餉官如咸鏡道歲凶民飢公以白米二千斛賑恤數郡鄉里咸稱德惠牧民官.’ 풀이해보면, 이 해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릴 때 공이 백미 2,000말로 여러 군과 마을을 구휼하니 모두 덕혜 목민관이라 칭했다. 1833년(순조純祖 33년)에 돌아가셨다

일성록 > 순조 > 순조 12년 임신 > 5월 6일 >

순조 12년 임신(1812) 5월 6일(정축)

12-05-06[11] 부족한 군량을 보조한 사람 등에 대해 상전(賞典)을 시행하였다.

○ 비국이 아뢰기를,

“각 영문(營門)에서 출정한 장교(將校)는 대부분 이전의 벼슬로 나아가 여러 달 노고를 하였으나 돌아와 숙할 데가 없으니 우선 급료를 주는 자리를 가설(加設)하였다가 실직(實職)

備局啓言各營門出征將校多以前仕出去積月勞苦仍無歸屬姑爲加設付料陞實事分付各該營京中補餉前五衛將金漢泰善地僉使除授前僉正安國瑞該監治腫教授差出前郎廳安國衡能麼郎廳差出松都補餉人白

에 올리도록 각 해당 군영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울에서 군량을 보조한 전 오위장 김한태(金漢泰)는 좋은
 지방의 첨사로 제수하고, 전 첨정 안국서(安國瑞)는 해당 감
 (監)에서 치증 교수(治腫敎授)로 차출하고, 전 낭청 안국형
 (安國衡)은 능마아 낭청(能磨兒郎廳)에 차출하고, 송도(松都)
 에서 군량을 보조한 사람인 백사일(白思日)은 본부(本府)의
 교수로 차출하고, 영운 감관(領運監官)으로서 관서(關西)의
 진휼을 도운 전 낭청 **현환(玄煥)**은 감목관(監牧官)으로 차출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思日本府敎授差出領運監官關西補賑前郎廳玄煥
 監牧官差出之意請分付允之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8년 신미 > 1월 10일 >
 고종 8년 신미(1871) 1월 10일(경자) 맑음

08-01-10[30] 자경전에서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 등을 인견할 때 도제조 김병학 등이 입시하
 여 풍년을 기원하는 친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고 헌감 **현환(玄煥)**은 신미년(1811, 순조11) 서경(西警 서
 방의 변란. (홍경래의 난) 때에 백의로 종사하여 군량을 나
 르는 직임에 차출되어 바닷길을 건너 제대에 대진(大陣)에
 날라 들리고, 또 수천 포(包)와 소 50마리를 장만하여 장졸
 을 사사로이 진휼하였는데, 그 뒤에 공로를 갚은 것은 목관
 (牧官)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난 무오년(1858, 철종9)
 에 신미년의 군공인(軍功人)을 포증(褒贈)할 때에도 이 사람
 만 빠져서 따돌려진 한탄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의 항
 성(恒星)이 한 바퀴 돈 때에 특별히 가자하여 포증하여 국가
 의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出舉條 炳學曰, 故縣監玄煥, 辛未西警時, 以白衣
 從事, 差運糧之任, 跋涉海路, 趁期輸納于大陣,
 又辦數千包五十牛, 私賑將卒, 其後酬勞, 不過牧
 官而止, 而去戊午年間, 辛未軍功人褒贈時, 此人
 獨爲見漏, 不無向隅之歎矣. 今於天星一周之會,
 特爲加階褒贈, 以示朝家之意, 何如? 上曰, 依爲
 之. 出舉條

意則毋論某幾文依畿營例自承文院繕寫封箋以紓一分民邑之力
 恐好故散違矣 上曰既有畿營之例且有民邑之契云以此定式可也
 如 上曰依爲之 縣監玄煥學曰其伯安相報滿狀已到矣按藩制相實對
 揚民事則彈誠存恤軍務則盡心修舉蔚然聲績咸願久留乎安監
 司韓啓源兵使蔡東使待簡酌加一瓜仍任以責終始之效何如 上曰依
 爲之 縣監玄煥學曰道臣之春秋行部省耕省斂之所由行則雖不可一切廢
 闕而此時供億之費徒貽民邑之契今春八道巡審并停止北道陞寢
 畿內陵園奉審依例以秩高特令替行事行會何如 上曰依爲之
 條 炳學曰故縣監玄煥學曰其伯安相報滿狀已到矣按藩制相實對
 路趁期輸納于大陣又辦數千包五十牛私賑將卒其後酬勞不過牧官
 而止而去戊午年間辛未軍功人褒贈時此人獨爲見漏不無向隅之歎
 矣今於天星一周之會特爲加階褒贈以示朝家之意何如 上曰依爲之
 縣監玄煥學曰侍從臣父年七十加資典武彼在也前承旨李鍾晉當爲推
 恩而所后家無可施慶其本生父年今七十云依例移施之意分付何如
 上曰依爲之 縣監玄煥學曰太歲元月三陽乾剛之會萬物泰通之始也

辛未正月初十日巳時
 上御慈慶殿藥房入診大臣政府堂上引見同爲入侍時都提調金
 炳學提調金炳地右承旨金聲根閣臣 假注書鄭應世記事
 官白時洽別兼春秋金永穆右承旨金聲林假注書鄭應世記事
 假注書金在鼎記事官白時洽別兼春秋金永穆領議政金炳學右
 議政洪淳穆政府堂上申樞鄭基世金大根趙秉昌曹錫兩李景夏李
 周詰金世均崔遇亨尹正求李章瀛金炳地李元淵沈泳澤嚴錫鼎閣
 致序許 燭掌令金顯副校理張原相以次進伏醫官玄光宣李漢廣
 朴時永金在瑚進伏程外訖
 上曰史官分左右炳學進前問候各殿問候訖炳學曰醫官待令使之
 入診乎 上可之光宣等以次診候退伏程外訖炳學顧謂光宣等曰朕候
 詳爲奏之光宣等奏曰朕候左右三司調均矣炳學曰湯劑無議定者乎光
 宣等曰無所議進矣 上命醫官先退仍命次對爲之炳學奏曰農者天下
 之大本也帝王之躬耕藉田所以供養國而萬民先重農厚本實在其中
 而親祀豐壇亦祈年之禮也惟我殿下念元元地於百有餘年之隆將以繼
 述我英廟故事成命一下朝野欣告臣不任欽仰攢祝之至而今此親勞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8년 신미 > 1월 13일 >
 고종 8년 신미(1871) 1월 13일(계묘) 맑음

08-01-13[23] 이비의 관원 현황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재원(李載元)
 은 나왔고, 참판 이돈응(李敦應), 참의 오준영(吳俊泳)은 모두

○ 有政. 吏批, 判書李載元進, 參判李敦應, 參議吳俊泳,
 竝牌招不進.(중략)故縣監玄煥贈左承旨, 軍功人褒贈事承傳, 故

패초에 나오지 않았다.(중략) 고 현감 현원(玄煊)에게 좌승지를 추증하였는데, 군공(軍功)이 있는 사람이므로 포상하여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은 것이다. 고 부사 정선교(鄭善教)에게 이조 참판과 그에 따른 예검을 추증하였는데, 동지의금부사 정태호(鄭泰好)의 죽은 아비이다. 고 학생 김덕린(金德麟)에게 동몽교관을 추증하였는데 효행이 뛰어나므로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은 것이다.

府使鄭善教贈吏參例兼, 同義禁鄭泰好考, 故學生金德麟贈童敦孝行卓異贈職事承傳。

鄭範朝今加嘉善特爲加資事承傳前假監役李士魯今起通政年七十侍從臣前承旨李鍾晉本生父雅恩移祀事承傳公事官單柳致秀贈禮判李奎鎮贈左參贊例魚贈戶參李敏謙贈戶判例魚故訓主李碩文贈左承旨已上判義禁李源祚三代故縣監玄烜贈左承旨軍功人京贈事承傳政府使鄭善教贈吏參例魚同義禁鄭泰好考故學生金德麟贈童敦孝行卓異贈職事承傳再政以吳麟泳李肇信爲正言柳龍鍾爲兵曹正郎都錫璫爲監察李寅翼爲懷德縣監典翰單李承宇三政以林佐漢爲昌陵令俞望源李善浩爲典籍任基元爲奉常直長校書副正字單自璫行四政以洪昌裕爲監察五政以李根奭爲引儀宋祥淳爲典籍故學生康成大贈左承旨學生康世顯贈僕工已上五衛將康祐鎮三代 兵批判書李景夏進 以李根奭爲內禁將徐泓淳爲羽林將元世煩趙義稷李赫孫澄銖金鳳煥爲五衛將朴寅淳爲昌德將吳麟泳爲文魚守門將軍金其淳爲金設單吳承運副司馬南鎬元魚忠清道兵馬水軍節度使單金炳始忠清道兵馬節度使單李教獻忠清道水軍節度使單

同治十年辛未正月十三日候晴
行都承旨鄭基會世 注 書
右承旨任尚準世
右承旨金聲根世 雙注書
左副承旨李會正世
右副承旨南廷龍世直 事變微注書
同副承旨韓誌愚世直
上景福宮傳常奉 經筵○大駕詣 景祐宮展拜還入齋室後藥房內閣政院王堂口傳問 安 答日知道 仍詣南正君洞宇還入齋室後藥房內閣政院王堂口傳問 安 答日知道 仍詣本宮入幕次後藥房內閣政院王堂口傳問 安 答日知道 大王大妃殿 王大妃殿 大妃殿進承旨問 安 答日知道 還宮後藥房內閣政院王堂口傳問 安 答日知道 ○傳日京兆堂上並許通政官牌招開政○傳日副學典翰外王堂並許通今日政差出○傳日王台禮曹參判與在外敦寧都正禮曹參議洋長並許通今日政差出○傳日和殯基差遣內侍看審以來○傳日

하규 夏圭, 24세, 함흥 감목관(監牧官), 칠원현감(漆原縣監)
현(烜)의 장남, 1798년 (정조(正祖)22)년생, 함흥 감목관(監牧官), 칠원현감(漆原縣監)

서규 瑞圭, 24세, 수원·함흥감목관(水原咸興監牧官) 전증추부첨지사
현(烜)의 4남, 1815년 (순조(純祖)15년) 10월3일생, 일명 복규(復圭) 자 중삼(仲三),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수원·함흥감목관(水原咸興監牧官) 전증추부첨지사

2용-1인상-육-덕우-각-2상하-심-1계근-4희 계系

영섭 永變, 28세, 일제강점기 황도학회이사, 『조선인의 나아갈 길』, 『신생 조선의 출발』 등을 저술한 작가이다. 1906년 현헌(櫛)/(玄귀(櫛)의 아들'로 일부 기록에 나오지만 誤記로 보여짐.玄귀(櫛)의 아들은 영섭(英變) 1908년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현영남(玄永男)이었으나, 1931년 현영섭(玄永變)으로 개명했다. 아마노 미치오[天野道夫], 히라노 히데오[平野永男], 쿠도 히데오[工藤永男]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인을 동화시키려는 일제의 말기정책을 선전했다. 그것은 內鮮一體(내선일체)라는 구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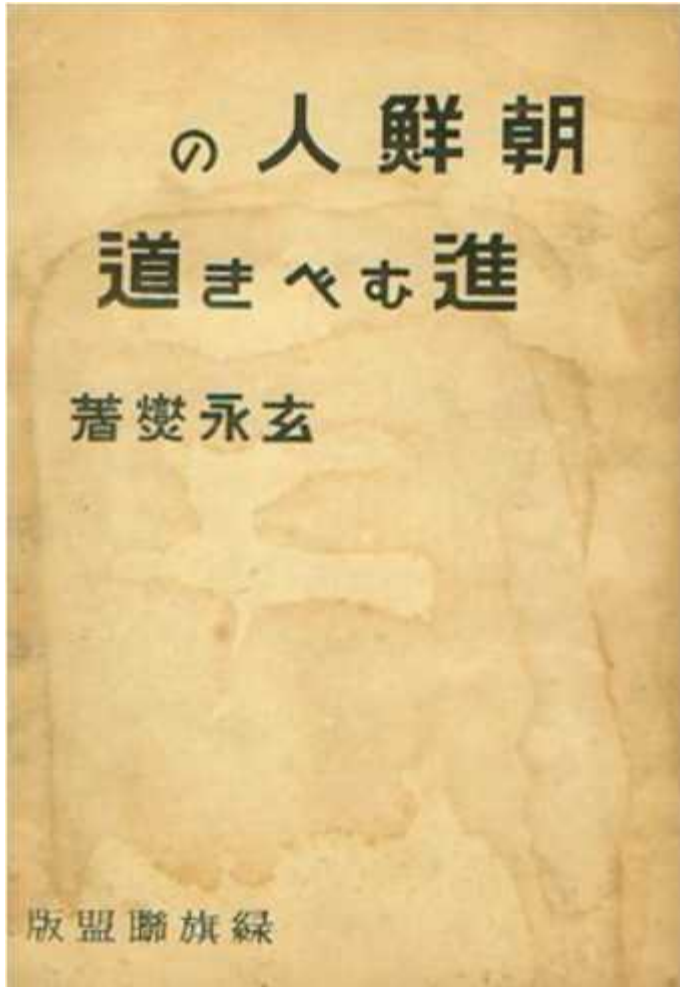
더 알려졌다. 조선인은 당파적이고 가족과 사회제도로 구별되는 조선인에서 일제에 보상하는 조선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이 추구해야 할 길은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 일본제국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완전히 일본제국의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현용 가계의 현순, 현채 등과 가까운 일가로서 거래의 진로에 관한 정반대의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근대화를 두고 주체의식의 방향 설정에 혼돈을 겪던 양상을 보여준다.

192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해 1928년 수료했으며, 같은 해 동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 입학해 1931년 졸업했다. 졸업 후 학부에서 고위관리를 지냈고,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중국·일본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1935년 11월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 5월 석방되며 전향했다. 1936년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 9월호에 실린 「정치론의 한 토막」이라는 글에서 조선어 폐지, 조선인 생활의 일본화, 내선(內鮮) 결혼 등을 주장했으며, 이후 각종 글과 강연을 통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1937년 1월 녹기연맹(綠旗聯盟)에 가입해 편집국 서기 겸 녹기연구소 연구원이 되었고, 8월 녹기연맹 이사를 맡았다.

1937년 9월 『북지사변과 조선(北支事變と朝鮮)』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의 중국 침략 정당성과 중일전쟁 이후 내선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조선총독부가 지원해 수만 부가 배포되기도 했다. 1938년 1월에는 내선일체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조선인의 나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선인의 나아갈 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을 출간했다. 1939년에는 “내선일체를 위해서는 언어·풍속까지도 일체가 필요하다”며 조선어 폐지와 일본어 상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신생 조선의 출발(新生朝鮮の出發)』을 출간했다. 1940년 1월 내선일체 실천사의 이사를 맡아 기관지인 『내선일체』에 여러 편의 친일 논설을 발표했다. 1940년 12월 김동환·이광수 등과 함께 황도학회를 결성하고 이사가 되었으며, 1941년 10월 황도사상 보급 등을 내걸고 조직된 정학회(正學會)에도 참여했다. 1943년 9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연성부 촉탁에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해방 직후 일본으로 도피해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1949년 8월 반민특위에 의해 반민족행위자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제강점기 말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중 문화 부문 학술 명단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3(민족문제연구소, 2009)/『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IV-19(2009)/『민족정기의 심판』(1949)/『친일파 군상』(1948)/『애국대연설집(愛國大演說集)』(1940)/『신시대』2(1941.2)/『충동원』2-1(1940.1)/『녹기(綠旗)』2-1~5-1(1937.1~1940.1)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3계정 계系

계정 啓禎, 22세, 1744년(영조英祖 20년) 생, 자(字) 의간(宜幹), 판중추(判中樞) 兼 도총관(都總管)

일성록 > 정조 > 정조 8년 갑진 > 10월 28일 >

정조 8년 갑진(1784) 10월 28일(경술)

08-10-28[04] 진주 겸 주청 정사(陳奏兼奏請正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하교하기를,

“진주 겸 주청 정사인 의정부 우의정 김익에게는 안구

敎曰。陳奏兼奏請正使 議政府右議政 金燧。鞍具馬一匹面給奴婢四口。田十五結賜給(중

마(鞍具馬) 1필(匹)을 면급(面給)하고 노비(奴婢) 4구(口)와 전(田) 15결(結)을 사급(賜給)하며,(중략) 차비 역관(差備譯官) 장식(張湜) · **현계정(玄啓禎)** · 김중옥(金重鉦) · 김성구(金成九) · 장엄(張淹)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그중에 현계백(玄啓百)은 청어(淸語)에 능통하여 연경(燕京)으로 가는 사행이 있을 때마다 말로 의사 소통하는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번번이 모두 담당하여 애를 썼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 칙사의 행차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통사(通事)의 반열(班列)에 들어야 하니, 그도 가자하라.

략)差備譯官 張湜 **玄啓禎** 金重鉦 金成九 張淹。各兒馬一匹賜給。其中玄啓百。善鮮淸語。每當赴燕之時。凡有言語酬應之事。此人輒皆擔當效力云。且今勅行當前。宜置通事之列。亦爲加資。

식 弼, 23세, 1762년 생, 江戶(강호) 德川幕府(덕천막부) 통신사 역관 계정(啓禎)의 아들, 1811년에 그의 삼촌 玄啓根(계근)과 같이 江戶(강호) 德川幕府(덕천막부)에 통신사 역관으로 갔다.

[역과] 정조(正祖) 10년(17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1등(一等) 3위(3/19)

- 자(字) 양원(陽元)
- 생년 임오(壬午) 1762년 (영조 38)
- 합격연령 25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 [부(父)]
- 성명 : **현계정(玄啓禎)**[**譯**]
 - 관직 : **교회(敎誨)**
 - 관직 : **교수(敎授)**
 - 관직 : **사역원정(司譯院正)**
 - 전공 : 역과(譯科)

- [조부(祖父)]
- 성명 : **현심(玄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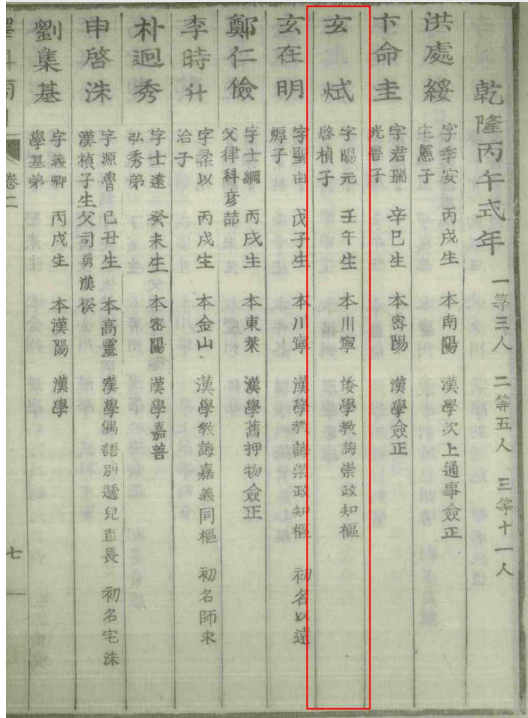
-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상하(玄尙夏)**

- [처부(妻父)]
- 성명 : **이만배(李萬培)**
 - 본관 : **남양(南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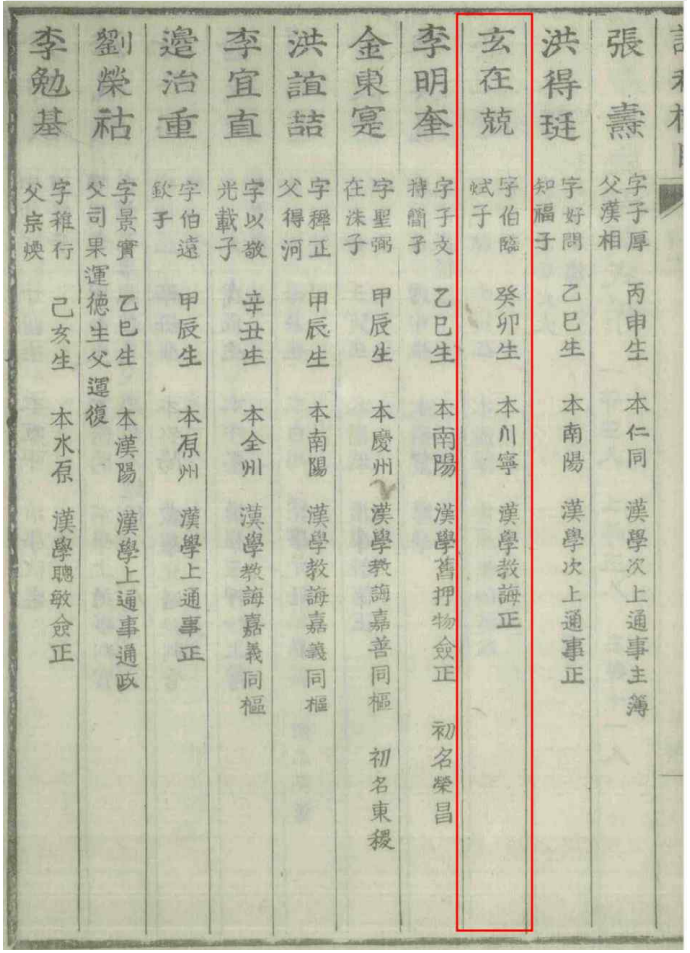
- [이력사항]
- 선발인원 36명 [一等3 · 二等11 · 三等22]
 - 전공 한학(漢學)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 6024-98])

-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 · 二等5 · 三等11]
 - 품계 **충정대부(崇政大夫)**
 - 관직 **교회(敎誨)**
 - 관직 **지추(知樞)**
 - 관직 **부산훈도(釜山訓導)**
 - 전공 왜학(倭學)



재공 在兢, 24세, 중국어 역관, 식弼의 장남, 1783년(정조 7년)생, 자(字)백수(伯修), 한학(漢學)교회정(敎誨正)

[역과] 순조(純祖) 1년(18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1등(一等) 3위(3/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자(字)] 백수(伯修) [생년] 계묘(癸卯) 1783년 (정조 7) [합격연령] 19세 [본인본관] 천녕(川寧)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u>현식(玄弼)</u>[<u>譯</u>]. · 품계 : <u>가선대부(嘉善大夫)</u>. · 관직 : <u>사역원판관(司譯院判官)</u>.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u>현계정(玄啓楨)</u>[<u>譯</u>]. [증조부(曾祖父)] · 성명 : <u>현심(玄深)</u> [처부(妻父)] · 성명 : <u>유태열(劉泰說)</u> · 관직 : <u>현감(縣監)</u>. · 과거 : <u>무과(武科)</u> · 본관 : <u>청주(淸州)</u> [안향(鴈行)] · 제(弟) : <u>현재봉(玄在朋)</u>[<u>譯</u>]. · 제(弟) : <u>현재림(玄在林)</u>[<u>譯</u>].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 · 二等5 · 三等11] · 전력 <u>교회(敎誨)</u>. · 관직 <u>정(正)</u>. · 관직 <u>알물(押物)</u>. · 전공 한학(漢學) 

채 采 27세, 역관, 관료, 교육인, 역사학자, 계몽사상가, 평강군수, 기호흥학과찬무원을 역임했다. 국민교육회에 가입해 계몽운동을 벌였고 광문회(光文會) 편집원으로 고전(古典)을 간행, 문화 보급에 힘썼다. 백당(白堂), 백당촌수(白堂村叟)라는 별칭이 있다.

* 광문회(光文會) : 1910년에 최남선이 창립한 고전(古典) 간행 기관. 《동국통감》, 《해동역사》, 《대동운부군옥》, 《경세유표》 따위의 유명한 고서(古書)를 다시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참봉(參奉) 현제만(濟萬)의 아들로써 1856년(철종 7년)에 태어났다. 고종 10년(1873) 식년시 역과(譯科) 한학(漢學) 3위로 급제했다.

[역과] 고종(高宗) 10년(187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3위(11/20) - 자(字) 백수(白受) - 생년 병진(丙辰) 1856년 (철종 7) - 합격연령 18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u>현계정(玄啓楨)[譯]</u> - 관직 : <u>교회(敎誨)</u> - 관직 : <u>교수(敎授)</u> - 관직 : <u>사역원정(司譯院正)</u>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u>현심(玄深)</u> [증조부(曾祖父)] - 성명 : <u>현상하(玄尙夏)</u> [처부(妻父)] - 성명 : <u>이만배(李萬培)</u> - 본관 : <u>남양(南陽)</u> [부(父)] - 성명 : <u>현제만(玄濟萬)</u> - 관직 : <u>사역원참봉(司譯院參奉)</u> [조부(祖父)] - 성명 : <u>현강(玄綱)[譯]</u> [증조부(曾祖父)] - 성명 : <u>현재금(玄在莚)[譯]</u> [처부(妻父)] - 성명 : <u>최길순(崔吉淳)[監]</u> - 전공 : 의과(醫科) - 본관 : <u>경주(慶州)</u>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이력사항] - 선발인원 20명 [一等3・二等5・三等12] - 전공 한학(漢學)
--	---

1892년 부산항감리서 역학, 번역관이 되었으며, 1894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가 되었다. 1895년부터는 학부로 옮겨 관립 외국어학교와 한성사범학교에서 부교관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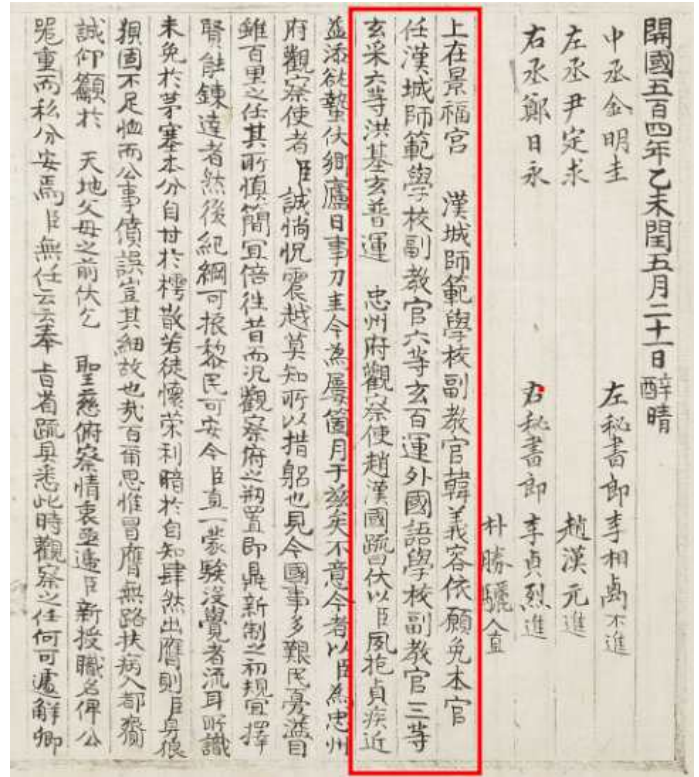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2년 을미 > 윤5월 21일 >
 고종 32년 을미(1895) 윤5월 21일(신유) 맑음

32-윤05-21[03]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6등에 **현백운**을 임용하였다

○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6등에 현백운(玄百運), 외국어학교 부교관(外國語學校副敎官) 3등에 **현재**(玄采), 6등에 홍기(洪基)·현보운(玄普運)을 임용하였다.

규장각 원본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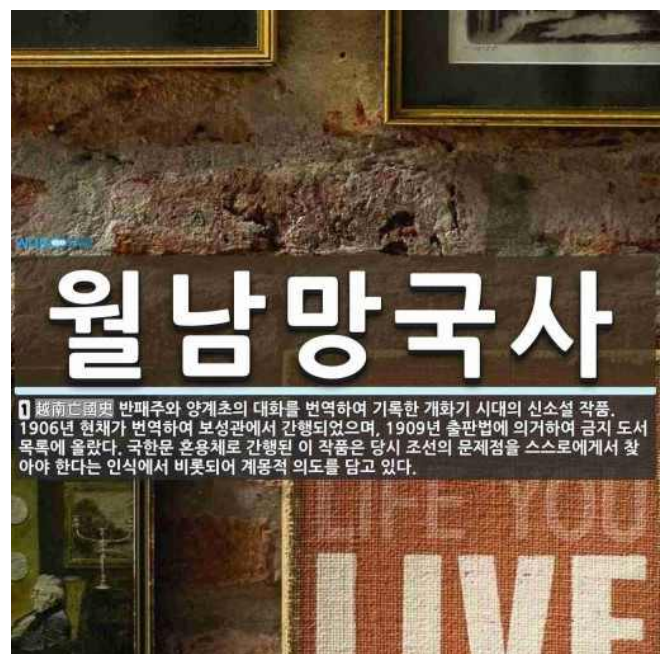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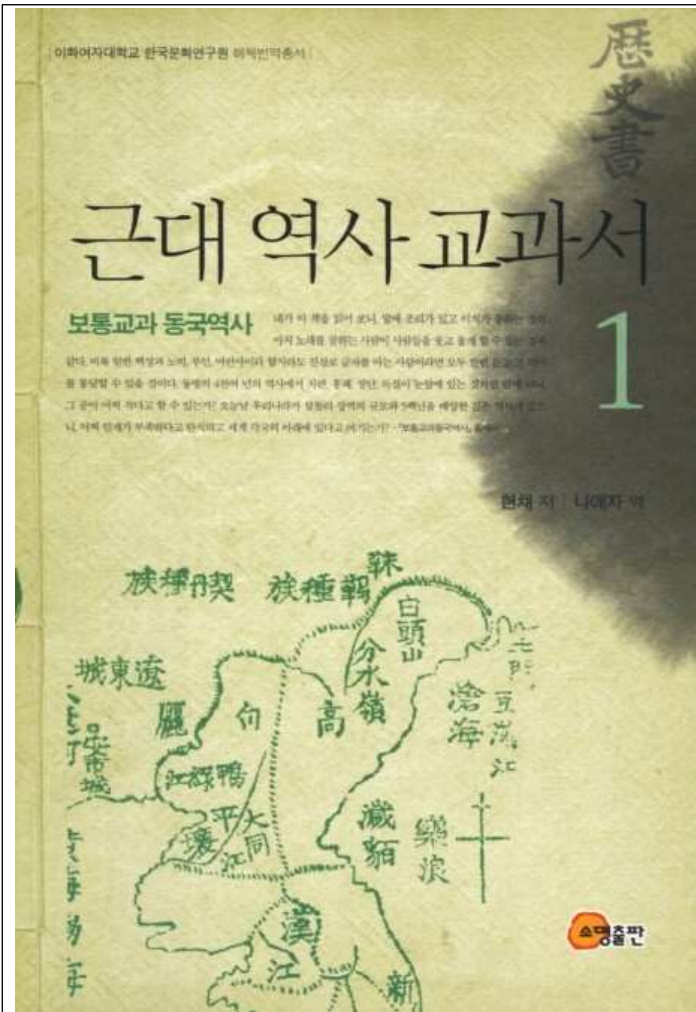
〈○〉漢城師範學校副敎官韓義容, 依願免本官。 任漢城師範學校副敎官六等玄百運, 外國語學校副敎官三等玄采, 六等洪基·玄普運。



1896년 평강군수(平康郡守)가 되었다가 사직했다. 1899년 학부 편집국 위원으로 임명되어 1907년까지 학부 주사 및 보좌원으로 근무했다. 학부 재직 때 교과서 편찬작업에 종사하였다. 1899년 학교용 국사교과서인 『동국역사』를 편찬했다. 1900년 장지연과 함께 시사총보사를 광문사로 개칭한 후 『목민심서』 등 정약용의 저서를 간행했다. 1905년 한성법학교 교장이 되었고, 1906년 대한농회 의원, 국민교육회 보강요원, 1907년 이토히로부미의 후원으로 조직된 대동학회 평의원에 선출, 1908년 기호흥학회 찬무원, 대한중앙학회 평의원이 되었다.

* 한성법학교(漢城法學校) : 1905년 한성에 설립되었던 사립전문학교, 개교 당시의 학생수는 111명, 설치과정은 법학전문과(야간과정)와 예비보통과였으며, 교장은 현재(玄采)였다. 9월 이용익이 세운 보성전문학교는 한성법학교 학생 22명을 인수, 통합하여 법률학전문 야학과를 신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애국열을 고취하는 《越南亡國史》, 1906년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東國史略》 등을 저술했으나 다음 해 학부에서 해직당하였다. 1909년 그의 책 4종이 통감부에 압수당하였다. 한국인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검열을 규정한 출판법이 공포된 후 처음 압수당한 7종의 책 가운데 4가지가 그의 저작이었다. 거기에는 위의 두 책 외에도 《幼年必讀》, 《幼



年必讀釋義》가 들어 있었다.



1910년 최남선 등과 조선광문회에 참여했으며, 1911년 문예구락부의 편집장이 되었다.

1918년에는 서화협회 발기인, 1919년에는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후원으로 친일단체 육성책의 일환인 대동사문화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2년에는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상했다. 같은 해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될 때 위원으로 임명되어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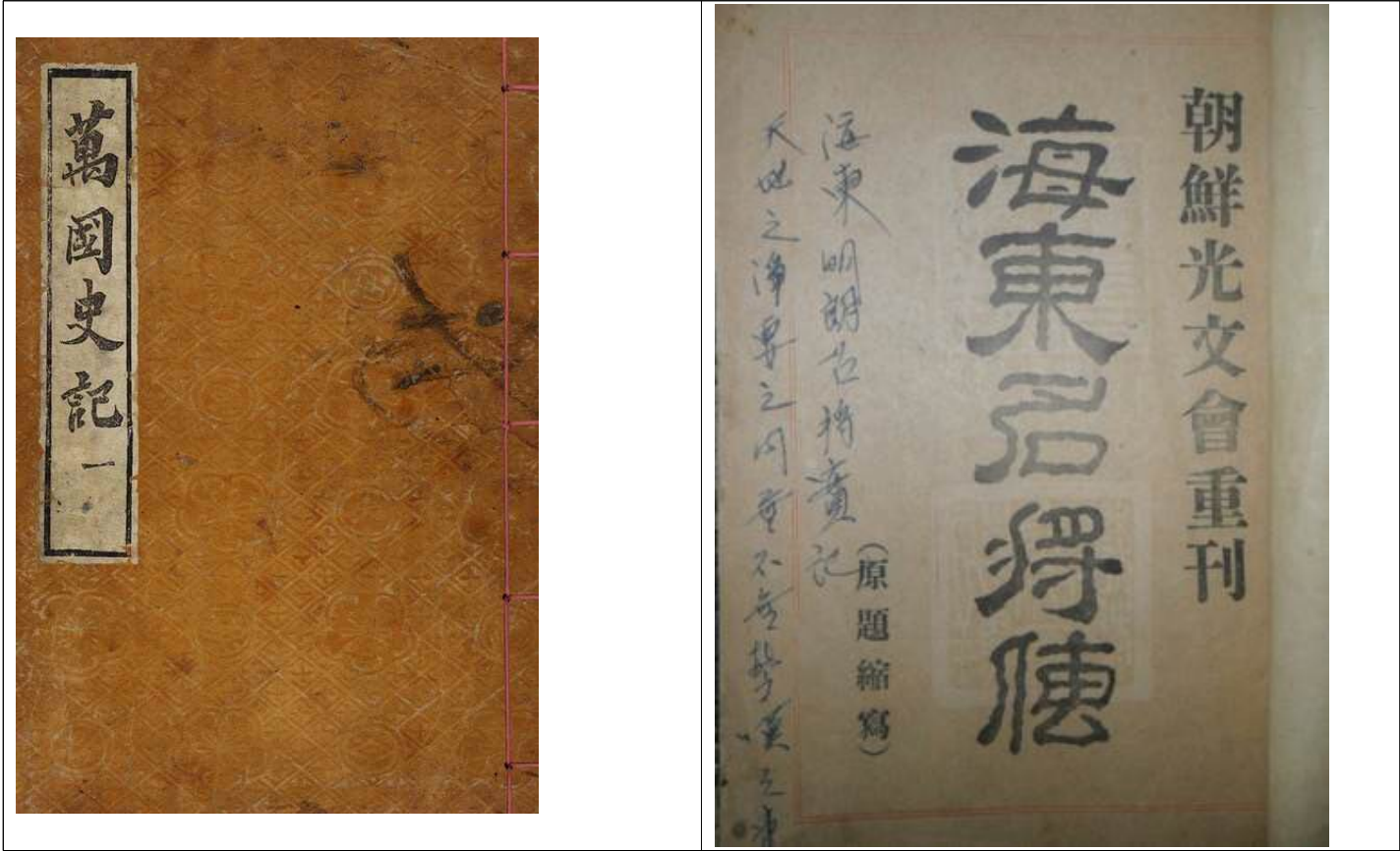
그는 20세기 초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여러 계몽 기관에 가입하거나 관여하면서 계몽 면에서 이 운동을 이끌어 간 사상적 지도자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서양의 사회 進化論에 의거하여 약육강식의 경쟁 시대로 파악하였다. 국권을 찾는 방도로서는 유교적 사고에 입각하여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료 · 장군과 문명 개화된 인민들에 의해 견지되는 君主制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자강론(自強論)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高宗의 양위와 일본의 탄압으로 좌절하고 1908년 이후에는 사회진화론에 따라 일본 지배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의병 운동기의 절정기에 살면서도 그는 백성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의병 운동에는 반대하였다. 주권 회복 운동을 벌였던 그는 舊本新參型(구본신참형)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玄采 등의 계몽활동은 근대교육을 위한 저술과 출판, 신문발간 및 인쇄업 등 문자를 통해서 識者層을 대상으로 한 계몽이 주된 방법이었다. 玄采와 玄公廉(1872-1930) 부자는 출판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들의 저작은 서울 곳곳에서 팔렸으나 1908년 이후에는 玄氏家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판매소를 가졌다. 어느 연구가의 추산으로는 당시 玄采 집안에서는 약 318종의 책을 간행하였다고 하니 개화기 조선사회에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교과서를 발행할 정도의 경제력은 무역을 통한 상업활동에 의해서였다. 1884년에는 중국과 서울을 오가는 무역을 하였고, 1892년에는 통상사무를 담당하던 監理署에 파견되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현채가 1907년 이전 저술한 번역서 및 저작을 역사책에 주력한 이유는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세계 각국의 역사를 소개시킴으로써 열강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현채(采)는 역사를 통한 애국 계몽사상의 고취에 힘썼다. 전통적인 편년체 역사서술방법에 문제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朝鮮史》와 같은 일본인의 사서를 통해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1908년과 다음 해에 일제통감부의 조종에 따라 강제 실시된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에 따라서 그의 많은 저서들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幼年必讀》은 排日 내용이 많아 평안도 교회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당시 청소년뿐 아니라 식자층에서도 하나의 바이블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회에서 발행하던《京鄉新聞》에서는 현채가 번역한《越南亡國史》를 프랑스의 입장에서 월남 점령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당시 종교계의 주체성이 결여된 동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표적인 논객인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은 청국의 변법자강운동(變法自強運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양계초(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통해 진화론을 수용하였다. 현채(采)도 양계초의 《청국무술정변기(淸國戊戌政變記)》 등을 번역하였다. 사회진화론은 우승열패(優勝劣敗), 적자생존(適者生存)을 자연이나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원리로 보고, 종족이나 국가 상호 간의 전쟁을 사회진보의 원동력으로 상정하는 논리 체계였다. 사회진화론은 19세기

말부터 한국 내에 수용되어 독립협회나 국권회복기의 지식인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로 작용하였다. 현재(采)는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조선 현실을 인식하고 이것의 해결책으로 自强을 주장했다. 방법으로는 기술과 실용에 중점을 두고 근대화에 앞장 선 문명국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대한제국의 관리로서 국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입장에서 전면적인 개혁보다 舊本新參型의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을 주도할 정부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관리를 강조하였다. 이런 목적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세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14권이나 되는 《萬國史記》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는 국권회복의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하였다. 저서가 많이 판매금지 당하고, 학부에서 해임되자 현재(采)는 《야뢰(夜雷)》라는 잡지에 계속 국권 회복을 위한 논설과 역사, 지리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다. 일본에 의한 경제적 침탈과 국내 경제기반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1907년에는 스스로 국채보상기성회에 의연금을 내었다. 국권이 1910년 상실되자 최남선, 장지연 등과 함께 朝鮮光文會(조선광문회)를 창설하여 고전의 발굴, 수집과 간행 보급에 힘썼다. 1925년 2월 5일에 돌아가셨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3(민족문제연구소, 「백당현재연구」(노수자, 『이대사원』8, 1969)/『조선시대잡과합격자총람』/『일성록』/『구한국관보』/『조선총독부관보』/

관련 미디어

(5)대한지지/월남망국사/월남망국사/유년필독석의/다음 슬라이드이전 슬라이드

공렴 公廉, 28세, 채의 아들, 개혁운동기 총대위원, 출판인

개혁운동기에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으로 적극 활동했다. 현공렴은 박영효를 일본에서 소환해 오는 운동에 앞장섰다. 집안 어른인 현제창은 1904년 일본에 있는 박영효와 관계를 맺고 국내에 잠입하여 평양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玄公廉은 우매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하여 한글로 글을 쓰기도 했다. 《신찬 초등소학(新撰 初等小學)》이나 《유년필독(幼年必讀)》의 경우, 국한문 혼용체이지만 한글이 대부분이고, 삽화가 지면의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현공렴의 경우도 《신편 가정학(新編 家政學)》, 《중등 광물학(中等 鑛物學)》, 《식물학(植物學)》 등에서는 한자가 많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39년 임인 > 10월 2일 >
고종 39년 임인(1902) 10월 2일(무자, 양력 11월 1일)
39-10-02[06] 비서원 낭에 6품 박제황을 임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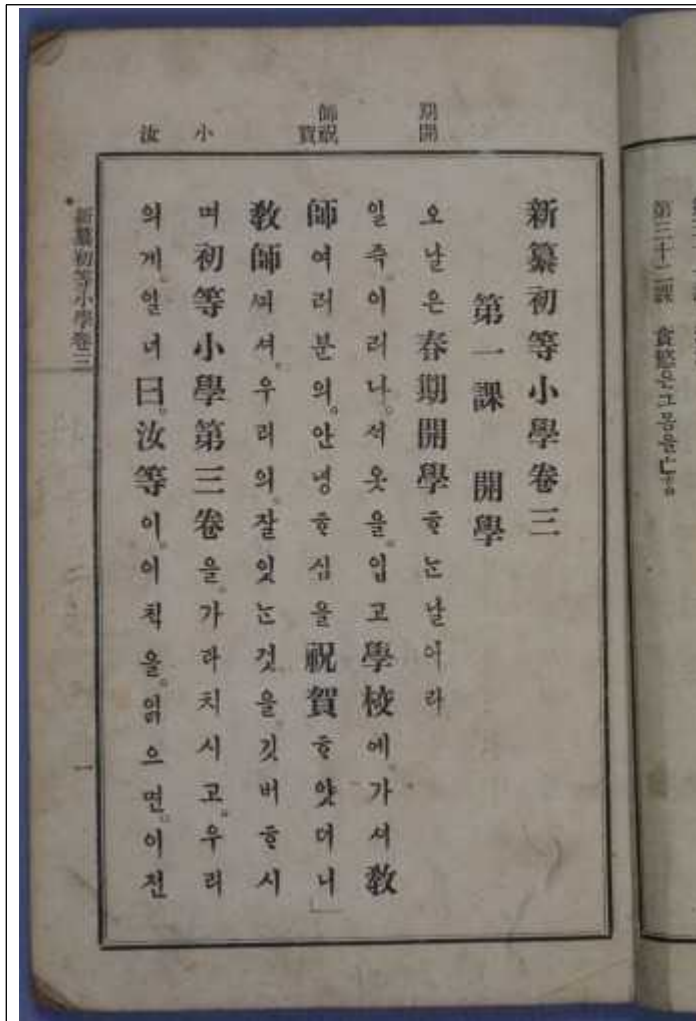
○ 6품 박제황(朴齊璜)을 비서원 낭에 임용하고, 6품 이증화(李鍾華)를 수륜원 주사에 임용하고, (중략) 9품 현공렴(玄公廉)·김수찬(金洙瓚)을 수륜원 공상과 주사에 임용하고(중략) 임용하였다.

<○> 詔曰, 命 六品朴齊璜任秘書院郎, 六品李鍾華任水輪院主事, 九品玄公廉·金洙瓚任水輪院公桑課主事。

해제 > 한국문집총간 해제 > 이충무공전서
문집 외에 저자의 사적만을 수록한 책으로는 「李忠武公遺事」 1책이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1908년 玄公廉이 활자본으로 간행한 「李忠武公實記」 1책이 있다.

흙흙신서 01
도서관 소장정보 종합DB 해제 목차

번역 원본은 현공렴(玄公廉) 발행의 용희 원년(1907년)판을 저본으로 하였고, 뒤에 붙인 복사 원본은 정향진(丁向鎭)발행의 1937년 판임



외국어 수업을 위해서 역관들이 편찬하였던 외국어 학습서는 일본에서도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번안, 출판되고 개항 이후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또 이들이 한국의 외교사를 정리한 책은 지금도 귀중한 외교사 자료가 되고 있다.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3계정-식 계系

재명 在明, 24세, 식飡의 차남,
1786년(정조 10년) 생, 자 중락(仲樂). 중국어 역관, 호조판서(戶曹判書)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3계정-식-2재명-2건-제원 계系

억 憶, 27세, 재명(在明)의 증손자, 1880년(고종 17년)에 태어났다. 인쇄조합회사의 발기인으로 1908년에 박물관서적(博物學書籍)과 문명서관(文明書館)을 운영했다. 《萬歲報》의 간행에도 참여했다.

* 만세보(萬歲報) : 1906년에 창간된 천도교계 신문이다.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얼마 안가 경영난에 빠지자 이인직이 이를 인수하여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인 《대한신문》이 되었으며 이후 친일 신문이 되었다.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3계정-식-2재명 계系

필 鉞, 25세, 재명(在明)의 여섯째 아들, 1827년 순조(純祖)27년생, 중국어 역관

제원 濟遠, 26세, 필(鉞)의 아들, 자 치열(致悅), 1849년 헌종(憲宗)15년생. 왜역 1876년 강화도 조약 후 일본수신사(日本修信使)에 통역의 일원으로 파견되었다.

2용-1인상-옥-덕우-각-2상하-심-3계정-식 계系

재림 在林, 24세, 식飡의 3남, 1788년생(정조 12년), 역과정(譯科正)

[역과] 순조(純祖) 9년(1809) 기사(己巳) 증광시(增廣試) 1등(一等) 2위(2/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구 6024-98])

- 자(字) : 사은(士隱)
- 생년 : 무신(戊申) 1788년 (정조 12)
- 합격연령 : 22세
- 본인본관 : 천녕(川寧)
- 거주지 :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식(玄弼)[譯]

[조부(祖父)]

- 성명 : 현계정(玄啓植)[譯]
- 전공 : 역과(譯科)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심(玄深)

[처부(妻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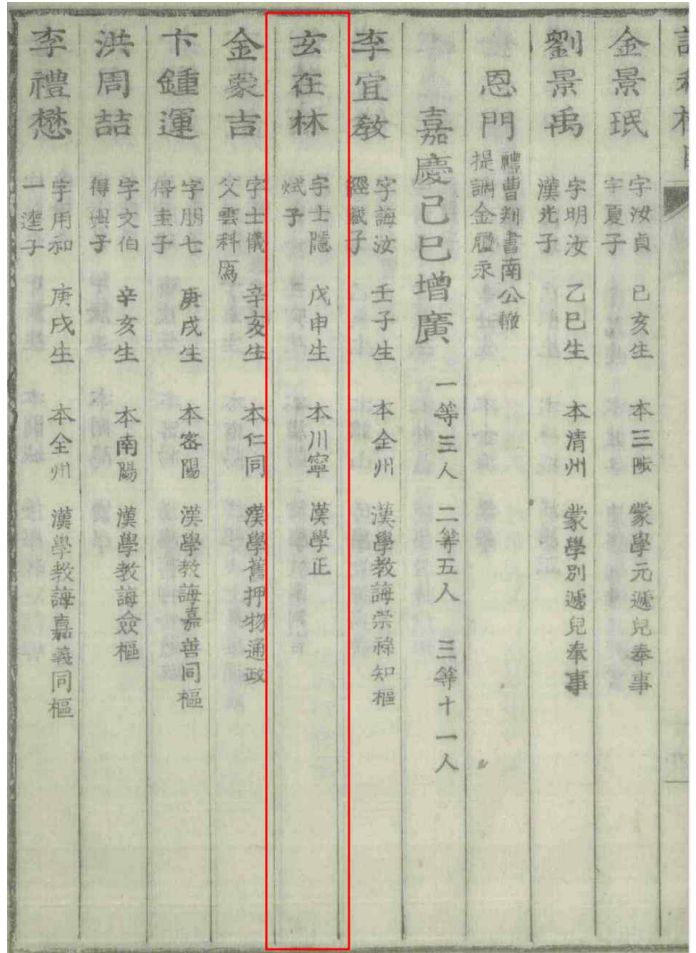
- 성명 : 이진복(李鎭復)[譯]
- 관직 : 교희(敎誨)
- 전공 : 왜학(倭學)
- 본관 : 전주(全州)

[안향(鴈行)]

- 형(兄) : 현재금(玄在兢)[譯]

[이력사항]

- 선발인원 : 19명 [一等3 · 二等5 · 三等11]
- 전력 : 정(正)
- 전공 : 한학(漢學)



상 錦, 25세, 역과(譯科) 첨정(僉正)

재림의 장남, 1809년순조(純祖)9년생, 자 평여(平汝),

[역과] 헌종(憲宗) 3년(183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1등(一等) 3위(3/19)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평여(平汝)
- 생년 기사(己巳) 1809년 (순조 9)
- 합격연령 29세
- 본인본관 천녕(川寧)
- 거주지 미상(未詳)

[부(父)]

- 성명 : 현재림(玄在林) [譯]
- 관직 : 사역원정(司譯院正)
- 전공 : 역과(譯科)

[조부(祖父)]

- 성명 : 현식(玄弼) [譯]

[증조부(曾祖父)]

- 성명 : 현계정(玄啓楨) [譯]

[처부(妻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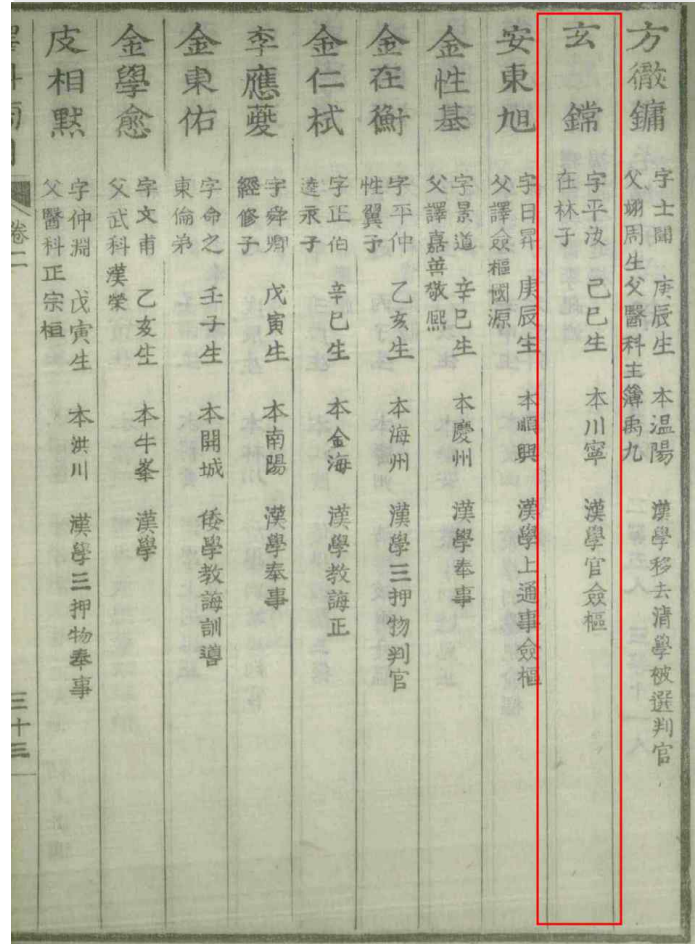
- 성명 : 김영(金榮) [譯]
- 관직 : 정(正)
- 전공 : 한학(漢學)
- 본관 : 청양(靑陽)

[안향(鴈行)]

- 제(弟) : 현위(玄緯)

[이력사항]

- 선발인원 19명 [一等3 · 二等5 · 三等11]
- 전력 한학관(漢學官)
- 관직 첨지(僉知)
- 전공 한학(漢學)



위 鎬(瑋), 25세, 연천군수(連川郡守)

재림의 차남, 1821년순조(純祖)21년생, 자 덕여(德汝), 연천군수(連川郡守)

[지방관] 조선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연천현감(漣川縣監) 1873[계유(癸酉)] 윤6월(閏六月)

[인물요약] <table> <tr> <td>• UCI</td><td>G002+AKS-KHF_12D604C704FFFFU9999X0</td></tr> <tr> <td>• 문무구분</td><td>문관</td></tr> <tr> <td>• 생년</td><td>미상(未詳) (미상)</td></tr> <tr> <td>• 졸년</td><td>미상(未詳) (미상)</td></tr> <tr> <td>• 시대</td><td>조선후기</td></tr> <tr> <td>• 본관</td><td>미상(未詳)</td></tr> <tr> <td>• 활동분야</td><td>관료</td></tr> </table>	• UCI	G002+AKS-KHF_12D604C704FFFFU9999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졸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관인정보] <table> <tr> <td>• 관직명칭</td><td>연천현감(漣川縣監)</td></tr> <tr> <td>• 관직등급</td><td>현감(縣監)</td></tr> <tr> <td>• 관직이칭</td><td>장주현감(漳州縣監)</td></tr> <tr> <td>• 진관체제</td><td>장단(長湍)</td></tr> <tr> <td>• 현대지명</td><td>연천군(漣川郡)</td></tr> <tr> <td>• 부임년월</td><td>1873 [계유(癸酉) 윤6월(閏六月)]</td></tr> </table> [도 정보] <table> <tr> <td>• 도명칭</td><td>경기도(京畿道)</td></tr> <tr> <td>• 관할군현</td><td>33관(三十三官)</td></tr> <tr> <td>• 도구분</td><td>경기우도(京畿右道)</td></tr> </table> [출전] 『팔도총록(八道總錄)』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527])	• 관직명칭	연천현감(漣川縣監)	• 관직등급	현감(縣監)	• 관직이칭	장주현감(漳州縣監)	• 진관체제	장단(長湍)	• 현대지명	연천군(漣川郡)	• 부임년월	1873 [계유(癸酉) 윤6월(閏六月)]	• 도명칭	경기도(京畿道)	• 관할군현	33관(三十三官)	• 도구분	경기우도(京畿右道)
• UCI	G002+AKS-KHF_12D604C704FFFFU9999X0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졸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후기																																
• 본관	미상(未詳)																																
• 활동분야	관료																																
• 관직명칭	연천현감(漣川縣監)																																
• 관직등급	현감(縣監)																																
• 관직이칭	장주현감(漳州縣監)																																
• 진관체제	장단(長湍)																																
• 현대지명	연천군(漣川郡)																																
• 부임년월	1873 [계유(癸酉) 윤6월(閏六月)]																																
• 도명칭	경기도(京畿道)																																
• 관할군현	33관(三十三官)																																
• 도구분	경기우도(京畿右道)																																

2용-1인상-옥-덕우-각 계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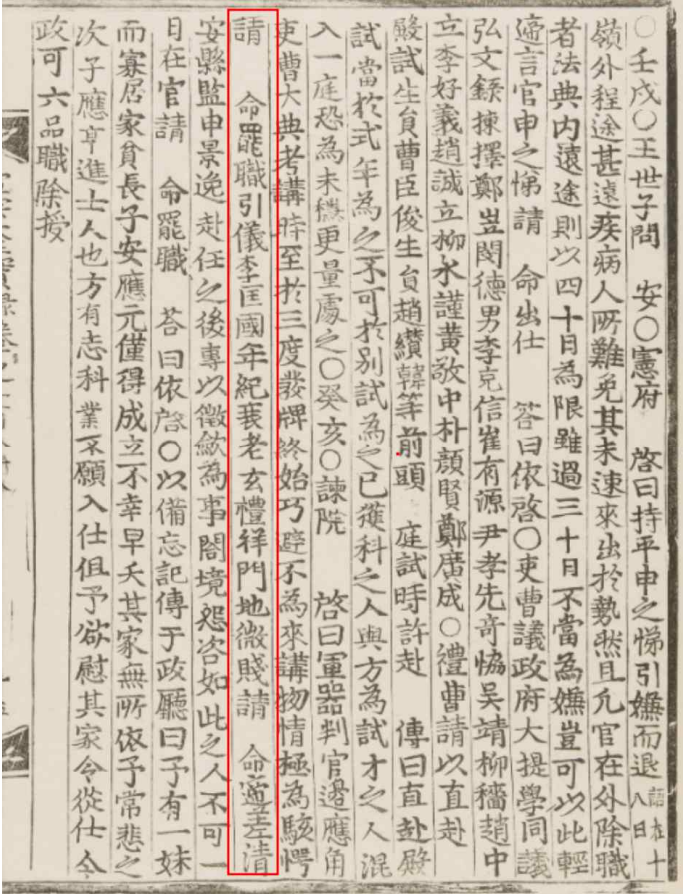
희하 熙夏, 20세, 역과(譯科) 봉사(奉事),
각(珝)의 3남, 자(字) 우공(禹貢), 1673년 현종(顯宗)14년생

2용-2예상 계系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1. 인상仁祥													
수겸(壽謙) 장예원판결사 掌隸院判決事	용龍	2 예상禮祥 동훈대부 通訓大夫 례빈사주부 禮賓寺主簿	1 禹珪 우규												
			2 禹錫우석 진사進士 덕원부사 德原府使												
			3 禹績우적 나주목사 羅州牧使	萬元만원 진사 강릉부사 江陵府使	聖夫성부 동래부 事東萊府使	光夏광하 진사 갑산부사 甲山府使	益重익중 진사, 남양부사 南陽府使								
		3 문상文祥													

예상 禮祥, 16세, 한성좌윤(漢城左尹)

용의 차남, 통훈대부(通訓大夫), 예빈사 주부(禮賓寺 主簿),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38년 을사 > 6월 20일 > 최종정보 선조 38년 을사(1605) 6월 20일(계해) 38-06-20[01] 고강을 하지 않은 변응각·징령만 일삼는 신경일의 파직을 간원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군기시 판관 변응각(邊應角)은 이조에서 《대전(大典)》을 고강(考講)할 때에 세 번이나 패문(牌文)을 내어 불렀으나 끝내 교묘히 피하고는 와서 강하지 않았으므로 물정이 극히 놀라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인의(引儀) 이광국(李匡國)은 나이들어 노쇠하고 현예상(玄禮祥)은 문벌이 미천하니 체차하소서. 청안 현감(淸安縣監) 신경일(申景逸)은 부임한 이후로 오로지 징령(徵斂)만을 일삼아 온 경내에 원망이 자자하니, 이런 인물은 하루도 관직에 둘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82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癸亥/諫院啓曰: "軍器判官邊應角, 吏曹, 大典考講時, 至於三度發牌, 終始巧避, 不爲來講。 物情極爲駭愕, 請命罷職。 引儀李匡國, 年紀衰老; 玄禮祥, 門地微賤, 請命遞差。 淸安縣監申景逸, 赴任之後, 專以徵斂爲事, 閤境怨咨。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依啓。" 【태백산사고본】 104책 18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82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오늘은 뱃길을 떠나기로 택한 날이다.

내가 본포(本浦)에 당도한 지 3일이 지났으나 병세가 여전하여 하루 먹는 것이 두어 손갈에 지나지 않았는데, 뱃사람들이 와서 관상감에서 가린 길일(吉日)이라고 고하므로, 부득이 병든 몸을 이끌고 묘시(卯時)에 정사 이덕형(李德潤), 부사 오숙(吳黼)과 더불어 역관(譯官)인 지사(知事) 표정로(表廷老), 동지(同知) 전제우(全悌佑), 첨지(僉知) 진인남(秦仁男)과 이문학관(吏文學官) 이원형(李元亨)과 상통사(上通事) 황효성(黃孝誠)·박인후(朴仁厚)와 압물관(押物官) 현예상(玄禮祥)과 사자관(寫字官) 현득홍(玄得洪)과 건량장무(乾糧掌務) 임치룡(林致龍)·이응익(李應翼) 등 40여 인을 영솔하고 각기 배에 올랐다. 뱃사공들이 일시에 뱃노래를 부르며 돛을 올리니, 북과 화각(畫角) 소리 또한 매우 처량했다. 여러 고을 수령들과 대소 인원이 모두 포구에 나와 전송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닻줄을 풀고 바다를 향해 점점 멀어져 가는데, 홀연히 수풀 사이에서 노래와 풍악 소리가 일어나 멀리 물가에 들려오니, 이는 여러 수령들이 풍악을 베풀어 원행(遠行)하는 사람의 회포를 위로하려 함이었다.

모든 배가 포구를 벗어나자마자 바람과 비가 크게 일므로 드디어 닻을 내리고 항구에서 유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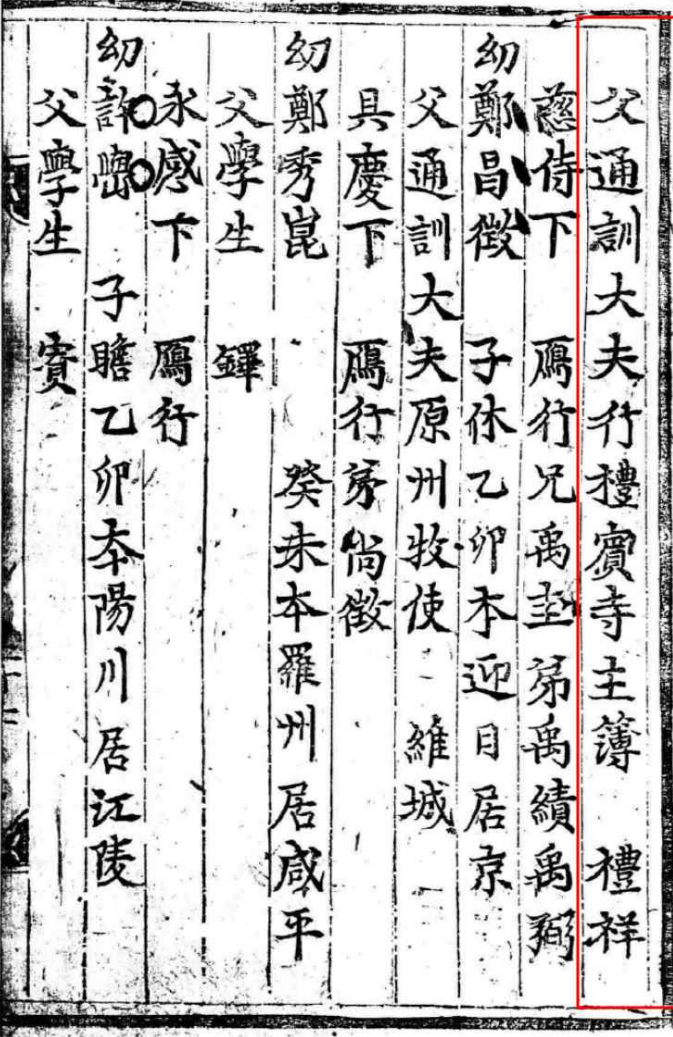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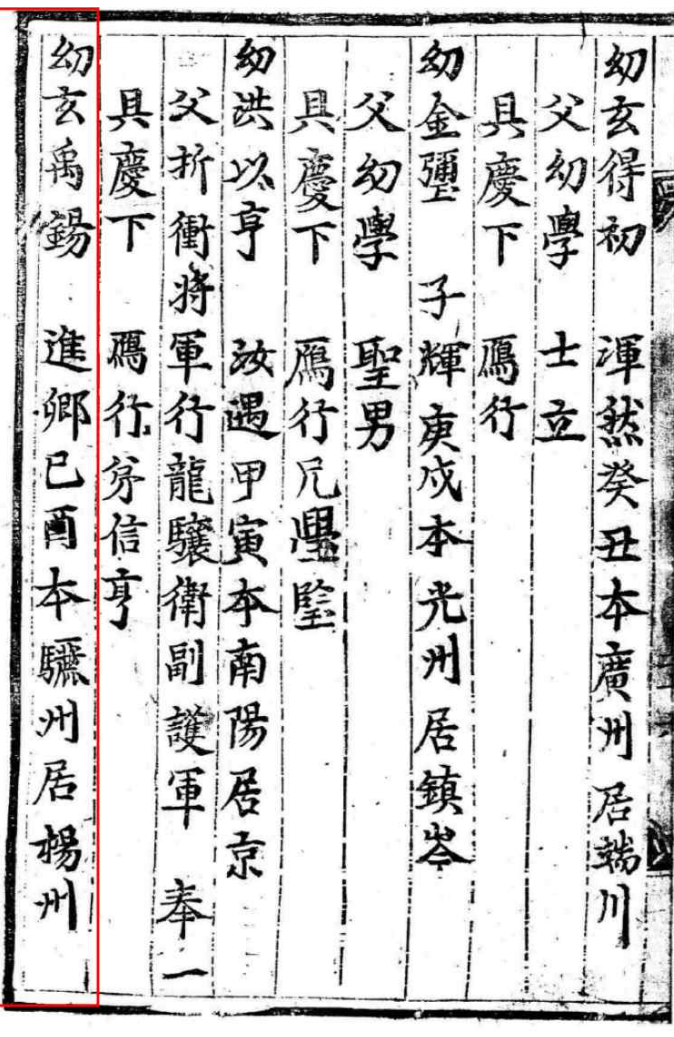
乃開洋簡辰也。職到浦三日疾病。所噉食。日不過數匕。而舟人以觀象監吉期來告。弗獲已扶曳病軀。卯時。與正使李德潤，副使吳黼。領率譯官知事表廷老，同知全悌佑，僉知秦仁男，吏文學官李元亨，上通事黃孝誠，朴仁厚，押物官玄禮祥，寫字官玄得洪，乾糧掌務林致龍，李應翼等四十餘人。乘各舡。篙師一時發棹歌。舉帆。鼓角亦甚悽切。諸邑守令及大小人員。俱送行於浦口。至有掩涕者。解纜轉遠。而擡眸林麓之際。戛然歌吹之聲。遠飄洲渚之間。認是諸守宰張樂作歡。欲慰遠游之懷也。諸舡纔脫浦口。風雨大作。遂下碇。留宿港中。

知事表廷老同知全悌佑僉知秦仁男吏文學官李元亨上通事黃孝誠朴仁厚押物官玄禮祥寫字官玄得洪乾糧掌務林致龍李應翼等四十餘人乘各舡篙師一時發棹歌舉帆鼓角亦甚悽切諸邑守令及大小人負俱送行於浦口至有掩涕者解纜轉遠而擡眸林麓之際戛然歌吹之聲遠飄洲渚之間認是諸守宰張樂作歡欲慰遠游之懷也諸舡纔脫浦口風雨大作遂下碇留宿港中

初五日丁亥晴風尚惡不得發遂望南岸有一白頭翁放聲大哭自遠而漸近訊其所以則取子為格軍故追送者也萬里滄海父子惜別之怆悽不忍見午浚風暫定移泊木差島港至夜二更順潮而向檣島夜黑如漆時見村燈點點問知列浦漢人寓居矣到檣島浚港下碇

初六日戊子曉色陰翳海風喧嘩雷聲發猛雨如注瘴雲四集黑浪倒立一葉出沒飄蕩幾至覆溺者數矣舡中人嘔泄僵卧篙師以為前古所未有之風濤云幸我不生水疾岸中長嘯倚舷臨之崩濤駭浪雪湧雲翻互相吞吐真壯觀也日將午風暫歇舡人以爲依泊檣島東港深崖萬全計也即風碇回棹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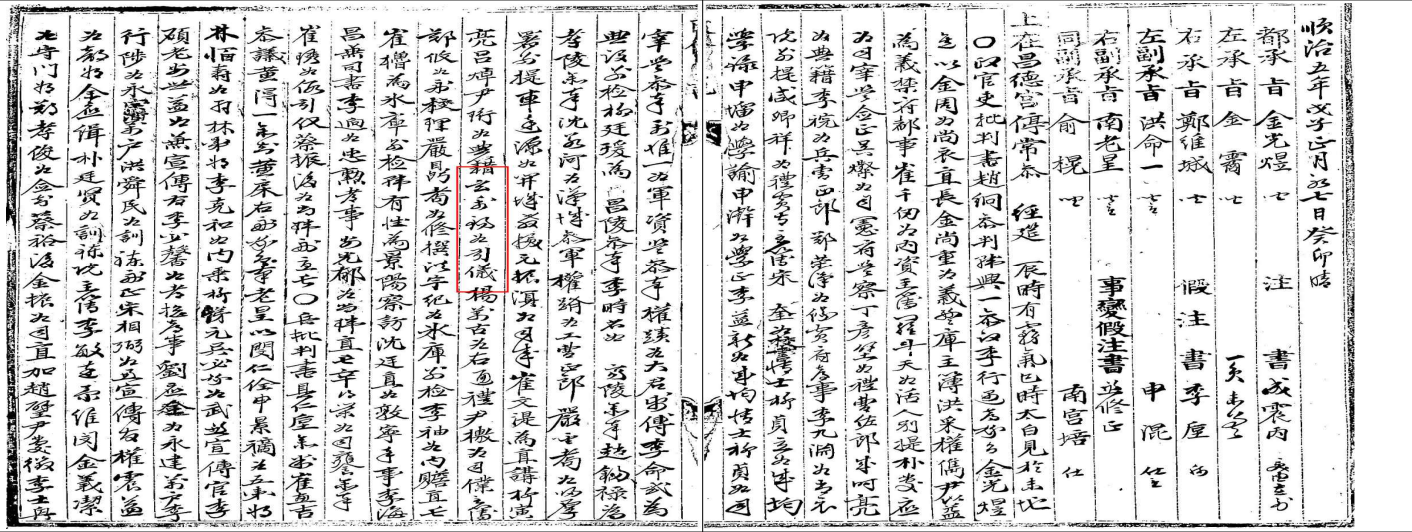
우석 禹錫, 17세, 용의 손자, 예상의 차남, 진사(進士), 광릉참봉(光陵叅奉), 영춘현감(永春縣監), 서산군수(瑞山郡守), 충주목사(忠州牧使), 덕원부사(德原府使)

[진사] 인조(仁祖) 17년(163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22위(52/100)		역과방목(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 자(字) 진경(進卿) - 생년 기유(己酉) 1609년 (광해군 1) - 합격연령 31세 - 본인본관 여주(驪州) - 거주지 양주(楊州)		[부(父)] - 성명 : 현예상(玄禮祥) -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 관직 : 행예빈시주부(行禮賓寺主簿) [안항(鴈行)] - 형(兄) : 현우규(玄禹圭) - 제(弟) : 현우적(玄禹績) - 제(弟) : 현우필(玄禹弼)	
[이력사항] - 선발인원 100명 [一等5 · 二等25 · 三等70] - 전력 유학(幼學) -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26년 무자 > 1월 7일 > 최종정보
 인조 26년 무자(1648) 1월 7일(계묘) 맑음
 26-01-07[03]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조경(趙綱), 참판 한흥일(韓興一), 참의 이행우(李行遇), 도승지 김광옥(金光煜)은 나왔다. 김주(金周)를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으로,(중략) 현우석(玄禹錫)을 인의(引儀)로(하략) 삼았다.

○ 政官。吏批, 判書趙綱, 參判韓興一, 參議李行遇, 都承旨金光煜進。以金周爲尙衣直長,,(중략) 玄禹錫爲引儀。(하략)



우적 禹績, 17세, 용의 손자, 예상의 3남, 진사(進士), 헌릉참봉(獻陵參奉), 홍천현감(洪川縣監), 괴산군수(槐山郡守), 나주목사(羅州牧使)

만원 萬元, 18세, 용의 曾孫, 우적의 아들, 진사(進士)영릉참봉(英陵參奉), 과천현감(果川縣監), 고양군수(高陽郡守), 청주목사(淸州牧使), 강릉부사(江陵府使)

성부 聖夫, 19세, 용의 玄孫, 만원의 아들, 효릉참봉(孝陵參奉), 포천현감(抱川縣監), 고성군수(高城郡守), 밀양부사(密陽府使), 동래부사(東萊府使)

광하 光夏, 20세, 용의 5세손, 성부의 아들, 진사(進士) 장릉참봉(章陵參奉), 무안현감(務安縣監), 결성군수(結城郡守), 양주목사(楊州牧使), 갑산부사(甲山府使)

익중 益重, 21세, 용의 6세손, 광하의 아들, 진사(進士), 목릉참봉(穆陵參奉), 함창현감(咸昌縣監), 안동군수(安東郡守), 장성부사(長城府使) 남양부사(南陽府使)

중랑장공파는 조선후기에 잡과와 문음 출신을 합하여 수령과 찰방을 대강 29명이 64회 이상 역임했다. 그중 지방 수령은 25명이 59회 정도 역임했다. 수령은 임금을 대신하여 각 고을을

다스리던 목민관으로서 그 치적이 조정에 대한 평가가 되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봉사행정은 민간에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개항 이후에도 해외유학을 거친 개명된 관료를 많이 배출하였다.

용-3문상 계系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1 인상 仁祥														
		2 예상 禮祥														
수검壽謙 장예원 판결사 掌隸院 判決事	2 용龍	3 문상 文祥	우성 禹成 명월만호 明月萬戶	석철 石喆 보성군수 寶城郡守	2 熙達 희달	1 日陽 일양	1 光寶 광보	1 尙仁 상인	1 永老 영로	1 順用 순용	1 萬辰 만진	2 千鶴 천학	1 詞善 사선	1 勝澤 승택	1 洪實 홍실	
													3 梯善 제선	3 丞燦 승찬	1 丁浩 정호	
										2 順薦 순연	3 萬生 만생	1 天權 천권	3 明力 명력	1 德俊 덕준		
														2 德奎 덕규	1 知沅 지원	
														3 德秀 덕수		
														5 銀姬 은희		
												3 天祚 천조	1 明厚 명후	1 德在 덕재	1 宗源 종원	
										3 順吉 순길	6 萬根 만근	2 千弘 천홍	1 政祐 정우			、
												3 千亨 천돌	1 昌勳 창훈	1 承協 승협		

우성 禹成, 17세, 제주도 명월성 만호(明月城 萬戶) 1618 ~ 1696년
시조 현담운(玄覃胤)의 17세손으로 경기에 살던 경기판서 현용(玄龍)의 손자(孫)이며, 都事(도사) 문상의 둘째 아들이다. 1618년 경기도 별내면 샛말에서 탄생, 1660년(顯宗현종 1년) 관직을 받아 명월성 만호(종4품 무관직)로 제주에 왔다가 함덕에 정착하였다. 1664년 통정대부 품계를 받았다. 중랑장공파 濟州入鄉祖(제주입향조) 함덕파(咸德派)로 불린다. 自經農場(자경농장)인 巨牛臺(거우대: 제주시 이도동)에 安葬(안장)하였다가 2009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로 이장되었다.



제주 입도조 우성(禹成)의 묘와 후손들 묘역

석철 石喆, 18세, 寶城郡守(보성군수)

사선 詞善, 27세, 독립유공자, 1907년정미(丁未)생



1911년 4월 16일 전라남도 제주군 신좌면(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아버지 현천학(玄千鶴)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신좌면(현 조천읍)함덕리로 이주하였다. 아버지 현천학은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서당 훈장을 겸했다.

1940년 3월 제주도 조천면의 자기가 경영하는 잡화상점에서 동네 주민 묘하라 오츠류(清原乙龍) 등에게 일제의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론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꼬집어 비판하는 말을 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말에는 중일전쟁의 전황에 관하여 "일본은 장기건설 이라고 떠들면서 국민을 혹사시키고 더욱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방법이 없게 되자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낸다"고 말하여 한인 지원병제(志願兵制)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또한 같은 해 9월경에는, "신문은 일본군이 중국의 임시수도인 중경을 30여 회나 폭격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진짜 폭격했다면 당연히 함락되었을 것인데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 30여 회 폭격이라는 기사는 진위를 의심케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 밖에도 일본으로 도항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선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선일체라면서 조선인의 일본 도항은 종래에 통하는 엄중한 취체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반일사상을 표명하였다.

이를 이유로 1941년 9월 중순에 일본 경찰에 체포된 그는 1942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육·해군형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치바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2001년 1월 22일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현사선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6일에 본래 일본 치바현에 안장되어 있던 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이튿날인 7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장했다.

승찬 丞燦, 28세, 1945년을유(乙酉)생, 조천읍 함덕리 출신,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종회 부회장, 중랑장공파 종친회장, 대동보(전자족보)수단간사

명력 明力, 27세, 1937년정축(丁丑)생, 서울시립대학교졸업, 제주대학교 농학박사(제주자생새우란연구), 중등교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2009)

덕준 德俊, 28세, 명력의 장남, 1960년경자(庚子)생,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졸업, 민원봉사대상 수상, 모범공무원상 제주 특별자치도청 시설 사무관 재직



제주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현덕준 회장이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홍정표/정치/지방/ 2004.5.3 (제주=연합뉴스)

덕규 德奎, 28세, 명력의 차남, 1964년갑진(甲辰)생, 서울대법학과졸업, 사우샘프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한미합동법률법인 및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임, 변호사 현덕규 법률사무소, 국민의당 제주을지역 위원장



덕수 德秀, 28세, 명력의 3남, 1969년기유(己酉)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졸업, Y T N방송 국기자 및 언론노조 지부장, Y T N보도국장



해직 기자 출신 현덕수 YTN 보도국장 내정자가 14일 오후 서울 YTN 상암 사옥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이취임식에서 “노조와 보도국이 공정방송 가치 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며 포부를 밝혔다.
현 내정자가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현덕수 YTN 보도국장 내정자 “공정방송 위해 선의 경쟁하자”



◇현덕수 YTN 노조위원장

은희 銀姬, 28세, 명력의 5녀, 1966년병오(丙午)생,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졸업, 입법고시 16기 합격,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재직. 夫김만수(金晩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졸업 부천시의원 역임,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장(노무현정부) 역임, 부천시장재직(2선)



현은희 / 국회부산도서관장



김만수 부천시장/현은희

덕재 德在, 28세, 1956년(丙申)생 중등교사, 대종회 이사, 대종회사무처 근무

천홍 千弘, 26세, 1939년기묘(己卯)생, 덕수사진관 운영, 중랑장공파종친회장, 대종회부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서울시장 표창

천돌 天玆, 26세, 제주도환경수협 협의회장, 대한사격연맹 제주도지회장

재호 再鎬, 29세, 1937년생, 중랑장공종친회장, 대종회 고문

길호 吉鎬, 27세, 1966년생, 재주도의회의원, 대종회 부회장

명섭 明燮, 28세, 1946년생, 대종회 부회장

상부 相富, 28세, 1956년생, 일본동경종친회장, 대종회 부회장

교승 敎承, 29세, 1961년생, 중랑장공파종친회장, 대종회 부회장

계식 啓植, 29세, 1941년생, 부산종친회장, 대종회 부회장

명홍 明弘, 27세, 1939년생, 대종회 이사

천국 千國, 28세, 1952년생, 대종회 이사

원 垣, 29세, 1939년생, 대종회 이사

교명 敎明, 29세, 1950년생, 미국거주, 대종회 이사

구원 球元, 29세, 1955년생, 대종회 이사

상호 相浩, 29세, 1966년생, 대한항공 전산센터 팀장, 대종회 이사